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14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1월 14일(음력 12월 19일) 수요일(주간)



1월 9일 해인사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사부대중의 화합과 보시바라밀 실천을 당부했다. 사진제공=조계종.

“세계는 한 총림, 어려울수록 나누며 살라”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9일 신년하례법회서 교시

종정 법전 스님께 새해인사를 올리는 조계종 신년하례법회가 1월 9일 오전 11시 합천 해인사에서 2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 자리에서 법전 스님은 “세계가 한 총림이며 세계인이 모두 총림대중”이라며 “정신적으로 힘들수록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교시를 내렸다.

이날 법회에는 성수 · 지혜 스님 등 17명의 원로의원 스님, 총무원장 지관 스님, 교구본사 및 주요사찰 주지, 중앙종무기관 소임스님, 중앙신도회 회장단,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윤명 경남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성우 기자

올해도 군포교는 이상 無!

군종교구 수계법회로 ‘기운찬 출발’

군심(軍心) 속 불심(佛心)을 심는 불법홍포는 기축년에도 계속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1월 7일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흥국사를 찾아 신년 첫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을 비롯해 해군사관학교 한관희 법사, 등은 교육사령관 김정두 중장을 접견하고 해군장병 400여 명에게 수계법회를 거행했다.

해군에 이어 육군도 군포교에 시동을 걸었다. 1월 10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김종봉 법사)에서는 장병 2000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수계법회에서는 지정기탁금 1000만원과 귤 200박스 등이 전달됐으며 광동학원 여학생 댄스팀이 위문공연을 펼쳤다.

1월 8일 교구회의실에서는 해외파송 법사 환영식을 개최했다. 올해 귀국한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이동경 법사와 해군 순항훈련 김명환 법사 등이 부처님께 신고하고, 레바논 동명부대로 파송되는 동명사 권기원 법사 등 해외파병 장병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1월 11일 국방부 원광사에서는 군불교총신도회 신년법회도 열렸다. 교구장 일면 스님과 재경지역 법사, 군불총회장 김태영 합참의장, 군불총 주요 임원들이 참석해 신년 군포교 의지를 다졌다. 노덕현 기자



진해 해군장병 400여 명은 기축년 국가안녕을 부처님께 발원했다.

“목적에 충실해”
14 선지식을 찾아서 묵산 스님

“기도로 행복을”
4 동화사 허운 스님

“千의 바람 될래요”
9 도반의 향기 변해림

역경에 분 ‘소통’ 바람 제도화해야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사업 ‘다자간 시스템 번역’ 도입 성공

열반을 일컫는 니르와나(nirvāṇa)를 A는 ‘니르바나’라 하고, B는 ‘니르와나’, C는 ‘닐바나’, D는 ‘열반’이라 말하면 어떻게 될까? 또 ‘색(色)’을 ‘물질’ ‘현상’으로 표기하거나 ‘공(空)’을 ‘없음’ ‘텅빔’이라한다면? 한 단어를 두고 여러 가지로 표기하는 까닭에 연구자는 물론 불자들 모두가 혼동을 겪어왔다. 용어의 혼용은 번역자의 개성과 의미전달의 효율을 넘어 대규모 번역출판 사업 등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조계종 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위원장 지관, 이하 간행위)가 2009년 5월 회향을 앞둔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이 국내에서는 처음 번역자간 소통을 기반으로 한 다자간 시스템 번역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다자간 시스템 번역은 3~4명의 전문인력이 할당량을 배분해 번역하는 방식이다. 개별 번역에 비해 오류를 줄이고 정확한 원문해석을 할 수 있지만 번역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문인력과 재정만 확보된다면 시스템 번역이 가장 확실한 역경체계”라고 입을 모은다.

중국에서 범어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도 다자간 시스템 번역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문경전의 구역과 신역을 구분하는 신기원을 이룬 현장 스님을 비롯해 중국에서는 인도 · 중국스님들이 초벌 번역한 것을 2차례 교정본 뒤 윤문과정을 거쳐 최종 번역했다.

다자간 시스템 번역의 극치는 중국 송대의 역경원으로 역주 · 증의 · 증문 등 8단계를 거쳐 불전을 번역했다.

간행위는 한국불교전서 발간을 통해 전통불교사상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고조시키고자 2007년 2월 조계종 총무원장 직속기구로 발족됐다. 2009년까지 3개년 동안 국고 등 30억 예산을 투입하는 간행위 사업은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사업에 이은 대규모 번역출판 프로젝트라는 규모뿐 아니라 다자간 시스템 번역의 도입으로 시행초기부터 교계의 관심을 모았다.

2010년 완간을 목표로 간행위가 발간할 도서는 한글 및 영역본 각 13권씩 총 26권. 신라시대부터 조선조까지 원효, 지눌, 혜심 등 한국 대표 고승들에 의해 저술된 한국불교 전통사상서 가운데 69종을 선별해 13책으로 묶었다.

6개의 한글 · 영어 번역팀과 영역교열팀, 영역윤문팀의 40여 번역 · 교열 · 윤문진은 팀별 워크샵 및 전체 워크샵을 통해 번역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간행위 제1팀만 해도 해주 스님(동국대)을 팀장으로 대학원생들이 수십번 윤문과 주해과정을 거쳤다. 한글화된 것을 로버트 버스웰 교수(美 UCLA) 등 영어권 학자들이 영역했고, 한글화 작업자와 영역 작업자가 만나 소통하며 오류를 줄였다.

다자간 시스템 번역은 동국역경원 출범 전부터 도입됐었다. 동국역경원 출범이전인 1963년 1월, 조계종 종정 직속기관으로 구성됐던 역경위원회는 번역 · 증의 · 윤문 등 6개 분과를 갖췄었다.

교계 전문가들은 “간행위의 형편이 역경원과 달랐다”고 말하지만 간행위 역시 국고와 종단의 지원은 있었어도 번역작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교열을 담당한 미산 스님(중앙승가대)은 “한국전통사상서 번역에 사용된 시스템 번역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며 “종단에서 추진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중국 역경원이 왕실의 후원 속에 고비용의 역경시스템을 유지했듯 정부와 총무원의 전폭적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불사였다는 말로 해석된다.

간행위는 1월 17~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차 국내 · 국제 워크샵을 개최한다. 사업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 워크샵을 열어 번역원칙, 스타일, 편집방침을 정했다. 이번 제5차 워크샵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글 번역 성과물을 공유하고, 번역 및 교열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해결 방법 등을 공유하게 된다.

3년여에 걸친 간행위의 번역 인프라가 제도화 · 상설화돼 종단 3대 사업인 역경사업의 새 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특별기획
불황 · 한파, 마음공부로 ‘희망’을…
⑥생활속의 다라니수행 ▶5면

첫서리 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주소창에 치세요
주소(D) 뽕잎차
뽕잎차 주문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강선원 TEL 055) 931-9590

“숲 향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 네 영체에 관한,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교의 설명으로는 ,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할까..... 나는 이제 현지사 큰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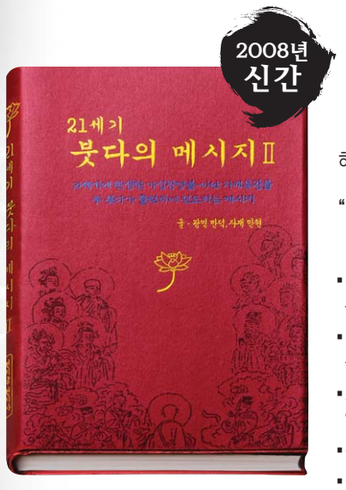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한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

–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춘천법회 – 매월 음 8일 / 부산법회 – 매월 음 23일

21세기 불교계에 새로운 경전 탄생!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Ⅱ

2개월만에 5쇄 시판



현지궁현지사 378쪽 | 25,000원 | 초판

21세기에 탄생한 가섭 광명불 아난 자재통왕불 두 붓다가 이 땅에 출세하여 전하는 부처님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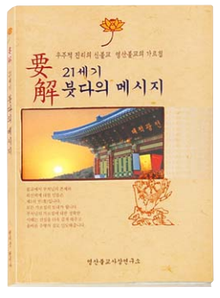
발간 하자마자 6개월 연속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2탄 입니다.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랐습니다. 종교상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해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세지 Ⅱ”를 통해서 불교가 왜 위대한 우주적인 메타종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 부처님 이후 2600여년 만에 열리는 영산불교 붓다회상의 희유한 설법장면, 부처님께서 상주하시는 현지궁의 모습과 부처님의 일상 일부를 공개.
- 인간의 실체인 영혼체와 영혼체가 가는 사후세계인 중음세계 · 육도윤회세계 · 해탈세계의 실존과 실상을 밝히면서 완벽한 생사관을 제시.
- 보살 · 붓다가 되는 혁신적인 칭명염불 수행법을 주창하여 ‘자 · 타력불교’라는 불교수행의 일대 파라다임 변혁을 주도.
- 무아와 윤회주체간의 모순관계에 대한 불교계의 오랜 논쟁을 명쾌하게 해결.
- 수행을 방해하는 용신 · 이매망량 · 정매마 · 천마 등 마장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 요해
[영산불교사상연구소]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Ⅱ≫와 자재만현 큰스님의 70여회 붓다회상의 설법내용중 핵심만을 골라 체계적으로 정리한 영산불교의 가르침을 집대성

http://www.hyunjisa.or.kr 판매처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 춘천 본사 Tel 033)243-1787,1795 /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 부산 분원 Tel 051)554-5150



죽비와 목탁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맹신(盲信)과 반야(般若) 사이

"고니시 장군은 왜군 중에서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늘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조선의 전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조선군과 맞섰습니다. 이순신은 어떠했나요? 그가 과연 주님을 알고, 믿음이 있었을까요? 고니시가 비록 왜장이지만 순교로 피를 흘리러 왔는데 그에게 칼을 들이댄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위 글은 국내 유명 교회인 여의도 S교회 신앙상담 게시판에 실렸던 글이다. 현재도 인터넷 상에서 쉽게 검색 가능한 이 글은 종교적 맹신(盲信)의 한 단면을 보게 해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특정 교리에 대한 신앙은 교단내 신도들에게는 당연한 믿음으로 여겨지겠지만, 타신도에게는 전도몽상(顚倒夢想)일 수 있다. 자기 종교의 색(色)에 갇혀 편협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색안경을 끼고 색깔을 분별하는 어리석음이다.

불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라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을 강조한다. 삼계의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어야 전도몽상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맹신의 위험은 최근 벌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에서도 드러난다. 유태인과 아랍인은 구약 성경에 나왔듯이 아브라함의 한 핏줄로 민족과 풍습이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유대교, 개신교, 그리스도교가 충돌하는 중동의 화약고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阿鼻叫喚)이다.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간 분쟁은 자기 종교의 신념만을 절대시하는 맹신과 교만에서 비롯됐다. 이스라엘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약속과 축복의 땅이라는 성서의 예언을 믿는다. 하지만 성서에 따르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집트와 이라크도 약속의 땅이고,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은 이슬람 제3의 성소(마호메드가 승천한 곳)이기도 하다.

종교는 자비와 사랑, 평화를 주장하지만 자기 종교만의 맹신 뒤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다. 사랑, 신용, 신앙 등 그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은 삶의 구성요소다. 하지만 지혜없는 믿음은 사회와 종교, 사람을 해친다.

반문하고 싶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수 유대교에서 "원수에게 한쪽 뺨을 맞으면 반대쪽 뺨도 내주라"며 '사랑'을 설한 예수님. 그 분의 눈에 조선인을 학살한 고니시 장군은 어떻게 비칠까. 여실지견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대상 '연지'

12일 시상식…불교정서·실용성 갖춘 우수상품 늘어

'나'와 '나의 것',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을 강조하는 공(空)의 종교인 불교. 자칫하면 공리공론(空理空論)에 치우쳐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지만, 불교의 정법은 색(色)에도 집착하지 하고 공(空)에도 머물지 않는 중도를 설파한다. 물질문명 속에 살면서도 거기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물을 지혜롭게 이용할 줄 안다.

그런 점에서 불교문화상품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 전한다는 점에서 훌륭한 전법도구가 될 수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시상식을 갖고, 대상에 연꽃을 응용한 욕조마개 '연지(蓮池)'를 시상했다.

Odd Eyes(오드 아이즈)팀이 출품한 '연지'는 물 위에 뜬 연꽃을 표현한 욕조마개로, 마개부분에 입욕제를 넣을 수 있게 했다. 출품자들은 "욕조마개로 쓰임과 동시에 물 위로 연꽃이 떠오르도록 해 마치 사찰에 간 듯한 편안한 느낌을 디자인 했다"고 설명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현대적 감각과 불교적 정서를 잘 표현했고, 실용성을 겸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제2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욕조마개 '연지'

또 우수상(2명)에는 김종규씨의 '천은사의 아침 연꽃', 이신우 · 방준혁씨의 '목탁경'이 선정됐다. 장려상(5명)에는 조순애씨의 천연염색을 이용한 템플스테이 기념상품, 조은정씨의 '풍경의 빛과 소리', 양주은씨의 '내 마음의 템플스테이', 원영환씨의 '산사', 장미영씨의 단청문양 액세사리가 수상했으며, 그 외 특선 10명, 입선 17명이 선정됐다.

공모전을 통해 개발된 수상작은 목적에 맞게 가공돼 불교용품 및 불교문화상품 사업에 적극 활용된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문화진흥원, 한국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등 우리나라 문화상품 관련사업 육성과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기관들이 후원했다.

종훈 스님은 "내외국인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한국불교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불교문화상품이 개발돼야 한다"며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 나온 우수한 불교문화상품들이 세계적 문화브랜드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랍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제2회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에는 모두 230명이 응모해 문화상품과 디자인부분에서 모두 263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예년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은 이번 수상작품들은 1월 16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전시된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승풍실추 사건에 엄정 대처

조계종 호법부장, 기자회견서 자정 원칙 강조

"수행 기풍을 무너뜨리는 사건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

조계종 호법부가 최근 일련의 승풍실추 사건과 관련, 교단자정 차원에서 엄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호법부장 정만 스님은 1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마곡사를 비롯해 해인사와 법주사, 쌍계사 등에서 발생한 금품수수와 폭력, 도박 등 승풍실추 사건에 대해 종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곡사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 정만 스님은 "8일 개최한 마곡사 관련 간담회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만 스님은 前 호법부장 심우 스님의 노스님 폭행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후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종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심호계원은 호법부의 징계안 회부에 따라 1월 16일 심판부를 개정해 마곡사 주지 법용 스님 등에 대한 심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온누리에 수행·희망·행복의 향기를!"

조계종 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시무식



조계종 소임스님과 종무원들은 1월 5일 시무식을 갖고 불교중흥을 서원했다. 사진제공=조계종.

2009년 새해를 맞아 조계종은 중앙종무기관과 산하단체 전 종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중흥을 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포교원장 혜총 스님, 종무원조합 원우회 김한일 위원장을 비롯한 200여 종무원들은 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 모여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무원 모두가 새해를 맞아 마음밭 농사를 더 잘 짓기를 바란다"며 "마음에 있는 무명초를 뽑아내고 보리수를 잘 기를 수 있도록 한다면 기축년 한해도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성우 기자

조계종, 어린이법회 교재 '우리들의 부처님'

'불교입문 강의지침서'도 펴내



'어린이 집중 포교' 3년차에 접어든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이 사찰 어린이법회 고학년 교재 <우리들의 부처님>을 발간했다.

<우리들의 부처님>은 부처님일대기를 기본으로 육바라밀, <부모은중경> 등을 추가했다. 또 법회 때 어린이와 지도자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단원 뒤에는 '놀며 배우며' '익히기' 등을 실었다. 안국선원(원장 수불)과 화성 신흥사(주지 성일)의 포교 후원기금으로 제작됐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연구실장 동성)은 <불교입문 강의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신도기본교육교재 <불교입문>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강사들에게 통일적인 교육 방침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02)2011-1891 이상언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14일 신년 하례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는 1월 14일 오후 2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등 종단협 소속 26개 종단 대표와 지도자, 신도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봉축위, 부처님오신날 표어 공모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신 뜻과 의미를 알릴 수 있는 불기 2553년 부처님오신날(5월 2일) 표어를 공모한다.

표어는 10자 내외로 △고해 중생을 참다운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부처님 오신 뜻을 알리는 내용 △경제난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내용 △어린이와 청소년 불자들을 격려 하거나 포교와 관련한 내용 △동체대비의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실천하는 내용(생명존중, 생태환경, 인류평화 등) 등을 담아야 한다.

참고로, 역대 봉축표어는 '마음청정 나라청정' '가족을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같이'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어린이마음 부처님마음'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등이 있다.

마감은 1월 20일, 당선작에는 상금 30만원이 수여된다. (02)2011-1744, kang@buddhism.or.kr

김성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09년 1월 1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09년 3월 2일 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범패 · 작법무 -
불교예술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모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교육
◇원서교부 : 2009년 1월 10일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개 강 : 2009년 3월 5일 목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mgnet.net 전화 02)969-2410/969-4981 / 팩스 02)964-2433

“절 통장에 도장 받고 새해 소원 이뤄요”

대구 동화사 약사여래 12만배 기도 입재





동화사는 새해를 맞아 약사여래 12대원 성취를 위한 12만배 기도정진을 입재 했다. 사진은 통일약사여래대불 앞(좌), 약사전(우)에서 기도 정진하는 불자들.

2009년 새해 첫 날 아침,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 약사전은 700여 사부대중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일부 불자들은 법당 밖에서 기도를 시작하기도 했다.

경제 한파만큼 매서운 영하의 날씨 속에 이렇듯 동화사가 북적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경제한파 등으로 어려운 작금의 상황을 수행으로 극복하기 위한 사부대중의 염원 때문이다. 자리를 잡지 못하고 법당 밖에서 합장하고 있는 신도나 법당 안 신도 모두 한파를 이긴 뜨거운 신심은 너와 나는 물론 법당 안팎의 경계도 없이 용맹정진으로 한마음이다.

“나무 동방만월세계 십이상원 약사유리광여래불 약사여래불 약사여래불….”

금당선원, 내원암선원 등에서 스님 99명이 동안거 정진 중인 조용한 산사에 약사여래불의 명호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약사여래 12만배 기도의 시작을 알리는 약사정근과 약사다라니는 새해 원단의 햇살 아래 만물을 법음으로 휘감는 듯하다.

동화사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약사여래 12대원 12만배 120일 기도’를 개최해 1월 1일 입재식을 봉행했다. 창선 스님의 집전과 함께 500배 정근으로 시작한 법회는 찬불가, 보현행원 봉송, 발원문 봉독, 천도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허운 스님은 입재 법문에서 “팔공산은 약사신앙의 발원지로, 약사여래 부처님은 마음과 육신의 모든 병을 없애준다”며 “절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어려울 때가 공부 기회라는 생각으로 무엇이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발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 “우리는 현재 나누지 않아서 부족하고 불행한 것”이라며 “지나친 소유에서 벗어나 집착을 버리고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유리광)여래는 중생들의 질병 제거에 대한 원력과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12대원을 세운 공덕으로 부처가 됐다고 전해진다. 동화사는 혼란을 극복하고자 성행했던 약사신앙의 발원지인 팔공산에 위치한 사찰로, 1992년 통일약사여래석조대불 불사 후 약사신앙의 중심 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이 날 법회에서 1000배를 회향하며 12만배의 문을 연 박유희(60 · 법명 희지수)씨는 “가족의 건강이나 경제 · 환경문제는 나 혼자만 잘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약사여래 기도를 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발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영가천도기도를 겸해 기도에 참가하게 됐다는 장금자(53 · 법명 성불심)씨도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도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가족들의 소원이 성취됐으면 좋겠다”고 발원했다.

기도 참가자들은 4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500배씩 정진하고, 하루 1000배 회향 마다 ‘절 통장’에 도장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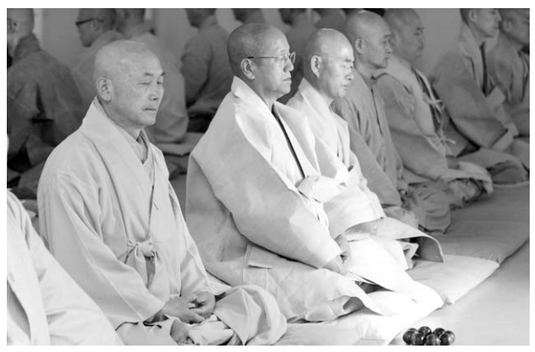
동화사는 참가자들이 보다 힘차게 정진할 수 있도록 1만배를 회향하면 소정의 선물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1만배를 회향하는 매 10일마다 각 띠별 축원 및 천도재를 봉행하고, 큰스님의 법문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 태원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지안 스님(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성우 스님(대구 파계사 주지), 무비 스님(조계종 前 교육원장), 성문 스님(동화사 회주), 지환 스님(조계종 기본선원장), 종범 스님(중앙승가대학교 총장) 등을 초청해 법문한다.

원단 아침 팔공산 기슭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약사여래 정근 소리가 우리 가슴에 올 봄날을 앞당기고 있다.

김진성 기자 ·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화사의 변화 ‘신바람’

수행과 포교, 약사신앙의 중심



2008년 5월 금당선원 하안거 정진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는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청도 · 성주 · 칠곡 · 달성군 등에 산재한 90여 사찰을 아우르는 대불찰로 대구시 팔공산의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일찍이 약사신앙의 중심도량으로 자리 잡아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동화사가 2009년을 맞아 새로운 발돋움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수행, 약사신앙의 중심지

동화사는 금당선원, 내원암 · 양진암 · 부도암선원 등을 갖춘 수행도량이다. 특히 향곡 선사의 법을 이은 조실 진제 스님의 ‘전통과 현재를 잘 융합한 수행’에 대한 원력은 많은 출 · 재가 수행자를 이끌고 있다. 금당선원에서 31명의 수좌스님들이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하는 등 현재 동화사 산내암자에는 99명의 조계종 스님이 동안거 결제중이다.

동화사는 또 1992년 높이 33m, 둘레 16.5m의 통일약사여래석조대불을 봉안, 대불 안에 부처님 진신사리 2과를 모신 후 약사여래 신앙 중심지의 면모를 구축했다. 동화사는 현재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약사다라니 철야정진 법회를 봉행하고 있으며, ‘약사여래 12만배 기도’를 대표적인 법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다.

#동아시아 10대 명소 선정 계기로 포교에 진력

동화사는 2008년 제5회 동아시아 국제관광박람회에서 ‘동아시아 10대 명소’로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사찰 주변 옛길을 복원하고 편의시설 개 · 보수 등을 통해 지역시민 · 관광객의 휴식처로 탈바꿈해 진정한 명소로 자리매김, 포교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전문가를 초청해 취업설명회나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코너 등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찰홈페이지를 보다 쉽고 대중적인 모습으로 개편해 사부대중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계기로 초조대장경 복원 등 국제화

대구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선정됐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전 세계 211개국이 참가하고 연인원 60억 명의 시청자를 자랑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로, 단일 대회로는 월드컵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동화사는 이에 발맞춰 국제적인 도량으로 발전할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국과 일본의 약사신앙 사찰과 교류하는 한편, 한 · 중 · 일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해 아시아 지역 불자들의 시선을 모을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해설사 확충 등도 계획 중이다. 또 2011년 소실 1000년을 맞는 초조대장경을 복원해 국제적 문화재를 되살리는 것도 발원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인터뷰-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지역시민 휴식처로 거듭날 것”

약사여래 12대원 성취발원 … 지역민과 상생모색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공황사태를 맞고 있는 요즘 고통을 함께 극복하고자 12만배 기도를 마련했습니다.”

1월 1일 ‘약사여래 12대원 12만배 120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한 대구 동화사 허운 스님은 이와 같이 법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허운 스님은 “약사여래의 12대원은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아픔의 극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이 종교 · 지역 · 신분 간 갈등이 다분한 혼란스러운 상황인 만큼 정신적 귀의처로서 약사여래 신앙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앞으로 약사여래 기도를 동화사의 대표적인 법회 · 기도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는 매주 둘째 주 토요일 봉행되는 약사다라니 철야정진과 함께 불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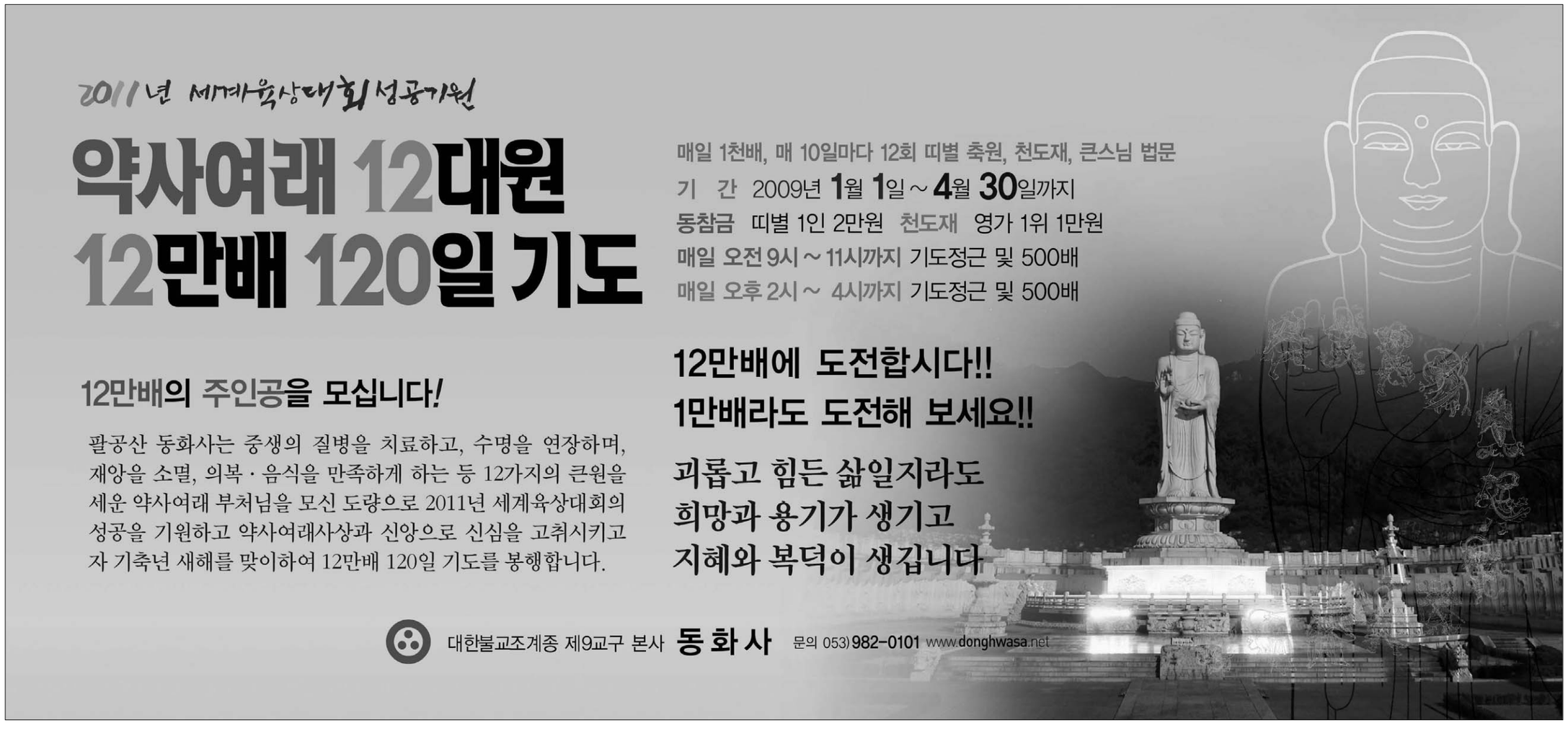
동화사는 이외에도 2009년을 시작으로 지역사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허운 스님은 “개산대제나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기간 동안 대구 약령시, 지역 의료계 등과 연계해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료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취업설명회, 사진 · 그림 전시회, 작은음악회 등 지역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해 첫날, 약사정근의 힘찬 법음으로 문을 연 동화사가 더욱 눈길을 끄는 이유다.

2006년 동화사 주지 소임을 맡은 허운 스님은 동화사 교무국장, 보림사 · 은적사 주지,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 12월 대구불교방송 제4대 사장에 취임해 지역 · 방송포교에 진력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빚었던 삶 참회합니다"

6 생활 속의 다라니수행

BBS 신묘장구대다라니 선상법회

"새해 아침 동 · 서 · 남해상에서는 4m의 높은 파고가 일 예상으로 전해상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육지에서는 강원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밝은 새해를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일기예보가 거친 풍랑을 예고하는 가운데를 지나는 한 선박에서는 넘실대는 삼각파도보다 더 높은 다라니 독송소리가 파도소리를 덮고 있었다. 'BBS불교방송 새해맞이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선상법회'가 구랍 31일부터 1월 2일까지 2박3일동안 열렸다.

해상왕 장보고가 세운 중국 석도 적산법화원 순례와 새해맞이 선상법회를 겸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BBS 행복한 미소'를 진행하는 성전 스님을 비롯해 성관 · 해각 · 화담 · 지성 스님 등과 서울 대각정사 신도 및 일반불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알약 바로기제 새바라야 모지사다바야…."

풍랑주의보 속 흔들리는 여객선 안에서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의 오묘한 진리를 담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암송하며 선상에서 새해 첫 아침을 맞이했다. 불편한 잠자리도, 파도에 의한 배멀미도 뜨거운 불심을 식힐 순 없었다. 되뇌여지는 다라니 가피력에 기대고자 하는 타력수행도 그 것을 위한 기도정진의 자력수행도 함께 녹아있었다.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이 불자들의 마음에 깃든 것일까? 울렁이는 고통의 바다와 거친 바람에도 참가자들은 선상으로 나와 해념이를 보내며 한결같은 정진으로 극복하는 것을 다짐했다.

"부처님 바다 한 가운데 서서 두 손을 모읍니다. 한번 밖에 없는 시간을 떠나보내며 올 한해 우리들 삶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바다에 서서 바다의 의미에 우리들의 삶을 비추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빚었던 모습을 반성하며 발원합니다."

성전 스님의 발원문 낭독아래 참석한 불자들은 합장한 손을 더욱 굳게 모았다. 불자들의 염원이 모여서일까. 배 위에 따듯한 눈이 내려 차가운 바람을 멈추게 했다.

이튿날 아침 높았던 파도는 잠잠해 졌다. <천수경>에서 고해(苦海)의 중생을 구하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처럼 검은 바다와 자욱한 구름 사이로 새해 새 아침 여명이 살포시 비쳐졌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각자의 소원이 담긴 풍선을 바다위로 띄어 보냈다. 빨갛고 파란 풍선은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물처럼 불자들의 원을 담아 높게 날아갔다.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 저 멀리 서토(西土)가 눈에 들어왔다. 마음이 편한 곳. 바로 그곳이 서방정토랴. 지는 해를 따라오며 뜨는 해를 맞이한 불자들은 한시름 놓는다.

"흔들리는 배에서 땅에 내리니 마치 여기가 극락 같네요."

멀리 지방에서 찾아온 박경진 불자(64)의 얼굴은 아미타불의 상호다.

해상왕 장보고가 세운 적산법화원은 신년 축원행사를 하는 중국 불자들로 북적였다. 적색의 가람 속에 여러겹 감긴 빨간 축원전은 다시 비상을 준비하는 중국불교를 느끼게 했다. 108 계단을 올라간 삼불대전에서 일행을 반갑게 맞은 적산 법화원 주지 창휘(常慧) 스님은 "기축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건강과 신심이 모두 돈독해지는 한해가 되십시오"라며 축원했다.

중국에서 맞는 법회에 신도들은 향을 피우며 정성을 다한다. 먼 뱃길에 힘들만도 하지만 일배 일배 쏟는 원력이 대단하다.

귀국행 선상에서 펼쳐진 회향마당은 모두가 어울리는 말 그대로 야단법석이었다.

"일! 일일이 따지지 말고, 이! 이것저것 시비하지 말고 삼! 삼시세끼 밥챙겨먹고,… 열!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하면 올 한 해 무탈할겨."

하나에서 열까지 나열하며 법문하는 현장 스님의 재치에 모두가 큰 웃음을 터뜨린다. 스님들의 법문에 이어 신도들의 음성공양이 이어지며 배는 밝은 태양 아래 인천항으로 회향했다.

#주력 수행으로 불황 파고 넘어

불교는 수행의 종교로 수행중심에 자력적(自力的) 구도(救道)와 타력적(他力的) 구제(救濟)원리의 조화를 함께 추구하는 종교다.

현재 한국불교에는 근기에 맞게 참선, 간경, 염불, 발원, 참회, 예불, 사경, 지계 등 다양한 수행법이 있다.

이중 다라니 수행은 원어 그대로 주문을 염 · 독송하는 수행법이다. 다라니(總持)라는 명칭은 한 문단 이상으로 된 주문을 칭하며 한 문장 · 단어의 주문은 만트라(眞言, 呪)다. 주력수행은 대부분 그대로 음사(音寫)해 진행하는데 그 이유는 번역으로 인한 의미제한을 방지하고 본래 고유의 신비성을 간직하기 위해서다.

대승 모든 경전들도 중간이나 결말에 다라니를 곁들이고 있다. 신역을 한 현장 스님은 오종불번(五種不飜)으로 그 오묘한 뜻을 잃는 것을 막았다. <반야심경>을 보더라도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로 그 의미를 지키고 있으며, <법화경> <화엄경> 등에서도 다라니는 수없이 등장한다.



다라니는 해석할 필요없이 암송하면 되는 것이 장점이다. 별다른 학식없이도 법기(法器)에 따라 삼매를 체험할 수 있다. 힘든 세파에 불법에 기대고자 하는 대중들이 쉽게 접할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라니 음성 속 '공'의 이치인 소리의 생성 · 소멸과 계속되는 리듬에 '연기'의 법칙을 느끼게 된다.

근현대에 들어와 한국불교에서 주로 유행했던 주력수행법은 천수다라니(신묘장구대다라니)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수월 스님과 용성 스님의 일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월(水月) 스님(1855~1928)은 경허 스님으로부터 천수다라니를 일생 동안의 수행방편으로 삼을 것을 지도 받고 식음을 전폐하고 '대비심다라니' 외워 염암산 천장암을 방광(放光)으로 뒤덮었다는 일화를 남긴다.

> "일! 일일이 따지지 말고, 이! 이것저것 시비하지 말고 … 열! 열심히 정진 수행하면 올 한 해 무탈할겨!"

수월 스님은 평생 천수다라니의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신비한 일화를 여러 번 남기고 있다. 이러한 일화는 현대까지 매우 대중적인 수행법으로 자리잡은 천수다라니 독송이 어떻게 인식돼 왔는지를 보여준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담고 있는 <천수경>도 그 인식의 위상을 잘보여 준다. 관세음보살의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자비심(慈悲心)과 위신력(威神力)을 담은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정식명칭은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로 줄여서 '천수다라니'라고 불린다.

치열한 정진 끝에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의상 대사는 백화도량발원문(百花道場發願文)에서 "나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관음대성을 지극히 받들어 섬깁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관세음보살 대비신주를 외우고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며 다함께 관세음보살님의 원통삼매에 들게 되기를 원합니다"는 내용을 남겼다.

#"신묘장구대다라니로 업장 녹이세요"

BBS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을 4년째 진두지휘하고 있는 BBS포교사업팀 안병록 국장은 "단순한 성지순례에서 벗어나,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으로 불자들이 신행활동에 환희심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다"며 "불자들이 느끼는 수행에 대한 갈증을 다라니 정근을 통해 풀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2005년 4월 첫 철야정진을 시작으로 매월 전국 명찰 산림을 누빈 BBS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은 매회 300명을 상회하는 불자들이 운집할 정도로 성황이다. 생전예수재와 태장영가, 일체조상 천도재, 신묘장구대다라니 사경, 이운 및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정진 등이 봉행돼 수행뿐만 아니라 재례까지 지낼 수 있다. 제56차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은 2월 14일 3대 기도도량 중 하나인 낙산사 홍련암에서 진행되며, 2월 5~11일 앙코르와트 아유타야 해외성지순례, 2월 19~24일 미얀마 성지순례도 진행될 예정이다.(02)705-5308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중국 위엔TV 등이 BBS 신묘장구대다라니 성지순례단을 인터뷰했다. 왼쪽부터 해각 스님, 안병록 국장, 성관 스님, 진호 스님.



높은 파도로 흔들리는 배에서도 다라니 수행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불자들의 마음은 부동(不動)이다.



"불자 여러분! 기축년 새해 수행정진으로 하시는 모든 일 잘되시길 바랍니다."



불자들 각자의 소원을 담은 풍선이 새해 첫 태양을 향해 힘차게 떠오르고 있다.

광고는 민족사 필름입니다~ ^^

“건강한 생각으로 살면 건강해요”

생명나눔실천본부 동대 일산병원에 치료지원금 전달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월 6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원장 이진호)에서 새해맞이 특별환자 치료비 지원금 2400여 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소식지를 통해 소개된 김영태씨, BBS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에 방송된 김대영씨 등 8명의 환자에게 총 2400여 만원의 치료지원금이 전달됐다.

특히 김대영씨는 2008년 10월 20일 ‘논현동 고시원 방화사건’의 피해자로 불교방송에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된 후 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이어져 1300여 만원의 치료지원금을 받았다.

전달식에서 일면 스님은 “병환으로 생사를 넘나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돈, 권력,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건강한 생각으로 살면 건강할 것”이라며 염주를 직접 채워주고 독려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월 6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환자 8명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뒷줄 왼쪽 다섯 번째는 일면 스님, 일곱 번째는 이진호 원장.

이에 앞서 동국대 일산병원 이진호 원장은 “적지 않은 의료비에 환자와 가족들이 힘들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부처님께 전해져서 종단에서 많은 이들이 도와줬다”며 “추운 날씨만큼 경제한파로 힘들겠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건강하게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모금된 지원금은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걷기대회와 생명나눔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적립된 기금으로 마련됐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등 불교계 복지 저변 확대 나서

조계종 인력 양성, 천태종 아동, 진각종 노인, 총지종 재가복지 강화

각 종단 복지재단은 2009년 새해를 맞아 불교복지의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지관)은 △장애인 · 지역 · 아동 청소년 · 가정복지 관련 시설 운영지원 관리 등 종단 지원체계 정비 △불교복지 정체성에 입각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시설운영 안정화 도모 △자원봉사 및 후원사업 참여의 다양화 유도 △불교복지 중 · 장기도약을 위한 핵심인력 양성 등을 주요목표로 적극적인 복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계종 복지재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극복사업, 몽골 드림센터를 통한 국제개발구호활동, 의지나눔 Sharewill 캠프 등에 힘을 모으고 복지 사각지대 및 소외계층 지원과 불교복지인력양성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특히 ‘아름다운 동행’ 모금과 지원을 활성화해 ‘저소득 실직가정을 위한 희망 행복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포교와 복지진흥 통합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천태종 복지재단(이사장 정산)은 △지역아동센터 설립 및 지원 △7대 주요 도시에 산하복지기관 확대 △전체 복지기관 대상 공모 지원 사업 시행 △10주년 기념사업 △춘천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사업 성과계승 발전 △제3세계 지원을 위한 토대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소득빈곤가정 아동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전국 30개소에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등 직영 지역아동센터 설립 및 지원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천태종 복지재단 윤금선 후원홍보팀장은 “아동복지와 관련해 불교계의 대응이 많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해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 기존 노인복지 사업을 특성 · 전문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각복지재단(이사장 회정)은 ‘이웃과 사회를 위한 더 큰 회향’을 2009년 복지 사업지표로 내걸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전망이다.

△지역복지의 균형발전 △진각혜민서 개원 △만월회 후원활동 활성화 △종사자 복지의 강화가 4대 주요 사업으로 진행된다. 조경희 문화복지팀장은 “120명 정원의 노인요양시설인 진각혜민서가 개원되면 진각복지재단의 중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올해 중점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매월 만원씩 후원하는 후원 결사 운동인 만월회는 만월회원 배가운동 활성화로 5천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대표 황윤식)은 재가복지사업과 노인요양시설 및 여성 쉼터설립에 중점을 두고 주력할 방침이다. 재단관계자는 “올해 초 역삼동에 여성 쉼터를 설립할 예정이며, 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해 생활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수행생활과 더불어 노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불교환경NGO 활동가들 새해 발심정진

김포 용화사서 1월 15~16일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를 비롯한 불교환경NGO 활동가들은 1월 15~16일 1박2일간 김포 용화사(주지 지관)에서 발심정진에 들어간다.

이번 정진은 최근 경인운하 재개 등으로 위기에 처한 환경문제를 다시금 불자들에게 주지시키고, 불교적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단순하고, 소박하고, 느리게’ ‘가장 불교적인, 가장 환경적인’ ‘따로 또 같이’ 라는 3대 모토로 진행된다. 유정길 前 에코붓다 대표의 ‘불교환경운동의 역할과 방향’, 참여불교재가연대 이영철 사무총장의 ‘회원관리 및 회원확대 방안’ 강좌가 열리며, 불교환경연대 2008년 사업보고 및 2009년 계획안도 발표된다.

불교환경연대는 “경인 운하는 공공사업으로 착공되고, 대운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재추진되고 있다. 환경 · 생태위기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었다. 말과 명분만 있고 삶과 실천은 없는 시대에 불교적 사유 안에서 깨닫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길을 잃은 사람들은 누구나 오셔도 좋다”며 불자들의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031)984-1020

노덕현 기자

“좋은 집은 사람 향기나는 집”

진흥원, 저자와 함께 하는 ‘열린강좌’

불교계 최초로 책 저자를 만나 그 뒷이야기를 듣는 문화마당이 열려 화제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1월 6일 마포 다보빌딩 다보원에서 ‘화요 열린강좌-저자와 함께하는 책, 그 너머 이야기’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문화포교를 기치로 건 진흥원이 불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책 저자를 초청해 직접 강연을 듣는 독서마당이다.

첫 번째 강좌는 <사람 건축 도시> 저자 정기용 교수(성균관대 석좌교수)가 ‘집’을 주제로 강연했다. 교계 처음으로 시도되는 저자와의 만남에 60여 불자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표했다.

이날 강좌에서 정 교수는 “‘좋은 집’이란 삶의 흔적이 누적돼 사람의 향기가 배어 나오는 집”이라며 집을 소유의 물질로만 보는 대중사고에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1월 6일 마포 다보빌딩 다보원에서 열린 저자와 함께 하는 열린 강좌.

생태건축의 대가인 정기용 교수는 ‘기적의 어린이 도서관’ ‘무주 공공건축 프로젝트’ 등을 진행한 바 있고 현재 문화연대 공동대표도 역임하고 있다.

한편, 대한불교진흥원은 1월 20일 <모형 속을 걷다>의 저자 이일훈 건축가를 초청 두 번째 강좌를 개최한다. 회비 월 1만원. (02)719-2606

노덕현 기자

운문사 대중공양

참여불교재가연대서

참여불교재가연대(대표 박동건)는 1월 17일 청도 운문사에서 새해를 여는 첫 대중공양 행사를 봉행한다.

보시와 실천의 신행문화, 재가자들의 청정승가 외호운동을 확산하고, 재가연대 회원 및 마이리더스클럽 동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는 운문사 사리암 등반 및 나반존자상 참배가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총 40명으로 참가비는 10만원이다.(자가용 이용회원 5만원).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는 매월 첫 번째 화요일 리더스포럼으로 불교명사 초청강연을 펼치고 있다. 2월 3일에는 유홍준 교수의 ‘한국불교문화의 과거 · 현재 · 미래’가 진행된다. (02)2278-3417

노덕현 기자

신행게시판

● **‘진경 스님 선정과 지혜명상’ 강좌=**전국비구니회관은 1월 17일, 2월 14일 오후 5시 ~ 7시 회관 내 법룡사에서 ‘진경 스님의 선정과 지혜명상’ 무료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깊이 있는 선정, 통찰지혜 수행을 원하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02)3411-8103

● **미얀마 성지순례=**한국위빠사나선원은 2월 11~28일 미얀마 성지순례 및 단기 집중수행 수련회를 개최한다. 10일간 미얀마 성지를 순례한 후 1주일 동안 양곤에 있는 마하시 선원에서 집중수행을 진행한다. 신청마감은 1월 20일까지며 동참금은 300만원이다. 16명 선착순 접수. (02)512-5255

● **‘보리도차제광론’ ‘선설의 핵심’ 강독=**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4층에서 티베트 고승 쫑카파 대사의 논서 <보리도차제광론>과 <선설의 핵심: 요의(了義)와 미료(未了)의 구분>을 강독한다. 강독은 텐진 남파 스님이 지도한다. (019)528-3665

● **‘붓다의 호흡명상’ 일일 집중 수련법회=**수행공동체 제따와나는 서울 아모마 요가아카데미에서 1월 18일 ‘붓다의 호흡명상’ 일일 집중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일묵 스님은 초보자를 위한 안내법문과 수행 인터뷰를 진행한다. 참가비는 2만원 (070)8267-0108

● **기초 명상관법연수회=**한국명상치료학회는 1월 31일~2월 1일 서울 명상상담연구원에서 기초 영상관법연수회를 실시한다. 인경스님이 호흡 명상, 몸느낌 관찰, 염지관(念止觀) 명상치료를 지도한다. 동참금은 20만원으로 교재와 식사비 포함이며 선착순 12명 접수가능하다. (02)2236-5306

大韓佛敎 曹 洞 宗 任員公告

宗 正：智明. 德瓚　　僧正院長：恒帝. 德周

總務院長：大隱. 德牛　中央監察院長：德性. 行性　中央宗會議長：海倫. 行峰

中央敎育院長：光 慧	忠北宗務院長：日 長	僧正委員：圓 峰	監察部長：慧 明
中央護法院長：慧 泉	忠南宗務院長：法 空	僧正委員：法 空	布敎部長：素 圓
中央布敎院長：優 潭	嶺東宗務院長：慧 空	僧正委員：慧 空	文化部長：月 峰
禪 院 長：眞 一	慶南西宗務院長：法 光	僧正委員：淸 潭	總務局長：惺 云
中央律院長：雲 潭	慶南中宗務院長：慧 山	副 院 長：眞 法	敎務局長：月 光
中央宗會副議長：雲 性	嶺南宗務院長：淸 潭	總務部長：古 牛	財務局長：淸 淨
中央宗會副議長：知 遠	慶北宗務院長：雲 鶴	財務部長：法 蓮	社會局長：圓 光
서울宗務院長：	南海宗務院長：淸 雲	敎務部長：海 權	糾正局長：松 潭
京畿宗務院長：法 空	釜山宗務院長：道 一	糾正部長：道 弘	文化局長：平 潭
江原宗務院長：慧 覺	僧正副院長：心 明	社會部長：慧 山	監察局長：道 賢

불기 2553년(2009년) 1월



마음에 대한 여러 해석이 다양한 수행체계 원인

고영섭 교수 '문학 · 사학 · 철학' 15호에 '마음 고찰' 발표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一切唯心造)'고 한다. 마음이란 무엇일까? '나'라고 여기기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불리는 등 여러 가지로 이해되는 마음을 두고 종교와 철학은 수많은 이론을 풀어냈다. 최근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음은 뇌의 어떤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뇌가 없으면 의식도 없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단백질로 구성된 뇌에 전기적 소통작용의 결과가 마음이라 하기에는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하다.

유식불교에서는 '인식이 바뀐 후에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轉識得智)'고 말한다. 미혹의 윤회를 벗어나 깨침의 증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살피는 일은 필요하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고영섭 교수(동국대)는 인문학계간지 <문학 · 사학 · 철학> 제15호에 '마음에 대한 고찰'을 발표해 이 같은 궁금증에 대한 불교적 이해를 구해 눈길을 끌었다.

불교에서는 인식의 기반을 심 · 의 · 식으로 설명한다. 심의식은 각각 제8식 아뢰야식(저장의식)과 제7식 말라식(사량의식), 제6식 요별경식(분별의식)으로 설명된다.

범어로 마음은 떨어져 있는 대상을 사고하는 주체와 작용을 가리키는 찌따(citta)와 사고작용을 갖추지 않은 마음을 뜻하는 흐리다야(hrdaya)의 두가지 어원을 갖는다. 고 교수는 "인도인들은 마음을 심리작용의 주체로서 심왕법(心王法, 세계를 왕과 같이 지배 · 통솔하는 존재)과 심장 혹은 염통과 같이 작용을 갖추지 않은 마음으로 나눴다"면서 "마음을 두 언어로 표현한 인도문화의 정신적 경향과 이들 모두를 '마음'이라 표현한 중국문화의 '즉물적 성격'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근본불교에서 마음은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의 오온을 내용으로 했다. 고영섭 교수는 "초기경전에서는 수행과 해탈에 장애되는 번뇌가 마음에 유입돼 온다고 설했다"며 "번뇌와 업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마음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노력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교수는 "불교의 다양한 수행체계는 마음의 본질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존재의 분석을 통해 윤회의 주체를 파악하려 했던 부파불교에서는 어땠을까? 고영섭 교수는 "부파불교의 마음에 대한 담론도 번뇌설과 함께 이뤄졌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특히 번뇌가 마음을 오염시키는 심리적 요소로 확고하게 자리잡았다"며 "번뇌는 수면(隨眠)의 개념으로 마음을 괴롭히거나 오염시키는 여러 심리적 요소 가운데 상위개념으로 이해됐다"고 설명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음을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이라 했다. 대승불교에 이르러 마음은 "미혹한 현실세계는 오직 마음의 소산일 뿐, 마음 바깥에는 어떠한 존재도 없다(三界唯一心 心外無別法)"는 화엄교설 등으로 접목됐다. 고영섭 교수는 "식(識)사상이 곧 심(心)사상으로 전개됐다"면서 "일심(一心) 사상은 중국 선승들에게 수용돼 실천적으로는 무심(無心)의 사상으로 깊어졌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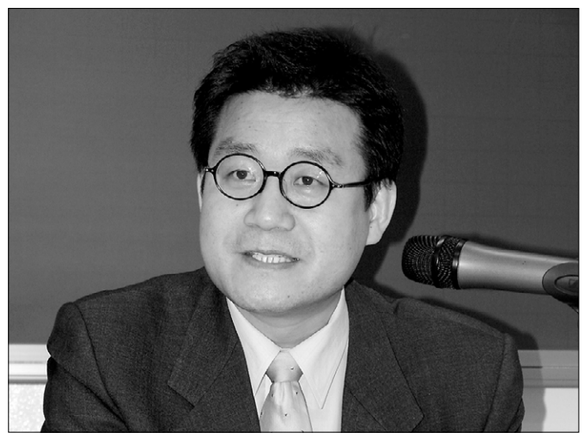
<반야경> 중심의 삼론종에서는 마음을 중도(中道)에 대응시켰고, 천태종에서는 마음을 공가중(空假中) 삼제(三諦)의 중체(中諦)에 상응시켰다. 열반종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一切衆生 悉有佛性)"고 하고, 화엄종은 "삼계는 모두 허망하며 다만 일심이 만들어낸다"는 구절에 집중해 유심과(唯心)와 일심(一心)을 강조했다.

고영섭 교수는 "마음을 일정한 대상과 결부시켜 마음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몰아적인 명지(明知)를 얻는 인도의 명상법을 중국불교 초기 수행자들 역시 수용했다"고 말했다.

달마 이후 중국 선종은 마음의 집착을 떠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고 교수는 "무심(無心)은 마음에 대한 망상과 집착을 부정하지만 마음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선종이 내세우는 삼처전심(三處傳心)은 물론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즉심시불(卽心是佛) 등에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고승들 역시 마음을 중요시했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일심 개념을 새롭게 변용시켰다. 고영섭 교수는 "원효는 갈라진 주장들을 하나로 모아 일심으로 회통시켰다"며 "원효의 사상적 바탕인 일심은 부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자 넓은 마음이며, 대비심의 구체적 표현"이라 말했다.

지눌도 <수심결>에서 "마음을 닦는 수행자는 먼저 조사의 도로써 자기 마음[自心]의 본래 묘함[本妙]을 알아 문자에 구애되지 말아야 한다"고 해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임을 강조했다. 원효의 일심(一心), 지눌의 진심(眞心), 혜심의 무심(無心)에 이어 태고는 자심(自心)을 내세웠다. 나옹의 "쓸 마음이 없다(無心可用)"는 말이나, 휴정의 일물(一物)도 무심의 변용이었다.



고영섭 교수(동국대)는 <문학 · 사학 · 철학> 제15호에서 '마음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불교에서의 마음에 대해 논했다.



근대 한국불교의 중흥조 경허 역시 '마음의 근원을 비추어 안다(照了心源)' 거나 '마음의 근원을 돌이켜 비춘다(返照心源)'라고 해 조심(照心)을 강조했다. 고영섭 교수는 "조심은 비추는 마음이기도 하고 마음을 비추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라 설명했다.

고 교수는 "용성은 마음을 깨달음(覺)으로 변용했고, 만해는 유심(惟心)을 성철은 돈심(頓心)을 강조했다"며 "한국의 유수한 불교사상가들은 '마음'을 자기화해 촘촘한 사상적 지형도를 그려냈다"고 주장했다. (02)2260-3583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인도철학회 '인도철학' 학진 등재학술지로



인도철학회(회장 법산)가 발행하는 <인도철학>(사진)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우제창, 이하 학진)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구랍 30일 발표된 학진의 2008년 학술지평가 결과에 따르면, <인도철학>이 등재학술지로 승격된 것을 비롯해 한국정토학회(회장 태원)의 <정토학연구>가 등재후보학술지로 신규 선정됐다. 등재후보학술지였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의 <불교학보>와 한국선학회(회장 김영두)의 <한국선학>이 각각 등재후보 1차 심사를 통과, 등재학술지 선정을 위해서는 2009년 2차 심사만을 남겼다.

<인도철학>의 신규 등재로 불교학계에는 <보조사상> <불교학연구> <한국불교학> <강좌미술사>와 함께 등재학술지가 5개로 늘어났다.

조동섭 기자

천태사교의 강좌

선교경전연구회

선교경전연구회(회장 법경)는 세명 스님(천태학 박사)을 강사로 초빙해 1월 15일부터 천태사교의 강좌를 개강한다.

6개월 과정의 강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3~6시 열린다. 비구 · 비구니와 불교대학 이상을 졸업한 재가자는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수강료 25만원. (02)735-1053

조동섭 기자

건축불사 준비부터 완공까지

조계종 문화부 '건축불사 Q&A' 발간

불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공사 중에 문화재라도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과 법회활동을 위한 공간을 짓고 수리하는 건축불사 과정에서 생길 애로사항과 궁금증들에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조계종 문화부(부장 수경)는 1월 6일 <건축불사 Q&A>를 발간했다. 책은 건축불사의 준비단계, 진행단계 그리고 불사이후 준공 및 관리하는 방안에 이르기까지 건축불사 순서에 맞춰 관계법령과 행정절차 등을 수록했다.

특히 건축불사 시행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질문과 응답형식으로 정리해 누구나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이분희 행정관은 "본 책자는 사찰의 건축불사 현장에서 하나의 안내서와 같은 지침 역할을 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불사를 지양하고, 사찰문화 창조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2)2011-1771



조동섭 기자

"보광사 관음상 복장전적 밀교사상 보여"

서병패 문화재전문위원 주장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전적(보물 제1521호)은 13세기 전반의 인쇄사와 밀교사상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지질 및 판각술은 고려인쇄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패 문화재전문위원(문화재청)은 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위원장 수경)가 최근 발간한 <성보> 제10호에서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전적 연구'를 발표했다.

보광사 목조관음좌상 복장유물은 문화재청(청장 이건무)과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범하)가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위해 2007년 5월 경북 서부지역 조사 시 발견됐다.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전적류 9종 193점을 소개한 서병패 위원은 "<보협인다라니경>은 1007년 총지사판으로 판각된 상태로 인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병패 위원은 "<범서총지집>은 1150년 평양 광제포에서 사원 선사가 교정해 개판한 기록이 있다"며 "서지학, 다라니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성보> 제10호에는 안병찬 교수(경주대)의 '단청 뇌록가칠 안료의 특성과 색상재현 연구'와 최태선 교수(중앙승가대) · 이인숙 연구원(국립문화재연구소)의 '기와를 통해 본 낙산사의 변천과정', 오출세 교수(동국대)의 '불전사물의 시세계 고찰' 등이 게재됐다. (02)2011-1778

조동섭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9기 佛敎儀式 (범음 · 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1월 20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1월 9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7일개강

2009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4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불교학과)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 김형준(동산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박종(동산대교수) · 한보광스님(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최종석(금강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허일범(진각대교수)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박종(동산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다도학과(30명) 불교미술학과(30명) 불교한문학과(30명)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사찰음식문화학과(30명) 요가삼밀학과(2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9년 1월 1일~ 2009년 2월 6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학일시 불교학과 2009년 2월 7일(토)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개강
불교한문학과,불교다도학과,불교미술학과,불교장례문화학과,사찰음식문화학과,요가삼밀학과 : 2009년 3월 3,4,5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특전사항 : 동국대불교대학원 입학추천, 상기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일주문



대구사원주지련 성도절 기념법회

조계종 대구사원주지연합회장 법혜 스님은 구랍 27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도절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사 '선재동자의 겨울나들이'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은 1월 17~18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초등법회 '선재동자의 겨울나들이' 행사를 갖는다. (02)732-2183



도산 스님 천태종 종의회 의장 선출

대구 대성사 주지 도산 스님은 1월 4일 단양 구인사 입교법회장에서 열린 천태종 제14대 개원종회에서 종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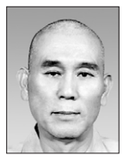
봉은사 설날 합동차례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1월 26일 오전 5시 30분~오후 4시 30분 지장전, 대웅전, 충령각 등에서 설날 합동차례를 실시한다. (02)3218-4801



응각 스님 백양사 강주 부임

응각 스님은 1월 7일 장성 백양사 강주로 부임했다.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하고 운기 스님에게 전강받은 후 수덕사 불국사 강주를 역임했다.



교정발전 공로 법무부장관 표창

현문정사 주지 현문 스님은 구랍 31일 안양교도소청사에서 김경한 법무부장관에게 교정행정 발전 공로 표창을 받았다.



한나라당불자회 지관 스님 예방

한나라당불자회 이해봉 회장은 송광호 · 정갑윤 부회장, 조문환 간사 등과 함께 1월 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한국불교아동문학회 회장

김종상 아동문학가는 1월 2일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신임회장에 취임했다. 김 회장은 한국시사랑협회 회장, 국제펜클럽 부이사장도 역임하고 있다.

인사 연합포교사 평가 수석

박무용 포교사(동산불교대학 · 사진)는 구랍 7일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회장 안동일)가 실시한 제7회 연합포교사 불교교육능력평가에서 수석 합격했다. 제7회 합격자는 총 71명으로 품수식은 3월 21~22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사회통합 · 종교차별 해소에 기여할 터"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위원장 원학 스님

"10 · 27법난은 그 시대 살았던 모든 이들의 아픔이었습니다. 지금도 피해로 고통받는 스님들과 관련자 상처 치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된 원학 스님은 "피해 및 명예회복으로 과거아픔을 딛고 사회통합과 종교차별 극복해소에 기여하겠다"며 위원회 출범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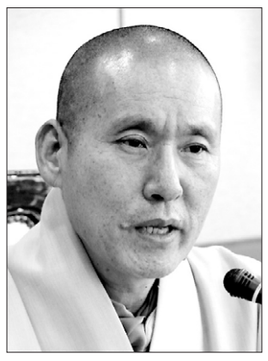
원학 스님은 "1980년 신군부는 군 · 경 3만2000명을 투입해 전국사찰 5731곳을 수색, 스님 153명을 연행해 가혹행위와 고문을 자행했다. 이로 인해 불교계는 범죄 ·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위상이 훼손돼 그 피해는 현재까지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이어 "불교계는 비단 1980년에만 법난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일제가 불교 통제를 위해 만든 사찰령의 잔재가 각종 불교규제법령으로 남아있고, 사회곳곳의 제도와 관습에서 여전히 종교편향과 차별이 엄존하고 있다"며 "28년 동안 모진 고통과 아픔에도 불법 정진해온 모든 사부대중 노고에 감사하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년 기간의 특별위원회는 △피해자 접수 · 심의 △피해자 명예회복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 △명예회복 기념행사 · 역사사료관 건립 등을 진행하게 된다.

원학 스님은 "2년이라는 한정된 위원회 활동에 비해 늦게 정부로부터 위촉 및 구성이 진행돼 1차 기간연장을 고려중"이라며 "1월 21일 용산 전쟁기념관에 실무진 및 사무실 개소를 앞두고 있다"고 위원회의 발빠른 행보를 알렸다.

원학 스님은 "10 · 27법난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던 거창, 노근리, 제주 4 · 3 등과 달리 전국에서 벌어졌다는 점과 성직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일이란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며 "대부분 스님들은 개인의 금전 보상보다 명예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고, 후세에 주지시키기 위해 역사 · 사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현 정부도 과거아픔을 치유하고 종교화합을 위해 나서야한다. 이명박 정부 수립 후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인 만큼 많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0 · 27법난에 대한 정부 대응은 1988년 강영훈 국무총리가 성명서로 국가 책임을 진정, 국민사과 한 바 있으나, 노태우 前 대통령(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임기 중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첫 심의위원회 회의에는 구랍 30일 위촉된 원학 스님, 세영 스님(조계종 사회부장), 삼보 스님(조계종 10 · 27추진위원)과 김종천 국방부 차관, 임재식 경찰청 차관, 이종정 국가보훈처 차장, 조남진 위원, 이명묵 위원이 참석했으며 회의 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해 명예회복을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포교와 전법에 진력"

대불련 제47년차 회장 이경환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법우들은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대불련 법우들을 부처님처럼 공경하겠습니다."

대불련 제47년차 회장에 선출된 이경환(25 · 충남대 선박해양공학과 · 사진)씨는 새해 초부터 활동 준비로 여념이 없었다.

이경환 회장은 "대불련 사무실이 지난해 말 전법회관으로 이전하면서 공간 문제가 해결됐다. 대불련 활동의 순조로운 출발을 예고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46년간 펼쳐온 법우들의 패기와 열정있는 포교활동을 기반으로 포교와 전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그에 따르면 대불련은 2009년 3가지 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다.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지회 지부 활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사회 각계각층에서 훌륭한 불자 지도자로서의 지도력 배양프로그램 마련 △지역 법우들의 스터디 소모임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대학 설립 · 운영 규정 개정안'에 따라 대학 캠퍼스 안에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 그는 "대학재단의 70%가량이 타종교인 상황에서 불교계에서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150개 지회의 활성화와 공간문제 해결, 3000여 법우들을 적극적으로 이끌 간사 확보, 종단 지원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 불 련 활동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이 회장은 "진정한 자아를 찾지도 못한 채 학점과 이력 쌓기에만 젊음을 투자하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알아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동원 스님·홍창원씨 '단청장'

문화재청 구랍 23일 보유자 인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구랍 23일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동원 스님(양산 통도사 사명암 · 사진 왼쪽)과 홍창원 이사장(단청연구원 · 사진 오른쪽)을 단청장 보유자(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로 인정 예고했다.

동원 스님은 前 보유자였던 故 혜각 스님의 단청 특성을 충실히 계승하고 전승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지조사차 스님을 찾았던 전문가는 "동원 스님은 현지조사 시 기량 및 작품 예술성 등 모든 면에서 완숙한 경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홍창원 이사장은 前 보유자 故 만봉 스님의 단청 기능을 전수받았다. 홍 이사장은 스승의 독특한 단청문양 요소를 충실히 계승하면서 사찰 궁궐 단청을 맡아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동원 스님과 홍창원 이사장의 단청장 보유자 인정 예고를 통해 스승의 맥을 잇고 전승체계의 안정과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법주사 다문화가정 초청법회



보은 법주사(주지 노현)는 1월 1일 다문화가정 초청법회로 새해를 시작했다. 이날 법회에는 충북 보은지역 다문화가구 170여 가구 200여 명이 참여해 새해 첫날 떡국 등 한국전통문화를 체험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대한불교조동종 신년하례법회 봉행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덕우)은 1월 5일 서울 상계동 도선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지명 스님은 "한 생각이 청정하면 그 육체가 깨끗하고 신령스럽다"며 시비 · 분별심을 버릴 것을 당부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한국불교미륵종 신년하례법회 봉행



한국불교미륵종은 1월 7일 총본산 경남 김해 관음정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신년하례회는 대종사 연화 스님, 총무원장 송정 스님, 중앙종회의장 혜월 스님 및 종도스님 120여 명이 동참했다. **영민 경남서부지사장**

한국미륵불교 신년하례법회 봉행



한국미륵불교(종정 법련)는 1월 4일 총본산 고성군 대무량사에서 종정 법련, 총무원장 송봉 스님 등과 함께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련 스님은 "교만하지도 잘난척 하지도 말고 정진할것"을 당부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광주운전자불자회 사랑의 껌 수익금 보시



광주운전자불자회(회장 이현만)는 1월 7일 '2008년 사랑의 껌' 판매수익금 50만원을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소아암 및 난치병어린이 치료에 쓰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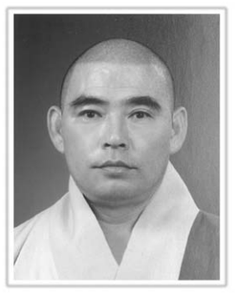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최단기간 실전교육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빙의(귀신병) 퇴마,최면? 100% 전수 - 치유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비염, 발기부전 특효 ●임산부 무통분만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HTTP://WWW.JIJANGSA24.ORG
지 장 사 현오 합장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목,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숙식가능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 ‘千의 바람이 되어’ 달려가요”

‘주부가요열창’의 스타 … 찬불가수로 활동
혹독한 병고 지극한 기도로 극복, 나눔실천

혜성처럼 나타나 찬불가로 사람들의 가슴을 환희와 감동으로 채워주었던 그녀는 우리들로부터 혜성처럼 사라졌다. 세월 속에 잊혀지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그녀는 제3집 앨범 ‘천의 바람이 되어’를 들고 우리 앞에 나타났다. 참으로 반가웠다.

이십년의 세월이 넘었건만 변해림씨에게는 ‘주부가요열창 최초 3연승’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다닌다. 1988년 MBC ‘주부가요열창’ 프로그램에서 최초로 3연승을 하였는가 하면 그해 12월 ‘주부가요열창’ 제1회 연말대상을 수상했다. 노래방도 없었던 시절인지라 그 당시 ‘주부가요열창’ 프로그램은 인기 절정이었고, 제1회 연말대상을 받은 변해림씨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한가를 쳤다.

“1986년 남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24세 청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동생의 죽음이 너무도 가슴 아파 그날부터 남편과 함께 1년 동안 <천수경>을 지극하게 모시면서 예불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예불을 올리면서 참으로 많이 울었어요.”

변해림씨는 지금 생각하니 그 때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 한 덕에 부처님께서 ‘찬불공양’의 기회를 주신 것 같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주부가요열창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도, 또 가수로 데뷔하게 된 것도 모두 부처님의 가피라고 했다. 그녀는 원래 물욕이 별로 없는지 부상으로 받은 피아노를 군법당에 보시했다. 또 외국 여행이 그리 흔하지 않던 시절인데도 부상으로 받은 유럽 여행 티켓을 반납하고 그 만큼의 액수만큼 전국 고아원과 양로원에 보시를 했다.

1989년 변해림씨는 제1집 앨범 ‘애증의 그림자’를 냈고 ‘애증의 그림자’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애창곡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것을 계기로 그녀는 불자 가수로도 활동했고, 전국의 수많은 사찰을 오가면서 음성공양을 했다. 변해림씨는 찬불가 음반 제1집 ‘육바라밀’과 제2집 ‘해탈의 기쁨’을 내면서 찬불가 가수 1호로 자리매김 했다. 그녀가 부르는 찬불가를 듣고 있으면 신심이 절로 났다. ‘육바라밀’ ‘보현행원품’ ‘해탈의 기쁨’을 듣고 있으면 환희심이 났고, ‘참회의 게송’ ‘염주’를 듣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참회의 눈물을 쏟게 한다. 음색이 풍부하면서도 절제된 그 무엇이 있어 사람을 마냥 들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이런 화려함 뒤에서 그녀는 격심한 병고를 겪었다. 그때마다 기도로써 극복했다.

“전 찬불가뿐만 아니라 기도의 공덕에 관해서도 제 체험을 바탕으로 포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전 기도의 가피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기도에 감응하는 숨은 에너지랄까 신기한 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도 전국의 산천대천을 찾아다니면서 철야기도를 하는 등 참으로 많은 기도를 했다. 정말 기도 보살이다.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움직이면 골이 앞으로 쏟아지는 듯한 격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철원의 심원사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스님께서 건네 준 약을 먹고 거짓말 같이 나아버렸다.

왜 한동안 세상에서 모습을 감추었느냐고 물었다.

“부산 MBC 방송에서 ‘변해림의 가요 크리닉’ ’변해림의 노래가 보이네요’ 등 여러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때 너무 내 몸을 혹사시켜 심장과 신장을 비롯한 몸의 많은 기관들이 망가져 버렸어요. 육신이 무한정의 에너지를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주부가요열창으로 가수라는 이름을 얻어 6년 동안 쉬지 않고 활동했다. 몸에게 휴식을 주지 않은 죄값을 혹독히 치렀다. 혹독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 “우리의 불성을 담는 그릇인데 이 그릇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그녀는 병실에서도 작은 불상과 염주를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 덕분인지 그녀는 살아났다. 그녀는 건강이 조금이라도 회복되자 또 다시 기도 정진에 들어갔다.

“3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면서 피부는 시커멓게 타들어갔고 예전의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몸을 추슬러 기도를 하고 부터는 내 안에서 생에 대한 의지가 생기데요. 기도를 하면 의식이 바뀌고, 정신세계가 바뀌고, 세포마저 바뀐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 몸은 몇 십억의 세포로 구성돼 있고 그 세포가 날마다 소멸과 생성을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내 몸의 세포들이 건강하고 좋은 세포로 바뀐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 몸 안에서 모든 세포들이 기쁨의 합창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내 마음과 육신이 바뀌는 것을 느꼈지요.”

일 년 넘게 <금강경>독송과 광명진언을 열심히 했더니 얼굴빛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점차 회복됐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온 어머니를 위해 작곡을 하는 아들이 음반을 내자고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음반이 ‘천(千)의 바람이 되어’이다. 이 음반은 ‘죽은 이가 산자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추모시’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나의 묘지 앞에서 울지 말아 주세요/ 그곳에 저는 없어요 / 자고 있지 않아요/ 천의 바람이 되어 드넓은 하늘을 날고 있을 거예요// 가을엔 빛이 되어 땅을 비추고 있고/ 겨울엔 보석처럼 반짝이는 눈이 되고/ 아침에는 새가 되어 당신을 깨우고/ 밤엔 별이 되어 당신을 바라볼거야.

변해림씨는 병상에서 ‘천의 바람이 되어’라는 시를 접했다. 내가 죽더라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천의 바람이 돼 가을엔 빛이 돼 땅을 비추어주고, 겨울엔 보석처럼 반짝이는 눈이 돼 기쁨을 주고, 아침에는 새가 돼 깨워 줄 거라고 다짐했단다.

“저는 윤회를 믿기에, 인과법을 믿기에 ‘죽음이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죽음을 너무 슬퍼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이 몸을 벗고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 새 삶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그다지 슬퍼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음반을 낸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부르면 좋겠다고 제의를 해왔다. 사람들의 요청으로 장례식장에서 ‘천의 바람이 되어’를 불러주었다. 그리고 타종교인에게도 <반야심경>의 ‘불생불멸 불구부정’을 들려주었다.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법당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교회에서 찬불가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단다. 그녀는 종교를 초월하여 이 노래를 듣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달려 갈 것이라 했다. 변해림씨는 자신의 목소리로 ‘천의 바람’이 되어 소중한 사람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삶에 대한 용기를 주겠다고 다짐했다.

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동일한의원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250-14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25-중-2672호
코막힘 한방(韓方)으로 해결!!
코 한방 (韓方)
코막힘,비염,축농증
코막힘,비염,축농증 답답하시죠?
이제 다년간의 연구와 연구성과를 거둔 죽전네거리 동일한의원에서 한방(韓方)으로 치료해 보세요!!
코가 정말 시원합니다
한의학박사 보건학박사 원장 노 동 일
전)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매주 수요일 오후 휴진)
동일한의원
50M
죽전네거리
연지카바레
어촌마을횟집
성서IC
구병원
두류네거리
☎ 053)552-8800

5대 적멸보궁 십보일배로 순례

부산 불광사 보광 스님 대장정 올라

부산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은 1월1일 오전 10시 불광사 법당에서 '5대 적멸보궁 대참회 순례기도' 입재식을 갖고 5개월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1월 1일 불광사를 출발해 양산 통도사, 태백 정암사, 영월 법흥사,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순으로 십보일배 기도를 하며 약 5개월에 걸쳐 순례기도를 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여정이다.

이날 입재식에는 불광사 회주이자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회장 인산 스님, 성전선원 정도 스님, 설동근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산 스님은 "인간은 머리를 하늘을 향해 꼿꼿이 들고 있는 자만한 존재인데 절은 하심을 돕는 수행"이라며 "자칫 무릎을 다칠까 걱정되지만, 십보일배 순례기도를 통해 전 국민이 어려운 이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등불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설동근 회장도 "새해 첫날 출발하는 순례인 만큼 우리나라 모든 이들의 서원을 담고 원력을 세우셔서 원만 회향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5대 적멸보궁 대참회 순례기도'가 시작됐다. 불광사 보광 스님은 5개월 동안 십보일배 순례를 한다.

길을 떠난 지 5일째인 1월 6일 첫 번째 적멸보궁인 양산 통도사에 도착해 참배를 하고, 현재 국도를 따라 강원도 태백 정암사를 향하고 있다. 스님은 매일 오전 8시 길에 올라 9시 30분부터 어김없이 사시예불을 드린 후, 해가 저무는 오후 5시까지 십보일배로 2번째 적멸보궁을 향해 걸고 있다. 특히 국도를 따라 십보일배를 하는 스님의 안전을 위해 불광사 승합차 1대와 현지 경찰차가 에스코트를 하고 있다. 한편 보광 스님의 대참회순례기도에 동참하려는 인근 지역민 및 신행단체 등의 구간별 참여 문의가 많다. (051)809-1420

박지원 기자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첫 발

부산불교연합회 신년하례식서 창립기념법회 봉행

2009년 부산불교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는 1월 5일 오후 3시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신년하례회 및 불교연합신도회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및 허남식 부산시장, 제종모 시의회의장, 김정훈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해 새해의 각오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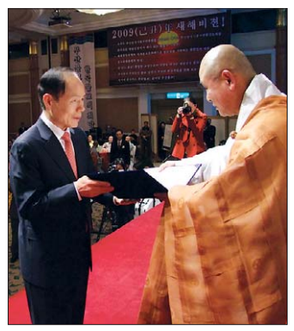
본 행사는 발원문, 신년하례, 경과보고, 2009년 비전제시, 신년사, 임명장수여 및 회기전달, 봉행사, 축사, 감사패전달, 신년법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국제영산마루 공연단의 국악난타 축하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정여 스님은 신년 법어를 통해 "부산불교가 부산불교연합회와 연합신도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부처님의 맑은 법음으로 부산시민 모두의 마음이 때 묻지 않는 연꽃처럼 청초한 한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부산 15개 종단, 산중 대덕스님 모두 힘을 모아 금년을 부산불교 발전 중흥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신년하례회에는 부산불교연합신도회의 창립기념법회가 함께 마련돼 더욱 뜻 깊다. 연합신도회 설동근 초대회장은 봉행사에서 "승가는 불교연합회, 재가는 연합신도회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해 부산불교의 화합과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소중한 연등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들 두 단체는 2009년 희망의 새해비전으로 △승가와 재가의 대동단결로 화합의 기축년 △세계연등축제와 세계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대표 불교문화축제의 완성 △교권수호의 역량강화 △한국불교 중심도시 부산의 위상정립을 위한 포교, 교육, 문화, 복지 등 전분야에서 앞서가는 부산불교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1월 5일 부산불교연합회 신년하례회(위), 정여 스님에게 불교연합신도회장 임명장을 받는 설동근 교육감.



한편 부산불교연합회와 연합신도회는 1월 12일 한나라당부산시당과 함께 불합리한 불교관련 규제법안의 개정을 위한 대담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박지원 기자

영담 · 원허 스님 계맥 이어

쌍계사 고산 스님 전수해


1월 4일 하동 쌍계사 팔영루에서 고산 스님(오른쪽)은 영담 · 원허 스님에게 계를 전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이 제자들에게 계맥(戒脈)을 전수하는 전계식이 1월 4일 하동 쌍계사 팔영루에서 열렸다. 전계법회는 스승으로부터 계를 전해 받으며 율사(律師)임을 공인받는 자리이다.

이날 전계제자는 2명으로, 고산 스님은 부천 석왕사 영담 스님, 부산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에게 각각 계를 전달했다.

고산 스님은 "불제자들이 계를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계맥을 잇는 것이며 불법의 등불을 밝히는 길"이라고 설했다.

이날 계맥을 받은 원허 스님은 "계를 통해 선정과 지혜가 생기기에 오늘 받은 계를 스승으로 삼아, 계율을 지키면서 포교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일산불교병원 마하병원 워크숍

동국대 일산불교병원(병원장 이진호)과 사회복지법인 내원의 마하병원(진료원장 신동훈)은 1월 10일 수안보 성시스파호텔에서 공동 워크숍을 열고, 최신 의료정보를 교환하는 등 불교병원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권범선 동국대 재활의학과장이 '동국대병원-마하병원 활성화 및 재활병원 네크워크 형성'이라는 주제로 두 병원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동국대 일산병원의 박일향 물리치료사, 최보운 작업치료사, 이인화 언어치료사와 마하병원의 백창진 물리치료사, 한우리 작업치료사가 최근 재활치료 의료기법 현황에 관해 차례로 발표했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과 마하병원은 2007년 5월 의료협력을 체결한 후 2008년 1월 제1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박지원 기자

자비의 쌀 100가마 전달

영도 백련사 영도구청에 보시

부산 영도 백련사(주지 혜주)는 1월 3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영도구 지역민에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보시한 쌀은 모두 100 가마로, 외부 후원금 없이 백련사 신도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백련사 신도들은 주지 혜주 스님과 함께 불우이웃을 위해 쌀을 모아왔다.

주지 혜주 스님은 "신도들에게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쌀을 전하자고 제안했더니 이렇게 100가마가 모였는데, 다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온정이 남아있는 것 같이 마음이 훈훈하다"고 말했다.

이날 보시한 쌀은 영도구청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백련사는 무료급식소,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 불우한 지역민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사랑 담긴 떡국 드세요"

부산지역 복지관서 떡국 나눔 이어져

"사랑이 듬뿍 담긴 떡국 드시고 힘내세요!" 설날을 앞두고 지역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가 부산지역 불교계 복지관에서 잇달아 마련된다.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맹자, 051-265-9471)은 1월 23~24일 '명절맞이 설음식 떡국 나누기' 행사를 개최한다. 다대4지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가정 100세대에게 떡국뿐만 아니라 과일, 약과, 떡, 제수음식 등 설음식을 나눠줄 예정이다.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일규 , 051-264-9033)은 22일 오전 11시부터 '설맞이 사랑나누기' 행사를 개최한다. 복지관 내 및 다대1동 몰운대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어르신 및 노인 세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100세대를 선정해 떡국용 떡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 051-628-6737~9)은 22일 '설맞이 사랑나눔 한마당'의 일환으로 떡국거리 나누기 및 희망의 장학금 지원 행사를 마련한다. 지역 독거어르신과 장애인가정, 소년소녀가장과 한부모 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총 400세대에 떡국거리를 제공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산 금강노인복지관(관장 원행, 055-221-8445)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2009 새해맞이 희망의 떡국 나눔' 행사를 실시한다. 22일 독거 어르신 및 저소득 가정 총 55세대를 선정해, 떡국떡 1kg, 목살 220g, 만두 1kg, 사골곰탕 1kg 등으로 구성된 떡국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시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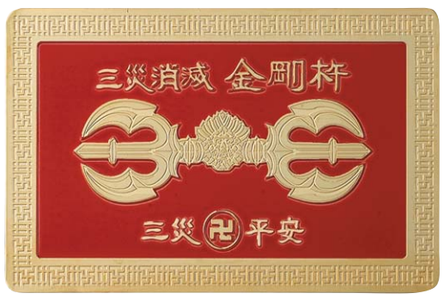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9년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8년 동지달부터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금액4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농협: 032-12-193445 이상하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적색글씨에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해당되는 분은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악삼재입니다.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특별선물 : 단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지각 스님 취임

광주동구불교협의회

광주동구불교협의회는 1월 5일 광주 동원사(주지 지각)에서 2대 회장 혜광 스님(용화정사 주지)과 제3대 회장 지각 스님(동원사 주지)이 · 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성오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혜인 스님(삼화불교총무원장) 등 40여 회원스님과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각 스님은 취임사에서 "호남불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광주 동구이다. 동구 불교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책무에 맡은 것에 큰 사명감을 느낀다"며, 회원사찰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당부했다.

한편 광주동주불교협의회 제3대 임원단은 부회장 무등 스님(천룡사 주지)과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 홍보 도제 스님(원각사 주지), 감사 도선 스님(도선사 주지), 총무 법선 스님(문빈정사 주지) 등이 임명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복지·나눔·청소년 등 중요사업 풍성

광주지역 불교단체 시무식

새해를 맞아 광주지역 주요 불교단체들의 시무식이 시작됐다. 이들 단체의 시무식에서는 지역 불교계를 풍요롭게 할 중요사업들이 쏟아져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작년 한해 노인복지사업에 두각을 보였던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창립 10주년 되는 2009년을 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와 회원사업 확대를 강화하는 해로 지정했다. 김영섭 사무처장은 "노인복지사업을 어르신식당 운영, 찾아가는 따뜻한 밥상, 밑반찬지원사업 등으로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화엄학림, 차문화아카데미(청소년강좌 신설), 경전강좌(2~3개 예정) 등 불교교육과 문화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회원사업의 일환으로 월례법회(포살 기도법회) 등을 신설해 불교신행이 겸비된 행사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실천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는 소액기부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윤예중 사무국장은 "세계적 경제위기와 함께 국내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절망적"이라며 "어려운 때 일수록 작은 온정은 포기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광주생명나눔은 2009년 '환우가족과 같이하는 정서지원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이다. 치료비 목적의 1회성 지원에서 지속적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또한 기존의 헌혈은행 운동을 전국네트워크화하고, 장기기증운동 등의 활성화도 계획됐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소장 이주성)는 2009년을 외국인 복지에 총력을 다하는 한 해로 정했다. 상반기에 외국인쉼터 전용공간인 '외국인 사랑방'을 개설해 외국인들의 휴식과 정보교환이나 모국 소식들을 접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건강검진, 법률상담, 외국인 불교문화답사 등도 강화하게 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공동대표 법일)는 1월 17~19일 청소년 마음캠프를 시작으로 공식활동을 시작한다. '내 안의 너, 너 안의 나'를 주제로 처음 개최되는 청소년 마음캠프는 상담전문가인 황선정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 송문용씨(부모역할훈련 다수 진행)의 지도로 해남 대흥사에서 열린다.

이어 2월부터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위한 '자비의 쌀 나누기 사업'과 환경법회, 어린이 생태학교, '빈그릇 운동' 캠페인 등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2월초 공식 출범을 앞둔 **원각사 부설 ABC(아시아 밝음 공동체)(센터장 고영순)**도 2009년을 새로운 출발과 도약의 해로 다짐했다. ABC는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됐으며,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마련한 상태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주민 한국생활 적응 · 정착지원 △문화 적응 유도 △내외국인 대상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 △다양한 문화체험기회 마련 △이주민 문화멘토 형성 △함께 나누는 소통과 이해를 통해 통합사회로의 방향 모색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광주생명나눔 홍보이사 · 가수 주권기

"찬불가 부르며 불교 알리고 싶어요"

"생명나눔과의 만남은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불교인으로서, 불교음악운동을 하는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단체입니다"

광주생명나눔실천회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광주생명나눔) 홍보이사로 거리에서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 돕기 모금을 진행해 온 이가 있다. 바로 불자가수 주권기(41 · 광주 궁동)씨다.



주씨가 소아암 백혈병 아이들을 위해 노래 부르기 시작한 것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생명나눔이 설립되면서 모금을 위한 거리공연을 요청 받았다. 당시 음악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며 아르바이트 하던 주씨는 주저 없이 승낙했다. 좋아하는 노래로 남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 있는 일이었기 때문.

2001년 4월, 무등산 입구 문빈정사 앞에 간이무대를 설치하고 등산객을 향해 무작정 노래 불렀다.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을 상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노래했다. 목이 쉬고 몸은 녹초가 돼도 쉼 없이 노래만 불렀다. 주권기씨의 정성을 알아본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 도움을 주면서 거리음악회는 활성화됐다.

생명나눔 홍보대사는 그의 인생에 큰 전환기를 가져왔다. 주씨의 노래도 불교인연으로 시작됐다. 주씨는 1996년 광주시내 중심가에 있는 관음사 청년회에 입회해 불교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법우들이 많지 않고 흥미도 없었는데, 내가 회장된 후 법회에 노래도 곁들이니 회원들이 많이 늘었어요."

3~4명이던 회원은 그 후 1년만에 30~40명이 됐다. 노래 덕분이었다. 주씨의 인생은 전환기를 맞았다. 법우의 소개로 라이브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가수 인생이 시작됐다.

광주 사직공원에 위치한 음악카페 '작은 음악회'는 주씨가 매월 정기적으로 '소아암 백혈병 환우를 위한 콘서트'를 여는 그의 가게다. 광주생명나눔이 지정한 '아름다운 가게 3호점'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만 매년 1200여 어린이가 소아암으로 고통 받습니다. 소아암은 불치병이 아니라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됩니다. 어린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고 막대한 치료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작은 음악회를 마련했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그는 이제 광주지역 유명가수로 지역 언론과 방송에 많이 소개되고 있다. 현재 광주KBS 사랑나눔 봉사대 회원으로, 월1회 시골벽지를 다니며 음악회 의료봉사 등을 진행 중이다.

주씨는 "불교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지탱해준 거대한 힘이었다"며 "이제는 지역에서 불교음악운동을 하고 싶다. 지방에서도 불자가수로 열심히 활동하면 불교발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주씨는 광주에서 찬불가 보급강사 양성을 하고 싶어 한다. 불교 관련 시설이 적은 호남지역에서 찬불가야말로 사람들에게 쉽게 불교를 알리는 도구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에게는 찬불가가 바로 수행이다.

매일 아침에 '천수다라니'를 독경하며 음성공양 준비를 하는 주권기씨에게서 호남지역 불교음악운동을 기대해 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주인의식 있어야"

원각사 도영 스님 초청법회



도영 스님은 1월 4일 광주 원각사에서 법문했다.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1월 4일 도영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150여 신도가 참여한 법회에서 도영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에 대한 믿음은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라며 "인생의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린이 역사문화탐방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이순규)은 1월 18일 '옥당골 영광, 백제 천년의 숨결을 찾아서'를 주제로 제12차 어린이 역사문화탐방을 실시한다. 초등학생 40명 선착순 접수. (062)228-909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불교 위상 높일 터"

익산사암련 신임회장



"공격적인 선교활동을 보이는 타종교의 교세확장 움직임 속에서 익산지역내 불교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불교계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랍 31일 익산불교사암연합회 신임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된 백운사 우성 스님(사진) 취임일성이다.

스님은 "익산지역에는 신도조직이 비교적 탄탄하게 짜여져 있는 만큼 이들 조직을 잘 활용해 신도조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신도조직을 바탕으로 어린이 · 청소년 등 계층별 포교에 힘쓰는 한편 적극적인 신행활동으로 옛 백제불교의 위상을 되찾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우리 불교가 앉아서 기다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포교하고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구석을 살펴 보시행을 펼쳐나가며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우성 스님은 "지역불교 지도자들과 잦은 만남을 통해 불교의 위상을 높여가겠다"며 "전국에서 불자들이 찾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가까운 시일 내 지역불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실상사 작은학교 문화체육장관상

남원 실상사 작은학교(교장 이경재)가 2008년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구랍 31일 2008년 문화예술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문화예술선도학교 10개교와 지역문화예술지원센터 2개소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신 돌아보고 새 출발"

금산사 새해 일출맞이 템플스테이 열려

새해 원단을 맞아 전국 명승지에서는 해맞이가 한창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제 모악산 기슭의 금산사(주지 원행)에서는 '특별한 여행 – 금산사 새해 일출맞이 템플스테이'를 개최해 참나를 찾으려는 대중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참나를 찾으려 금산사를 찾으려는 대중은 구랍 31일부터 모여들었다.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전국에서 모인 100여 참가자들은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염원하는 범종치기와 함께 무명을 밝히는 촛불을 들고 걸음마다 참회하는 시간 등을 가졌다.

새벽예불을 마친 대중들은 새해 새아침 내리는 서설(瑞雪)을 맞으며 모악산 정상에 올랐다. 2시간여 등산 후 산 정상에서 맞는 새해 첫 일출에 대중들을 저마다 새해 각오를 다지고 모든 가정의 행복과 나라와 사회의 안녕을 기원했다.

가족과 함께 참가했다는 김우정(부천 심곡본동)씨는 "모악산 정상에서 맞이한 일출은 환상이었다"며 "새해에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제 금산사 대중들은 1월 1일 모악산 정상에서 일출을 맞았다.

템플스테이 팀장 일감 스님은 "속세에서의 현란한 즐거움보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움을 향해 출발하는 의미를 담아 새해 일출맞이 템플스테이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에 앞선 구랍 31일 김제시 심포면 거전리 해변가에서 묵은해를 정리하는 '2008년 해넘이 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원행 스님을 비롯해 원혜 스님(남고사), 덕림 스님(익산 관음사) 등 전북지역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방불교대학 2009 신입생 모집요강

Ⅰ. 사정원칙 및 유의사항

1.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 · 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2. 불교학과 및 승가학과는 정규반과 통신반을 선택 지원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한다.
3.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는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려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4. 본 종단의 승려증을 발급받은 기성종도가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선덕 또는 중덕법계를 품수한다.
5. 모든 학과의 신입생은 매년 학년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 개설시기에 따라 후기입학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Ⅱ. 모집인원 및 편제

학과	모집인원	편제	비고
불교학과	000명	2년제	정규반/통신반
승가학과	000명	2년제	정규반/통신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불교미술학과	00명	3년제	정규반

Ⅲ. 전형일정

구분	날짜	장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08. 12. 29(월) ~2009. 2. 12(목) 17:00	• 본교 교학처 • 인터넷 교부 · 접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09. 2. 12(목) 18: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전형(필기 · 실기 · 면접)	2009. 2. 13(금) 10:00 ~ 17:00	• 본교 강당 및 강당
합격자발표	2009. 2. 16(월) 14:00	•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 개별통지

Ⅳ. 전형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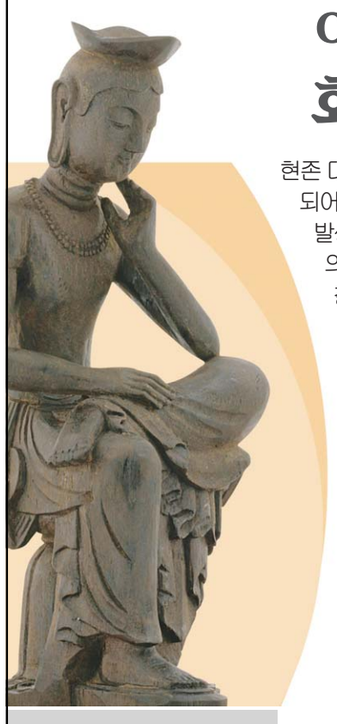
1. 불교학과 / 승가학과 : 50,000원
2. 범패학과 / 불교미술학과 : 60,000원

Ⅴ. 특전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예비승려가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승려증을 발급받는다.
2. 본 종단의 승려증을 발급받은 기성종도가 본교에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선덕 또는 중덕법계를 품수한다.
3. 모든 학과 졸업생에게는 태고종 2급 정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4. 불교학과 및 승가학과 졸업생에게는 학장이 발행하는 불학사(佛學士, 출가자) 또는 교학사(敎學士, 재가자)의 학위를 수여한다.
5. 범패학과 2학년생은 본교가 개설 · 운용하는 범패연수과정(1년)을 등록 · 수강할 수 있다.
6. 범패학과 졸업생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7. 불교미술학과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국가고시) 등에 대비한 특강을 실시한다.
8.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 자세한 모집요강은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120-150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동 49-1
TEL:(02)745-2030~2 FAX:(02)744-3461
홈페이지 www.dongbang.org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담보내용

구분	화 재	화 재	상 해
기본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사망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동부화재
사찰보험 전문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1-648-1203 | 010-9996-7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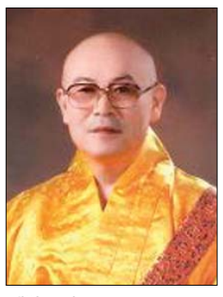
우리 종단을 말한다 ‖ 대한불교무량종

종정대행 혜안 스님

"염불신앙으로 불국정토 구현"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부처님을 염하는 자는 사람 속의 분타리화(分陀利華)니,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그 훌륭한 벗이 되어, 도량에 앉아 부처님들의 집에 태어나게 해주느니라."(관무량수경)

대한불교무량종(종정 혜안)은 나무아미타불의 육자명호 염불신앙 종단으로 1999년 4월 15일 서울 종로 무량정사에서 창종했다.



혜안 스님.

본 종단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기화득통 선사를 종조로 삼아 역대 조사들이 해 고통 받는 모든 이들에게 의지처가 될 아미타 천불을 봉안해 불자들의 휴양처와 수도장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종단은 항상 시대의 흐름에 동행하면서 호국하는 이념 아래 사회에 동참해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사상과 이념을 갖고 실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창종 직후부터 종단 합동 보살수계식을 정기적으로 봉행해왔고, 불우이웃돕기 경로행사, 월드컵 성공기원대법회 등 다양한 행사와 법회를 개최했다. 종도 한 명 한 명이 인과의 도리를 깨달아 계행을 닦고, 참회하면

역대 조사 전승해온 염불신앙 법맥 계승
불국토 건설 목표 사상·이념 갖고 실천

전승해오던 염불신앙의 법맥을 계승하고 있다. 아미타불의 서원인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 염불로 명심견성(明心見性) 정토왕생(淨土往生)을 발원하고,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심(下化衆生心)으로 전법도생(傳法度生) 불국정토(佛國淨土) 호국안민(護國安民)함을 종지(宗指)로 삼고 있다.

무량종은 70여 종단 소속스님을 비롯한 모든 종도들이 행해묘엄(行解妙嚴)과 부처님의 자비원륭(慈悲圓隆)에 대한 교훈을 받들어 상하화합(上下化合)하고자 총본산 칠보정사(경남 하동군 적량면)를 비롯한 전국 100여 사찰에서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칠보정사는 천불극락전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지혜를 밝혀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앞으로도 무량종은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법회 등을 꾸준히봉행해 물질·정신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미륵바위 등을 포함한 총본산 칠보정사 성역화 작업을 통해 종단 입지를 보다 확고히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창종 10주년을 맞이해 계획중인 기초교육원 설립 불사는 앞으로 종단소속 스님과 행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종도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종지종풍 선양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055)882-1599

정리=김진성 기자

소처럼 힘찬 발걸음 시작

각 종단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 봉행

각 종단들이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에서 불교 중흥을 서원하며 새해 종무행정에 본격 돌입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월 5일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종단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종단 원로스님과 총무원장 운산 스님, 중앙종회 의장 인공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운산 스님은 신년사에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장점은 갖고 있기 마련"이라며 "종도의 장점을 인정하는 인간관계를 통해 스스로 대내외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한 해가 되자"고 강조했다. 법회에서는 구랍 23일자로 임명된 신임 고시위원장 동우 스님, 중앙복지원장 혜각 스님, 전통불교문예원장 일운 스님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태고종은 15일 순천 선암사에서 종정 혜초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음력 설에 맞춰 봉행 예정인 신년하례법회에 앞서 종의회 원 구성을 완료하고, 대대적인 사찰 주지 인사를 단행했다. 천태종 종의회는 4일 구인사에서 제14대 개원종회를 열고 종의회 의장에 도산 스님, 승려 부의장에 명구 스님, 신도 부의장에 최인규 의원을 선출했다. 또 총무분과위원장에 최은식 의원, 법제분과위원장에 화산 스님, 재무분과위원장에 김형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1월 15일 서울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봉행된 태고종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

천태종은 또 종의회 전 사령장 전달식을 갖고, 대전 광수사 도정·대구 대성사 도산·부산 삼광사 화산·서울 관문사 영제·인천 황룡사 덕해 스님 등 전국 160여 사찰 주지 인사를 단행했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5~11일 각 심인당에서 '새해 대서원 불공'을 봉행하고 12일 시무식을 진행했다. '나라의 안녕과 경제발전'을 서원덕목으로 거행한 불공에서는 △인류심성 정화 △경제회복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 등을 서원했다.

총지종(통리원장 원송)도 5~11일 전국 각 사원에서 새해 불공을 봉행하고, 회향일(11일) 오후 9시부터 12일 새벽 4시까지 철야정진을 했다. 총지종은 15일 시무식으로 종무행정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재)일붕선교종은 7일 인천 호불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붕해 스님은 신년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소의 걸음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총무원장 화엄, 중앙종회의장 경원, 호계원장 용암, 포교원장 도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해동, 감사원장 석성, 총무부원장 법성 스님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외에도 조동종(총무원장 덕우), 한국미륵불교(총무원장 송봉)도 각각 5일과 4일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는 등 불교계 각 종단이 2009년 새해 첫걸음을 시작했다.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종도 행정·사법 상담 및 민원 해결"

태고종 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예정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종도들의 행정·사법 권익향상을 위해 '(가칭)종도 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처리위)'를 신설할 예정이다.

고충처리위는 앞으로 사찰 소재지의 재개발이나 이전, 보상 등 사찰 운영과 관련된 법규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무상으로 상담하고, 각종 민원을 접수해 이를 원만 해결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고종은 행정·사법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식기구로 발족하기 위해 내부조율 중이다.

이와 관련해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고충처리위의 활동을 통해 종도들의 법·제도적 서비스를 강화하면 종도들의 수행환경이 더 여법하게 조성돼 종단의 대 사회적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충처리위 초대 위원장에는 지홍 스님(안정사), 부위원장에는 총무부장 묵원 스님, 능해 스님(前 교무부장) 등이 각각 내정됐다. (02)739-3450 (내선 117번)

김진성 기자

"마음자리 잘 지켜 실천수행하라"

천태종 재가불자 1182명 동안거 해제



1월 4일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된 '제96회 재가불자 동안거 해제식'.

천태종 재가불자들이 한 달간의 안거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1월 4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종정 도용 스님, 운덕 대종사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6회 재가불자 동안거 해제식'을 봉행했다.

증명법주 도용 종정스님은 해제 법어에서 "수행자는 계를 어긴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참회할 줄 알아야 한다"며 "부처님 법으로 제대로 듣고 보고, 그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복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며 "안거를 마친 후에도 마음자리를 잘 지켜 실천수행을 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도 해제사를 통해 "불자들이 한 달 동안 일심으로 용맹정진해 생멸의 짐을 벗어나고자 노력했다"며 "한 달 안거에 만족하지 말고 늘 하심을 실천해, 상불경보살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일여정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인사에서 구탑 5일 시작한 재자불자 동안거는 처사 243명, 보살 939명 등 1182명의 천태종 신도들이 참여했다. 이번 해제식에는 안거 불자들을 대표해 구미 금룡사 김정수·영춘지회 김경시·서울 관문사 권정원·대구 대성사 구후선·부산 광명사 구정화·대전 광수사 장자현 불자가 도용 종정스님으로부터 이수증을 받았다. 김진성 기자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에 법선·공암 스님

태고종 전국비구니회(회장 행득)가 공석이었던 부회장에 법선 스님(자비정사 회주)과 공암 스님(연화사 회주)을 임명했다. 전국비구니회는 구랍 23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2008년도 결산 총회를 개최했다. 2008년 사업결산 및 신임간부 임명을 위해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사무처장에 지명 스님(보타사 주지), 총무국장에 행담 스님(보현암 주지), 사무국장에 지혜 스님(불정사 주지), 서울지역장에 묘련 스님(약사암 주지)을 각각 신규 임명했다. 김진성 기자

제4회 종교사회복지대회 시상

복지부장관상 전승범 관장·복지대상 수상 용경숙 팀장





진각복지재단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전승범(사진 왼쪽) 관장과 의정부시 곰두리네집 용경숙(사진 오른쪽) 팀장이 구랍 29일 여의도 모나크부페에서 열린 '제4회 종교사회복지대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과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김득린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운희 대표(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변웅정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 전에는 손명세 교수(연세대 의대)가 '인공임신중절현황과 생명존중'을 강연했다. 김진성 기자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벅" 사용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더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셋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금성농협에서 만든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질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 조 : 금성농협 문 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패철 보는법



나경은 나침반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다 괜히 어렵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하루밤에 나경 사용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 잡는법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울찰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권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농협 185-12-229450 예금주 김영주. 주문전화: 1688-1137 한국역학협회 명당탐지기 관룡자, 심룡척도 있습니다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기초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등
- 예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전문과정(4개월)
- 시련,대령,관욕,옹호게(신중작법104위),지장청,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유원숭,요잡작법
- 사 물 : 태징,북,광쇠,호적(태평소),전통의식타법
- 특 강 : 괘불이운,종사이운,종사영반,점안의식,시달림(다비),예수재의식 등

라. 강주 : 김법운스님, 이현진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 개 강 :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접수기간 : 상시모집
9.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 (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과 운명을 바 꿔 주 는 **"기도의 비밀"**

한 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 찾아오시는길: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웰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기도의 비밀이 자신의 인생과 가족평생의 길흉화복을 좌우합니다. 관음정사에 오시면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오전반, 목요일 오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 (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053)474-8228	경산도량 053)816-8228
칠곡도량 053)313-8228	구미도량 054)443-8228

※ 행자 (예비스님) 모집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경북포교사단

단장 김 상 수

단원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 113-4(3층)
TEL 053)745-4108
FAX 053)745-4109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운문 승가대학
운문사 보현율원

회 주 명 성
주 지 진 성
율원장 흥 륜

대 중 일 동

www.unmunsa.or.kr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1789
TEL 054)370-7100
FAX 054)371-0359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경북 성주군 사암 연합회

고 문 지장사 진공
회 장 천불사 법원

총 무 지안사 지안
기획실장 장산사 지원
포교부장 길조암 보현
조직부장 자은사 도철

감 사 법성사 법공
약사암 흥재

회 원 용화사(읍) 도진

문수암 덕안 연화사 원행
수암사 수현 용화사(초전) 연담
보광사 지영 대승정사 묘덕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775번지
TEL 054)932-8443

굳건한 정진의 자세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 대한불교조동종의 임원개편에서 중책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종단의 어른 큰스님 들의 뜻을 이어 종도들의 상생 발전과 화합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으로 종단의 업무를 받들겠습니다.

중앙 포교원장

총 무 부 장 고 우
재 무 국 장 청 정 자비암

기축년 새해 종단발전을 간절히 발원하옵니다.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천태종

종 정 김 도 용

총무원 총무원장 주정산
총무부장 김무원 교무부장 김유정 교육부장 김세운 재무부장 김용암
사회부장 김경천 규정부장 김영제 종정사서실장 정장호

원로원
원로원장 윤덕산

감사원
감사원장 변춘광
감사위원 이월장

참의원
참의원장 권무원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도산
종의회부의장 정명구
최인규
중앙신도회장 권영철
금강대학교총장 성낙승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 권기종

바로 잡습니다
신년특집호(712호) A11면 천태종 신년광고 문안에서 종정 김도영을 - 종정 김도용으로 바로 잡습니다.
우기로 인해 심려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리며, 넓은 해량 부탁드립니다.

■ 총본산 구인사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번지 TEL043)423-7100 / FAX043)420-7399 www.chentae.org

“자기 인생문제를 진실로 느끼고 깨달아야 해”

묵산 스님(보림선원 조실)

서울 정릉의 삼각산 기슭에 자리잡은 보림선원. 주변에는 고층 아파트와 민가들이 보이지만, 숲으로 둘러싸인 산 중턱에 위치하다 보니 고즈넉한 산사 분위기가 나는 아담한 절이다. 한국의 유마 거사로 불린 백봉 김기추(白峯 金基秋, 1908~1985) 거사의 제자들로 구성된 보림회의 근본도량인 이 곳에는 백봉 거사의 도반이자 제자였던 묵산 큰스님이 출·재가 선객들을 지도하고 있다.

구랍 30일부터 1월 5일까지 제70회 일주일 철야용맹정진을 회향한 보림선원은 유서 깊은 도심선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35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참선법회는 거사선풍(居士禪風)을 일으킨 백봉 거사의 테이프 법문 듣기와 좌선을 병행하며 1주일간 자지 않고 참선하는 수행프로그램이다. 철야정진 기간 내내 묵산 큰스님은 미수(米壽, 88세)의 고령에도 잠을 자지 않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며 재가 수행자들과 함께 법회를 회향했다.

1월 6일, 보림선원 일주문에 들어서니 얼룩 멍멍이가 개집에서 나와 왈왈 짖는다. 지난해 여름 일주일 철야정진에 동참했던 기자를 알아보았는지, 멍멍이는 사진기자에게만 겁을 준다.

조실방에 들어서니 큰스님이 기자를 알아보시고 반갑게 맞이한다.

“난 또 누구라고. 앉으시오.”

큰스님은 여전히 건강하고 목소리도 우렁찼지만 귀가 어두워지셔서 대화할 때는 큰소리로 고함치듯 해야만 했다. 하지만 질문을 알아들으면 폭포수 같은 장광설(長廣舌)로 법문을 토해내셨다. 말귀를 못 알아들 때면 필담(筆談)을 섞어가며 한 대답은 오히려 박진감을 더했다. 쩌렁쩌렁한 큰스님의 목소리와 유쾌한 웃음이 문답에 끊임없는 긴장감을 준 탓이다.

큰스님은 예상대로 일주일 철야정진에 대한 소감으로 말문을 여신다.

“이번 일주일 철야정진에는 30명이나 동참했습니다. 국민대 총장을 지낸 분과 의정부지원 판사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아주 훌륭하게 정진을 잘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백봉 거사님의 법문은 <금강경> <선문염송> <선시> 등을 설법한 것이지요. 주 내용은 허공이 하나이니 지도리(樞; 모든 것의 근본)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라는 공도리(空道理)를 설한 것입니다. 내 자체가 허공이고 부처다 하는 걸 철저히 실감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주옥같은 법문이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이번 용맹정진을 회향하면서 어떤 법문을 하셨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법문을 안했습니다. 다만 이런 말은 했지요. ‘삼세제불과 역대조사가 다 틀렸다. 백봉 거사도 다 틀렸다. 천하 노화상도 다 틀렸다. 억(喝)!’”

-그럼, 큰스님만 옳으신 겁니까.

“하! 하! 하! 청정법신은 내외가 없고, 거래(去來)·생사가 끊어진 광명이자 묘용(妙用)도리예요. 지식과 관념으론 불법을 의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공에서 머물며 생활하지만, 자기 살림살이를 헤아릴 수 없어요. 불가사의하고 불가설(不可說)한 것은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다 해도 죽음이 아니고, 산다고 해도 삶이 아닙니다. 생사와 사람 자체가 공하고, 범부와 성인이 모두 공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문제를 진실로 느끼고 깨달아야만 일대사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달마 스님이 9년간 묵언하며 면벽정진을 하고 서산 대사가 10년간 용맹정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산 대사는 한 글자도 설한 바 없는 도리를 이렇게 설했지요.

천계만사량(千計萬思量; 천 가지 계획 만 가지 생각)
홍로일점설(紅爐一點雪; 붉은 화로 속 한 송이 눈일세)
니우수상행(泥牛水上行; 진흙소가 물위를 가니)
대지허공열(大地虛空烈; 하늘과 땅이 갈라지네).”

-이 게송에서 진흙소는 무엇입니까?

“말과 생각으론 미치지 못하는 각(覺)의 자리예요. 동산수상행(東山水上行; 동쪽 산이 물 위로 간다)과 같은 도리지요. 몸뚱아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마음이어서 견문각지(見聞覺知)하는 자리가 자성이요 불성이요 심성 자리인데, 자기 자체를 알 도리가 없어요. 절대성으로서의 인간주체인 주인공이 청산(靑山)도, 백운(白雲)도, 우주도 창조합니다. 마음을 잘 쓰면 극락이 펼쳐지고 잘못 쓰면 지옥이 벌어져요. 내 마음에서 극락과 지옥을 창조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 만명의 스님이 있고 2000만 불자가 있는데, 국민들이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참다운 불교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견성한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전강 스님이나 설봉 스님, 백봉 거사 같은 도인들이 살아계실 때는 훌륭한 설법으로 많이 교화가 되었지요. 우리는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을 느끼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일을 하는 가운데 철저하게 자기 본래면목을 깨달아야 해요. 불교는 지금 현실에 즉(卽)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거든요. 과거나 미래에서 그 무엇을 찾는 건 망상일 뿐입니다.”

-국내외에 불어닥친 경제 한파와 전쟁과 갈등으로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류가 희망을 갖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원효, 의상, 범일, 서산, 사명 대사와 같은 대도인들이 많이 나와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물질로 고통을 받고 남북이 분단되고 지구촌에 전쟁이 끊일 날이 없지만 멀지 않아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도 이뤄질 거예요. 사해동포(四海同胞)의 세상이 되려면 무엇보다 화합이 이뤄져야 해요. 사람이 없다면 지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총·칼이 필요 없는 세상이 반드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악을 짓지 말고 수행으로 덕을 닦고 선근을 심어야 해요. 불법인연이 지중함을 알고 12시중(時中)에 불법을 머리에 새기고 수행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불법을 잊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니어야 할텐데요. 예를 들

‘내 자체가 허공이고 부처다’ 확신해야

내 마음에서 극락·지옥 창조하고 수용

사농공상 일하는 가운데 본래면목 깨달아야 해



묵산 스님은 1922년 제주도에서 태어나 1940년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43년 광명사에서 금륜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44년 만암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1959년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 해인사 보문사 수덕사 칠불암을 비롯해 오대산 등지의 선원에서 70세까지 수행정진했다. 1975년 서울 정릉에 보림사를 창건했으며, 1996년부터 매주 토요일 재가불자들의 주말철야정진을 지도하고 있다.

기축년 인도불교성지순례는
파초여행사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들 영혼의 고향 인디아!!!
인도성지 순례는 수행자는 물론 불자라면 한 번은 다녀와야 할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증명하신 영지를 순례하는 것은 크나큰 홍복이요, 복전을 짓는 길입니다.
또한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갑을 닫는 것은 더욱 어렵게 합니다.
내가 어렵더라도 지갑을 여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위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길입니다.

부처님 나라 인도성지순례!
내 영혼을 위해! 경제를 위해! 떠나자.

회 차	일 정	중점내용	동참금
제1차	2009. 2. 26 ~ 3. 8 (11일)	8대성지 순례	279 만원
제2차	2009. 3. 26 ~ 4. 9 (15일)	8대성지+인도,네팔 세계문화유산	359 만원
제3차	2009. 4. 30 ~ 5. 7 (9일)	4대성지 순례	259 만원
제4차	2009. 10. 22 ~ 11. 1 (11일)	8대성지 순례	279 만원
제5차	2009. 11. 26 ~ 12.6 (11일)	8대성지 순례	279 만원
제6차	2009. 12. 24 ~ 2010. 1. 7 (15일)	8대성지+인도,네팔 세계문화유산	359 만원

※ 출발 3개월 전 예약자 5% 할인해 드림.
※ 부산 출발/도착 기준입니다.
☞ 상기 내용은 환율 및 현지, 항공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행사주관 : 파초여행주식회사 전화 : 051-808-7370 전송 : 051-704-2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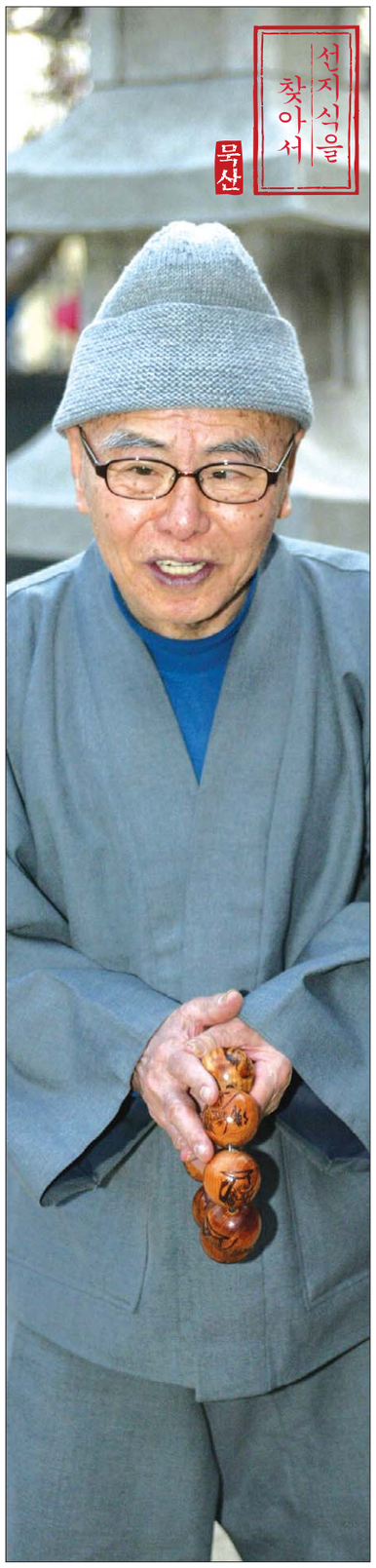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핵심래정 택일지
365일 매일 한 장씩 한 눈에 훤히 볼 수 있게 뽑아놓은 래정비법!
4×6배판/칼라제본/436쪽/정가 20,000원

새롭게 다시 쓴 한국 최초의 신개념 택일지 운세 비법 출간!!
매일매일 운세 보는법 공개….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새로워지는 신간
귀신뽑는 래정비법!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조사법 공개!
귀신뽑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갑자 일신법로 한눈에 척척 알 수 있게 조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저 百超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입금계좌(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

"목적에 충실하면 그게 천당"



어, 운전하거나 일할 때 화두공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동차를 운전할 때 화두 들면 큰일 나지요. 운전할 때는 운전을 잘 하는 게 화두입니다. 정진할 때는 좌선을 잘 하는 게 화두이듯이, 자기 목적에 충실하게 몰두하면 바로 그 자리가 천당이 됩니다.

물론 공부에 힘을 얻어 어묵동정(語默動靜)에 매(昧)하지 않는 힘을 얻으면 무엇을 해도 화두가 되지요. 힘이 순숙(純熟)해지면 자성이 어둡지 않고 성성(惺惺)히 깨어있게 되거든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극락이다', '내가 부처이자 우주의 주인공이다' 하는 신심을 갖고 자기 연마를 하면 이 자리가 바로 불국토입니다."

-늘 깨어있어야 한다면, 잠잘 때는 어떻게 공부를 지어야 합니까?

"깨어있을 때 힘을 얻어야 잠 잘 때도 공부가 되지. 잠이 들어도 잠에 치우치지 않고 성성해서 매하지 않아요. 옛날 서산 대사도 용맹정진 할 때 10년 동안 잠을 안 자고 산발(散髮)을 이룰 정도로 공부해서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스님의 하루 일과(日課)가 궁금합니다.

"나는 일과가 없어요. 오직 자성을 회광반조(廻光返照)하면서 몸뚱아리 버릴 때 깨끗하게 가려고 발원하고 있습니다. 내생에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 부처님과 같은 대도(大道)를 성취해 중생 교화에 나서리란 원력을 세울 따름입니다."

-백봉 거사님과 큰스님께서는 '허공'을 자주 말씀하셨는데, 허공이란 뭡니까?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을 버려서 체득되는 공도리를 뜻합니다. 4상(相)을 버리지 못하면 공도리를 못 굴리고 생사해탈을 못 해요. 아공(我空; 나라는 것이 공하다) 법공(法空; 일체법이 공하다) 구공(俱空; 아공, 법공 마저 공하다)의 삼공(三空) 도리를 설한 경이 <금강경> 아니겠어요."

-큰스님께서는 '허공을 삼켰다' '허공을 부셔버렸다'는 법문을 자주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직접 체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말로는 못해요. 우리가 웃고 울며 살아가는 것은 진공(眞空)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마음을 잘 써서 덕과 지혜를 닦아 인생문제를 굴려나가야 해요. 불교방송이나 신문에서 좋은 법문을 많이 내보내니 차츰 심성이 정화되고 계발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큰스님, 아까 절에 들어오는데 개가 멍멍 짖었는데요,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개노릇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하하! 부처님께서는 난생(卵生), 태생(胎生), 습생(濕生), 화생(化生) 등 12유생(類生; 중생이 태어나는 열두 가지 형태)을 전부 열반에 들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개도 불성이 있으니까 성불시켜야 한다는 거요.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도 치고 도둑이 오면 짖기도 하는데, 그걸 잡아먹으니 눈물 날 일이지요."

-부처님은 개에게 불성이 있다 하셨는데, 조주 스님은 왜 없다고 하셨을까요?

"지식적인 이해로는 설파할 수가 없어요. 보기에는 달라 보여도 같을 수 있고, 같아 보여도 다를 수 있거든.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 공안에 대해 조주 스님은 '내가 청주(靑州)에 있을 때 삼베로 옷을 지었는데 무게가 일곱 근이었지' 라고 대답했고, 고봉원묘 스님은 '개가 꿇는 솥가마를 핥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전강 스님에게 가서 두 선사의 대답에 대해 평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스님은 '똑같다'고 그래요. 하지만 나는 '같지 않다'고 부정해 버리고 나왔습니다('있다 없다', '같다 다르다'는 말 따라 가서 분별해서는 안된다)."

-두 대답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셨는지요.

"조주 스님이 고봉 스님에게 한 방망이 맞았다고 볼 수 있지요. 조주 스님 회상에서 공부하던 행자가 '무(無)자' 화두를 깨친 후 '스승의 할미가 본래 여인입니다(師姑元來女人倣)' 라고 말해서 인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한번 참구해 보세요."

-끝으로, 불자들에게 기축년 새해 덕담을 부탁드립니다.

"사람 몸 받은 것을 다행이라 여기고 감사히 여기십시오. 바른 법을 만나 진리를 깨닫는 공부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마음에 보리종자를 심어 늘 닦아나가는 생활로 도업(道業)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백봉 거사가 입적한 지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묵산 큰스님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거사를 대신해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닌 불이법문(不二法門)을 설하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오늘 내가 만난 선지식이 백봉인지, 유마인지, 아니면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멍! 멍!"

절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또 개가 짖는다. '조주 무자' 한번 박살내 보라고?

글=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26〉 신통 도인 탄공 대선사

1990년 내가 대구 관음사 초의 스님 초청으로 천수경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 노 대통령의 장모님 되신 분 팔순 기념으로 하는 특강법회였다. 3박4일 동안 마치고 점심공양을 하는데,

"귀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고 매화 한 폭을 주었다.

"이 그림은 몇 년 전 탄공 스님께서 주신 것인데, 아들 출세를 위해서 그림을 부탁드렸더니 사돈양반에게는 잉어를 하나 그려주고, 저에게는 이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70을 넘기 어렵다고 하더니 80을 살았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나와 같이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서도 매화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후 청주 수도원에 법문하러 갔다가 이 말씀을 드리니,

"여기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107살 되신 분이 있는데, 성격이 별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며 한 신도가 직접 차로 데려다 주겠다 하였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탄공 스님을 찾아뵈었는데, 보자마자 운전수 여인을 발로 차며,

"이년, 뭣 하러 왔어. 제 에미 에비를 다 잡아먹은 년이!"

하고 소리를 질러 신도님은 도망을 가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려 하니,

"뭐 절까지 할 것 있는가. 나하고 키스나 한번 하세."

하고 껴안고 입까지 쪽 맞춰버렸다.

"나는 중도 아니고 소도 아니네. 1881년에 상주에서 외아들로 태어나 집에 있으면 죽는다고 청송 주왕산 대전사에 데려다 놓은 것이 여태까지 죽지 못해 지금까지 살고 있어."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셨습니까?"

"1900년 도화서 백일장에 나갔다가 그려 보인 것이 급제가 되어 지금까지 노는 일에 염불하는 식으로 흰 종이에 먹칠하고 있지."

"수행은 주로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장성 백양사, 의성 고운사, 금강산에 들어갔다가 너무 경치가 좋아 세월도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1953년 지리산에 들어갔다가 개운 조사를 만나 겨우 내 살 곳을 얻게 되었지."

"포교는 어떻게 하시고요?"

"허허.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이 미친 사람을 믿나. 괜히 달 보고 짖는 개와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1시간 이상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은 이만 가고, 청주에 내려오면 종종 한 번씩 들르라."

하시며, 학 두 마리가 늙은 소나무 밑에서 붉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을 주셨다.

그 후부터는 1년에 두 세 번씩 시간 나는 데로 스님께 들렀다. 그런데 1997년 12월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년 6월에는 갈 터이니 더 좀 자주 오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는 2월 달까지 가지 못했더니 전화가 왔다.

"내가 금년에는 간다고 했는데 세배까지도 오지 않냐?"

"예,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니 작은 보따리에 그림 몇 장과 노트 두 개가 있었다. 그것이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다. 그 노트에는 생의 일지를 생각난 데로 간단히 적어 놓고, '내 머리를 깎아 준 한 법사님께 감사한다'는 말씀도 적혀있었다. 만날 때 마다,

"머리가 더풀거려 귀찮게 해."

"다시 삭발하는 게 어떻습니까?"

"중이 어떻게 제 머리를 깎는가?"

그래서 개운 조사의 위패를 모셔놓고 삭발하고, 위패상좌로 비구니 시봉 두 분을 두어 회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해 5월 25일 새벽 갑자기 입적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내려가 보니 의자에 앉은 체 몸도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상좌가 말했다.

"몸이 식지 않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차 한잔 드시고 싶다고 하여 차려드렸더니 대중을 다 불러 모이라 하였습니다. 차 한잔 드시고 나서, '너희들도 한 잔씩 들고 오늘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자' 하시고 덩실 덩실 학춤을 추면서, '오작교가 무너졌다. 오작교가 무너졌다' 노래하였습니다. 밤 10시까지 놀다가 주무셨는데, 새벽 3시 예불에 나오시지 않아 들어가 보니 이렇게 앉아서 가셨습니다."

"오작교가 무너졌다는 말씀은 사랑이 끝났다는 말이고, 학춤은 9만리 장천을 날아간다는 말씀이니 그것이 고별연이었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늘 이 의자에 앉아 '저 건너 저 곳이 내 집이다' 하였는데, 거기가 바로 스님의 아버지 어머니 묘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그곳에 장사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118세로 열반에 드신 탄공 스님의 역사가 끝이 났다. 나는 매년 5월이면 인연있는 사람들과 그곳에 찾아가 제사를 지내고 오는데, 지금도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한 법사, 잘 있었어. 마누라 한 사람 데리고 왔는가?"

하시며, 손을 꽉 쥐고 포옹하시는 스님이 눈앞에 선하다.

118세에 학춤 추고 노래 부른후 좌탈

불자님을 위한 특별행사! 선착순 30분

냄새없고 전기료가 부담없는 나산전기난로로 해결하세요!

나산원통형 고열량 / 카본히터
사용장소/공장용 · 업소용 · 농업용 · 사무실용



NS-7600
• 화력의 강약조절. 강: 2.5kW.약: 1.2kW.
• 회전기능 : 좌우 90도
• 높이조절 : 상하. 135㎝ ~ 100㎝
• 중량 : 약 8.5kg
• 크기 : 반사경(60㎝) 높이 : 135㎝

●산업용(공장, 기업체) 20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2.5kW×8시간=1,358원
(안전인증번호) NS-7600 : HH07142-2008D
특별할인가: 198,000원 (택배비 4,000원 소비자부담)



NS-7800
• 화력의 강약조절. 강: 1.8kW.약: 900W.
• 회전기능 : 좌우 90도
• 높이조절 : 상하. 135㎝ ~ 100㎝
• 중량 : 약 6.5kg
• 크기 : 반사경(54㎝)높이 : 135㎝

●상가용(15평형)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kW×8시간=978원
(안전인증번호) NS-7800 : HH07142-1004C
특별할인가: 178,000원 (택배비 4,000원 소비자부담)

강력난방 국내생산 1년간 A/S



▲DD-2000(적용면적 : 5평형)
열량 / 2㎾ • 사이즈 / 270×470mm • 무게 / 3㎏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2㎾×8=1,086원
특별할인가: 78,000원 (택배비 2,800원 소비자부담)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나산전기난로
난방비 90%절약!!!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8=978원



나산전기 난방기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주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물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형매장이나 식당 등 주난방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NS-7200(적용면적 : 5평형)
열량 / 1.8㎾ • 사이즈 / 355×660mm • 무게 / 3.5㎏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1.8㎾×8=978원

100% 국내산 /중국산과 비교불허!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상판위에 물을 데워 실내가습효과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무소음 / 무취 / 무연

일반히터는 히터주변만 따뜻하지만
나산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주 사용처 : 사무실등 협소한 장소, 이동이 잦은 곳, 접객업소(식당 / 주점 / 팬션)

◀NS-7000(적용면적 : 10평형)
열량/ 2.9㎾ • 사이즈/355×660mm • 무게 / 4.1㎏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7.90×2.9㎾×8=1,575원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 强者! 나산전기히터!

www.nsheater.com * 주문하시면 3일이내에 배송됩니다. 나산전기난로 : (NS-7000) 88,000원 / (NS-7200) 78,000원 문의전화 080-001-0022 입금계좌 :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택배비 2,800원 소비자 부담)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68>
(修習止觀坐禪法要)

제9장 치병(治病) ②

사대가 조화되지 않으면 오장에 병 생겨

二者五藏生患之相 從心生患者 身體寒熱 及頭痛口燥等 心主口故 從肺生患者 身體脹滿四肢煩疼 心悶鼻寒等 肺主鼻故 從肝生患者 多無喜心 憂愁不樂 悲思瞋恚 頭痛眼闇昏悶等 肝主眼故 從脾生患者 身體面上 遊風遍身 瘡癢疼痛 飮食失味等 脾主舌故 從腎生患者 咽喉噎塞 腹脹耳聾等 腎主耳故 五藏生病衆多 各有其相 當於坐時及夢中察之可知

두 번째로 오장(五藏)에서 일어나는 병의 모습에 대해 밝혀보기로 한다.

오장이란 심장 간장 비장 폐장 신장 등 다섯 가지를 말한다. 오장 가운데 심장에서 병이 일어나면 몸에 한기가 들고 열이 나기도 하며 두통이 오거나 입이 바짝 마르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는 심장이 입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폐장에서 일어난 병은 몸이 잔뜩 부풀어 오르고 사지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코가 막히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는 폐장이 코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간장에서 생긴 병은 즐거움이 없고 근심스럽고 슬프고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고 시력이 어두워지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는 간장이 눈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비장에서 생긴 병은 전신에 바람이 두루 돌고 고질적인 가려움과 통증이 매우 심하거나 음식을 먹어도 입맛이 없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는 비장이 혈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신장에서 일어난 병은 목구멍이 막히고 복부가 팽만하고 귀가 어두워지는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는 신장이 귀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오장에서 일어난 병은 여러 가지로 많지만 각자 그 특징적인 모습이 있으므로 수행인이 좌선할 때나 꿈속에서 잘 관찰해야만 알 수 있다.

오장에서 일어난 병의 모습을 알고 싶다면 맥이 뛰는 법을 인식해야만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의술을 훌륭하게 행하는 자는 사대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최상의 의사는 환자의 음성만 듣고도 알고, 중간쯤 되는 의사는 얼굴색만 보아도 알고, 최하의 의사는 진맥을 해봐야만 병 증세를 안다. 하지만 수행공부를 하는 사람은 의술에 정통할 필요는 없고 병에 대한 상식만을 간략하게 알면 된다.

지금 오장에서 일어난 병의 모습에 대해 대략 제시해 보기로 한다.

가령 맥이 크고 곧게 뛰면 간에 병이 난 모습이고, 맥이 가볍고 들뜨면 심장에 병이 난 모습이며, 맥이 첨예하게 충돌하면 폐장에서 병이 난 모습이고, 맥이 구슬처럼 굴러가듯 뛰면 신장에서 일어난 병의 모습이며, 맥이 침중하고 느슨하게 뛰면 폐장에서 일어난 병의 모습이다.

또 얼굴에 광택이 없고 손발에 땀이 없으면 간병의 모습이며, 얼굴색이 푸르면 심장병의 모습이고, 얼굴빛이 검으면 폐병의 모습이며, 몸이 기력이 없으면 신장병의 모습이고, 몸이 보리쭉정이처럼 까슬까슬하면 비장병의 모습이다.

오행이 서로 상극하여 오장 병이 생기는 경우는 본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단지 오행과 오장 오근의 상속과 상극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말해보면 동방은 오행으로 갑을목(甲乙木)인데 색깔은 푸르고 간에 소속되어 있으며, 남방의 병정화(丙丁火)는 검붉은 색으로 심장에 소속되어 있으며, 서방의 경신금(庚申金)은 하얀 색으로 폐에 소속되어 있으며, 북방 임계수(壬癸水)는 검은 색으로 신장에 속하고, 중앙 무기토(戊己土)는 황색이고 비장에 속하여 몸을 주관한다.

여기에서는 오근과 오장이 서로 상극하는 것에 대해 밝혔다. 그러므로 병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반드시 육신(六神)의 병의 모습까지도 알아야만 된다.

가령 정신이 어두운 것을 많이 느끼면 간에 혼이 없는 것이고, 전후로 일어난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면 심장에 신(神)이 없는 것이며, 공포스럽고 생각이 뒤바뀐 병이 많은 경우는 폐에 혼(魂)이 없는 것이고, 지나치게 좋아하고 지나치게 슬퍼하고 지나치게 웃는 경우는 신장에 지(志)가 없는 것이고, 생각이 뒤바뀌고 현혹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비장에 의(意)가 없는 것이며, 유쾌한 마음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음속에 정(精)이 없는 경우이다. 이상은 육신가운데 병이 있는 모습이다.

취하고 버릴 것을 알아야 병도 자연히 물러가
사대와 오장서 일어난 병은 안밖에 원인 있어

如是四大五藏病患因起非一 病相衆多 不可具說 行者若欲修止觀法門 脫有患生 應當善知因起 此二種病 通因內外發動 若外傷寒冷風熱 飮食不消 而病從二處發者 當知因外發動 若由用心不調 觀行違僻 或因定法發時不知取興 而致此二處患生 此因內發病相

이와 같이 사대와 오장에서 일어난 병은 그 원인이 한결같지가 않다. 지대와 수대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수대와 풍대가 공동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또는 지대 수대 풍대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지수화풍 사대 전체가 화합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병의 모습을 빠짐없이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수행자가 지관법문을 닦고 싶어 할 경우 혹 병환이 있다면 반드시 그 병이 일어난 원인을 잘 알아야만 한다.

이상에서 설명했던 사대와 오장에서 일어난 두 종류의 병은 총체적으로 안과 밖에서 그 원인이 있어 활동하게 된다.

가령 외상으로 오는 경우는 한랭한 기운과 바람과 열기와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것이다. 이 병은 사대와 오장 두 곳을 따라서 발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외부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또 마음 씀씀이가 조화롭지 못하고 수행이 정도를 위배해서 삿된 것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선정이 발현할 때에 취하고 버릴 것을 모르면 사대와 오장에서 병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내부의 원인으로 일어난 병의 모습이다.

대반야경에서는 말하기를 "수행이 오지(五地)에 오른 보살은 세간의 의술까지도 통달한다"라고 하였다.

세간의 의사들은 진맥을 하고 처방을 하여 병을 치료한다. 불법은 세간이 아니기는 하지만 세간을 떠나지도 않았다. 따라서 세간의 의술을 방편으로 빌려서 중생 몸의 병을 다스려야만 한다. 예를 들면 여래의 설법은 법약이 되어 중생 내면의 번뇌 병을 다스리는 것과도 같다.

수행자는 중생의 갖가지 병환에 있어서 그 인연을 잘 알아야만 하는데, 선정이 발현할 때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만일 취하고 버릴 것을 모르면 사대와 오장 등 두 곳에서 병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내부의 원인으로 일어난 병의 모습이라고 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인과론(因果論)

사제법문(四諦法門)

부처님이 성도하신 이후 대인설법(對人說法)을 할 때 사실에서 거리가 먼 이론적인 측면은 굳이 담론하지 않은 듯 합니다. 따라서 이 세계는 유한한 것인지, 무한한 것인지, 또는 사람이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갖가지 목전에서 바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은 분명하게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단적인 하나의 예로 '중아함경' 제60권 '전유경(箭喩經)'을 참고해 보면 부처님께서는 열 가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의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낱낱이 밖으로 드러내어 고통의 실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길, 즉 이고득락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선적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은 중생의 고통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선 사제(四諦)의 이치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사제'는 고(苦) 집(集) 멸(滅) 도(道)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를 또는 사성제(四聖諦) 또는 사진제(四眞諦)라고도 합니다.

'제(諦)'는 진실한 이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제'란 네 가지 진실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현실세계의 결과인 고제, 고통의 원인을 말하는 집제, 고통을 떠난 결과로서 멸제, 멸제에 도달하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도제를 구체적으로 서술해보겠습니다.

①고제(苦諦)

고(苦)는 총론적으로 인간세상 일체의 고통을 지적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론(大論)'에서는 "중생에게는 노(老) 병(病) 사(死) 등 세 종류 육신의 고통이 있으며, 또 탐(貪) 진(瞋) 치(癡) 등 세 종류 마음의 고통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원하는 것을 구하려 하나 얻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고, 미워하는 사람을 제거하려 해도 떠나지 않는 것이 고통이며, 공명사업(功名事業)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며, 설사 요행히 성공을 했다 해도 그것을 다시 잃을까봐 근심하는 것도 고통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계는 필경 일체 모두가 다 고통일 뿐(一切皆苦)이라고 파악하고 '고'야말로 유정세간과 기세간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를 두고 이 세계의 실상은 고통만이 진실한 모습이고 거짓 없는 이치라는 의미에서 '고제'라고 합니다. 이 같은 고의 모습을 분류하면 삼고팔고(三苦八苦) 내지는 한량없는 고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리=張如舟

내 몸 내가 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多注氣)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화춘),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과 마음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 자신 건강관리 / 따주기 사회봉사 / 건강 복 짓기 / 생활 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우주의 기운과 인간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신비한 수치의 비밀 ◆ 단번에 아는 남 · 녀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성명 분석 및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5.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 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9. 1. 17(토) 오전 9시부터 ~ 1. 18(일) 오후 1시까지
(1월 16일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 (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 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선착순 12명)
다. 장 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9기,10기 모집]

• 9기 : 1월 9일 금요일반 오후 1시 • 10기 : 1월 15일 목요일반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 책임 교육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9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소승이 지면으로 나마 합장하고 큰절을 올립니다. 이제 최면교육은 유마최면 연구소라는 명성이 스님들 사이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더욱 분발하여 책임교육·평생교육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소승은 초심을 잃지 않고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02)763-0661~2

★ 자기 최면 완성반 회원모집 ★ 수련기간 : 20회 (1회 1박2일 기준) 인원 10명
개인 맞춤식 프로그램에 의한 개인지도! 무의식에서 삼생의 時, 꼿을 넘나 드십시오!

번뇌가 바로 大道… 분명히 깨달아 중생 위해 살아야





> “미혹에 빠진 사람은 대상 그 자체가 空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깨친 사람에게는 본래부터 거스르거나 쫓을 것이 없다”

대연 거사는 승용차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보았다. 아침 8시 25분이었다. 새벽예불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스님들의 일상으로 볼 때는 이른 시각은 아니었다. 봉갑사 경내 풍경은 산길 중간에서 볼 때와 아주 달랐다. 비구름에 잠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절 앞에 이르자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법당과 요사채, 산신각이 연극무대처럼 가깝게 드러났다. 비구름은 산 정상으로 물러나 있었다. 법당 위쪽 산 9부 능선쯤에 있는 관세음보살상은 비구름을 타고 곧 날아갈 것처럼 보였다.

동자승들이 주차장 쪽에서 농구를 하다가 다가왔다. 공을 들고 온 동자승이 콩나물처럼 고개를 쳐들고 물었다.

“거사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주지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동자승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앞서 걸으며 대연 거사를 요사채로 안내했다. 그러나 대연 거사는 동자승이 가리키는 요사채로 가지 않고 법당으로 먼저 갔다. 불전에 삼배를 하고 다시 보각(寶閣) 앞으로 가 합장했다. 각안 스님의 말대로 네 마리 사자가 떠받든 법상(法床) 형상의 보각에는 혜암 스님의 사리가 봉안돼 있었다. 불빛을 머금은 사리는 돋보기 속에서 더욱 영롱했다.

황금빛 사리 4과, 흑진주빛 사리 1과, 흰 골편 2과가 업경대 너머에서 시선을 끌었다. 대연 거사는 이마를 마룻바닥에 대고 있는 순간 머릿속이 홀연히 헹궈지는 느낌을 받았다. 삼배를 하고 일어서 보각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자 이번에는 두 눈에 낀 헛것들이 떨어져나가는 듯했다. 찬물이 스친 듯 두 눈이 밝아졌다.

대연 거사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도 합장했다. 팔작지붕의 원당암처럼 생긴 보각의 모양 때문에 대연 거사는 살아생전의 혜암 스님을 다시 친견하는 듯했다. 혜암 스님이 환생하여 원당암 법석에 앉아 사자후를 토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고개를 흔들고 보니 스님의 사리는 몇 점 침묵으로 소소영영(昭昭靈靈)할 뿐이었다. 그렇다고 갑자기 환청에 사로잡혔던 것은 아니었다. 공방에서 테이프로 늘 들었던 ‘공부하다 죽어라’는 혜암 스님의 법문을 좀 전에 떠올렸던 것 같기도 했다.

“고요한 빛이 온 누리를 비추니 범부와 성인이 모두 한 집안일세.

한 생각 내지 않으면 나타나지만 분별을 일으키면 가려지네.

번뇌를 끊으려면 병을 더하고 보리(菩提)를 구할수록 사견만 일어나네.

모든 인연 부딪쳐도 걸림 없으면 열반이니 생사가 모두 다 헛것일세.

분명히 깨달아서 미래 겁이 다하도록 일체중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화두를 참구해 바로 눈을 떠야지 그 전에는 맹인이 굿하는 식이 돼서 저도 죽고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게 된다.

도를 닦는다 해도 참된 도를 닦을 것도 없고 법을 묻는다 해도 법이란 물을 것도 없다. 미혹에 빠진 사람은 대상 그 자체가 공(空)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깨친 사람에게는 본래부터 거스르거나 쫓을 것이 없다. 팔만사천법문도 그 깊은 뜻이 우리들의 작은 가슴속을 벗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본심을 분명히 깨달아 함부로 지방을 찾아다니지 않는다. 널리 배우고 많이 듣는 일도 없으며 재능이 뛰어날 필요도 없다. 나는 달이 크고 작음을 구별할 줄 모르며 윤년이 돌아와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번뇌 바로 이것이 대도(大道)이다.

깨끗한 꽃은 바로 진흙 속에서 핀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하더라도 함께 더불어 논의하는 일은 그쳐버린다. 아침 일찍 죽을 훌쩍 마셔 배를 채우고 낮에 한 차례의 식사를 할 뿐이다. 오늘도 손을 놓고 빈둥빈둥 내일도 빈둥빈둥 손을 놓는다. 내 마음속은 확실히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여하튼 바보나 멍청이처럼 살아갈 뿐이다.

대저 공부에 장애되는 것은 화두를 의심하지 아니하는 것이 큰 병이며, 아는 것이 큰 병이며,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이 큰 병통이니라. 다만 화두를 의심하는 것 말고는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두지 말지어다. 화두에 의심을 얻었을지라도 지견(知見)에 빠지면 병이 된다.

고요함이 극한즉 문득 깨치고 깨끗함이 극한즉 광명이 통하나니 기운이 엄숙하고 바람이 맑아 동정(動靜) 경계가 맑은 하늘 같을 때가 첫째 바른 길이니라.

이때에 더욱 화두를 잘 잡아 나가면 맑은 가을물 같으며 옛 사당의 향로와 같아서 적적성성해 마음 행하는 길이 끊어질 때 육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다만 화두의 의단(疑團)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점점 승하면 티끌이 녹아지고 광명이 장차 발현할 것이니 이것이 둘째 바른 길이니라.

만일 이것에서 아는 생각을 내면 한 결 같이 잘되는 것이 끊어지리니 크게 해로움이 되느니라. 이 허물이 없이 공부를 지어 앞으로 나가면 동정이 한 결 같고 자나 깨나 성성해 단지 화두만 나타나는 것이 비유컨대 물속에 비친 달이 파도에 흔들려도 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아 중심이 고요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천만 경계가 산란해도 움직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셋째 바른 길이니, 이와 같이 될 때 크게 깨칠 때가 가까우리라.”

물론 대연 거사 자신이 화두를 들고 참선 공부하는 수행자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다. 참선공부를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해 혜암 스님 법문을 듣곤 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대연 거사는 도자기 만드는 것을 수행으로 생각해 ‘공부하다 죽어라’를 ‘도자기를 만들다 죽어라’로 받아들였다. 누구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만 성취가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었다.

그런 각오로 도자기를 굽는 가운데 혜암 스님이 깨달음의 경험을 법문하는 바와 같이 맑은 하늘처럼 시원하고, 광명이 발해 눈부시고, 파도에 흩어지지 않는 달처럼 영원히 그 가치를 사랑받는 명품의 도자기를 하나 남긴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대연 거사는 법당 밖에서 동자승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일어났다.

“거사님, 스님께서 요사채에 와 계십니다.”

각안 스님이 문화원에서 돌아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대연 거사는 보각을 향해서 합장 반배를 하고 법당을 나와 요사채로 갔다.

“스님, 거사님이 오셨습니다.”

“아이구,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아침 일찍 오셨습니까.”

“혜암 큰스님을 뵙고 싶어 달려왔습니다.”

“솔명 동자는 어서 가 과일 좀 내오너라.”

방으로 들어간 대연 거사는 스님과 맞절을 했다. 방 벽에는 우리나라 지도가 네 장이나 붙어 있었다. 봉갑사를 기준 삼아 곳곳에 붉은 색의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있었다. 해마다 절의 대중과 함께 순례한 기도처를 그렇게 표시한 것 같기도 했다.

“보각 안의 큰스님께서 무어라 하시던가요.”

“저더러 도자기를 만들다가 죽으라고 했습니다.”

“하하하.”

각안 스님이 크게 소리 내어 웃었다. 그러더니 차를 우려 찻잔에 따랐다.

“도자기 만드는 삼매에 빠지신 것을 보니 이제 출가는 접으신 것 같습니다.”

“큰스님 2주기 때 원당암에서 스님을 뵌 덕분입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지 적극 만류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출가할 마음뿐이었는데, 스님 말씀을 듣고 숙고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곳에서 노스님을 뵌 인연이 있습니다.”

“원당암에서 노스님을 뵀단 말입니까.”

“스님과 헤어지고 난 후 원당암 가는 다리 위에서 뵀습니다. 저는 해인사 일주문 쪽으로 내려가고 노스님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노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출가 의지를 꺾고 말았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노스님과 약속입니다.”

“하하하. 말씀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솔명 동자가 방문을 연 채 쟁반을 들고 왔다. 밖은 다시 잿빛 하늘로 변했는지 어두웠다. 빗방울들이 싸락눈으로 변해 날벌레처럼 희끗거렸다.

“눈이 쌓일 날씨는 아닙니다. 포근해서 도로가 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보각이 낯익습니다. 원당암 미소굴에서 보았던 것도 같고.”

“맞습니다. 해인사 비림(碑林)에 큰스님의 사리탑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저 보각에다 사리를 모시고 있었지요. 저 보각은 원래 큰스님의 토굴이었던 미소굴에 있었던 것입니다.”

“보각을 보는 순간 낯설지 않았습니다. 원당암을 축소한 것 같은 느낌도 들었구요.”

“보각은 제가 원당암에서 살 때 설계했는데, 법상에 앉아 법문하는 큰스님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형상화한 것입니다. 내일이 큰스님 7주기인데 해인사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큰스님을 뵌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잠시 후 해인사로 갑니다. 여기서 해인사까지는 3시간 거리이니 아무 때나 출발해도 늦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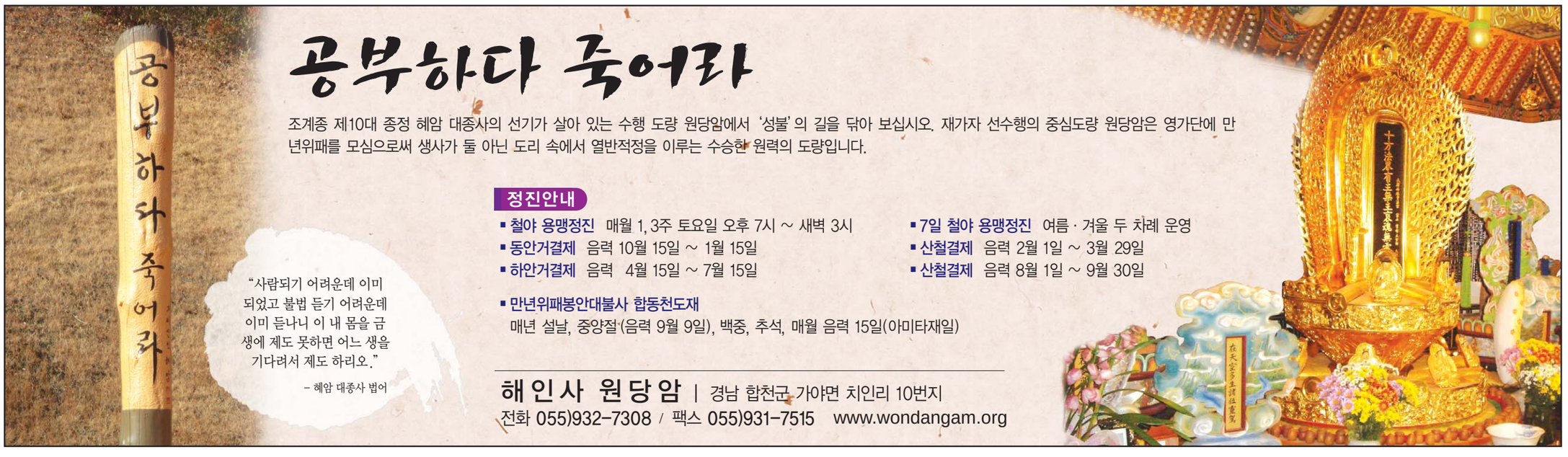
“스님, 봉갑사 경내를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연 거사가 사과 한쪽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서려 하자, 각안 스님도 찻잔을 서둘러 설거지했다. 대연 거사는 허공에서 춤을 추는 싸락눈을 서설이라고 여겼다. 혜암 스님의 사리가 봉갑사에 봉안돼 있다는 사실이 자신에게는 행운처럼 느껴졌다. 출가해 혜암 스님처럼 도인이 되고 싶었는데, 지척의 거리에 스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기 때문이었다. 법당 위쪽 금강저를 치켜든 동진보안보살상이 선 곳에 이르자, 싸락눈은 바람을 타고 날렸다. 벙거지를 쓴 각안 스님이 말했다.

“이왕 나오셨으니 저 위 적멸보궁까지 가시지요.”

보궁은 신축할 108법당과 지장전 위쪽에 있어 가파른 산길을 걸어 올라야 했다. 걸어 오르는 동안 싸락눈이 금세 함박눈으로 변했다. 변화무쌍한 날씨였다. 함박눈은 허공 가득히 나비처럼 흩날리다가 땅에 떨어져서는 곧바로 사라졌다. 드디어 사면불(四面佛)이 봉안된 보궁에 오르니 봉황 모양의 천봉산 산자락들이 한눈에 들었다. <계속>





"한국불교, 왜 이렇게 됐어?"

지리산의 무쇠소 고산 스님 글 | 조계종출판사 펴냄 | 2만8000원



'지리산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대강백의 사자후.'

갓난아기 시절부터 바로 위 누나를 밀어제치고 어머니 젖을 독차지했던 유별난 외고집쟁이가 있다. 한국불교 근현대사 60년 행장을 똑심과 혜안으로 불 밝혀 온 고산 스님(75)이 그 주인공이다.

1945년 범어사에서 출가한 스님이 불교 정화운동이 한창이던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절집 풍경과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170여 장의 근거사진과 함께 회고한다. 스님은 강원 강사와 법사 포교사, 율사 그리고 선사라는 특유의 전력으로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을 오갔다. 이 회고록은 現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전계대화상인 스님이 통영 연화도 연화사에서 반백년이 넘는 본인의 삶을 1600장의 편지지에 집필한 수행과 포교 원력이 빚어낸 이력서다.

<지리산의 무쇠소>는 과거 조선의 억불과 일본의 강점기를 막 벗어난 한국불교가 어떠한 과정으로 오늘날과 같은 신행형태에 이르렀는지 그 여정과 실명을 숨김없이 공개한다. 스님의 거침없는 입담 가운데 눈에 띄는 몇 대목을 보았다.

"부모도 모시지 않고 산중으로 도망간 도둑놈들아."

선방에만 틀어박혀 궁핍했던 이판승들과 달리 불교의식을 집전하며 풍요롭던 사판승들을 비구와 대처로 구분했던 당시를 회상한다. 고산 스님은 어쩔 수 없이 '청암사 정화불사'를 강행했다고 털어 놓는다. '비구는 부처님의 정통이요 대처는 정통이 아닌 비법'이라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한 바탕 정화가 끝나고 비구승만 살던 범어사에는 쌀이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급기야 120명 대중이 굶을 처지가 되자 도움을 받기 위해 사방으로 탁발을 다녔다.

"자네! 서울에 와서 조계사 주지를 맡아줘야겠네."

고산 스님이 도심에서 사자후를 외친 것이 1972년이다. 일요법회와 관음재일 지장재일 법회는 물론이고 청년회, 대학생회, 어린이 법회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서너 개 겹친 49재에 결혼식 주례까지 스님은 참으로 바빴다. 10년 강주 생활에 쇠약해진 몸은 주지 소임을 실행하면서 악화됐고 고심하던 끝에 <아함경>에서 '살찌우는 법'에 대한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다. '마음을 너그럽게 써라, 평소보다 밥을 많이 먹어라, 평소보다 잠을 더 자라, 교만으로 잘난 체 하라, 게으름을 피우고 놀아라'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법으로 한 달 만에 눈에 띄게 살이 찐 스님은 신도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이 전직 승려 걸레 중광 스님이 송광사에서 방장 구산 스님과 난동을 피우며 법거량하는 에피소드와 심지어는 스님의 연애담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독특한 이력은 무겁고 어려운 기존의 법어집과 달리 명쾌함마저 안겨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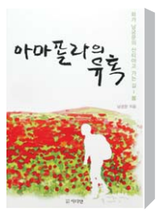
'낮에는 가는 비가 날리고 밤에는 큰 눈이 오는지라. 깜깜하게 어두움이 더하고 혹풍까지 떨치도다. 납자는 집안일을 알지 못하고 무쇠소는 한밤중에 동서로 달리네.'

쌍계사에서 설을 맞으며 산천과 도량에 가득한 눈을 바라보던 설중심우(雪中尋牛)는 오늘도 금강과 같은 지혜의 빛을 찾는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여행에 관한 다른 이야기







다양한 장르를 넘어선 이야기

라틴 그 원색의 땅에 입 맞추다

임명자 지음 | 다밋 펴냄 | 1만5000원

'삶의 모든 것은 필연이다.'

어디서나 가슴 부풀도록 황홀해지고 싶다고 말하는 낭만 시인이자 한 남자의 열혈 아내로 살아온 임명자 씨가 설렘 가득했던 남아메리카 여행담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일산 덕양선원 신도인 여류 시인이 정열의 나라 남미로부터 전해 주는 사람과 삶에 관한 마음 탐방기이자 자기 고백서이다.

저자는 라틴으로의 여행을 통해 내면의 자아와 쉼 없이 대화 나눈다. 고대 마야 인들이 바라보던 달빛 속에서 텅 빈 충만으로 가득한 자유를 느껴본다. 신비스러운 카리브 해안의 물빛을 따라 모래밭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명상에 잠겨 보기도 하고, 이곳저곳을 거닐다 만난 작은 인연에 '전생 어디쯤에서 아님 내생 어딘가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미소를 나눠보기도 한다. 눈부신 멕시코 예술이 뿜어내는 원색의 향연뿐만 아니라 삼바의 브라질, 다양한 인종의 뿌리로 풍요로운 문화를 가꾸는 쿠바를 돌아보며 형형색색을 내뿜는 라틴의 빛깔에 정신없이 빠져든다.

이처럼 종교, 역사,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저자의 이야기는 여행서를 읽는 즐거움을 넘어 연민과 같은 감성도 자극 한다. 여행지에서 만난 소박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하염없이 자아를 되돌아보게 한다. <라틴 그 원색의 땅에 입 맞추다>는 시인으로서 세 권의 시집과 음악 에세이를 펴낸 저자가 삶의 지천명(知天命)에서 선사하는 느낌표 가득한 변주곡이다.

가연숙 기자

아름다운 자연을 그림으로 담아…

아마폴라의 유혹

남궁문 지음 | 시디안 펴냄 | 2만원

'길이 알려주었다. 꿈은 그저 꿈이라는 것을….'

계절이 그 모습을 달리할 적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화폭에 담는 저자의 독백이다. <아마폴라의 유혹>은 붉은 아마폴라가 가득 핀 들판의 추억을 좇아 불안마저 설렘으로 승화하며 여행한 화가 남궁문의 그림일기다. 여름과 겨울 편에 이어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로 불리는 5월의 봄, 그 세 번째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자는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걸으며 겪었던 소소한 일상과도 같은 여정을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수채화와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통해 선보인다. 그 길을 함께 걷는 친구는 여행에 있어 배경이 되기도 하고 주제가 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솔직한 감정들을 주고받는다.

역사적으로 산티아고 길은 순례의 길이다. 이웃종교에서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야곱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길이지만 현대인에게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로 더욱 친숙하다. 길 위에서 펼쳐지는 에피소드들은 독자로 하여금 두 나그네와 동행 하는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아름다운 경치에 호들갑을 떨어보기도 하고, 캄캄한 새벽에 쏟아지는 폭우에 잠들지 못해 뒤척이기도 하면서 인생이 지닌 다채로운 빛깔에 귀 기울이는 한 편의 로드무비(Road Movie)다.

2001년 여름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걸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고행 산티아고 가는 길>을 펴낸 계절별로 세 권의 책을 냈다.

가연숙 기자

여행길에 만난 사람들 이야기

예정된 우연 수해 지음 | 호미 펴냄|1만3000원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길 위의 인연을 만나라.'

10년 이라는 세월동안 계획된 일정 없이 틈만 나면 훌쩍 떠나곤 했던 비구니 수해 스님이 동아시아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한 권의 에세이로 묶었다. 부처의 뒤를 따르는 수행자가 본성의 고귀함을 깨우치기 위해 수행의 방법으로 택한 행선(行禪)의 기록이다.

<예정된 우연>은 독자로 하여금 '현재 삶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동아시아 전역을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며 그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과 다양한 해후를 나눈다. 눈앞의 모든 현상이 내 자신의 마음이 비친 거대한 '허공거울'임을 알아가는 여정이다. 마치 자신의 마음 작용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듯하다. 일본, 대만, 티베트, 인도 등지를 누비며 우주시민을 자청한 스님은 이 모든 것이 기실 '예정된 만남'이라고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님의 행적은 사람 냄새나는 문학적 향기가 돋보인다. 사람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은 독자를 아련한 향취에 머물게도 하고, 예기치 않은 그리움을 선사하기도 한다. 여행자가 지닌 낭만과 고독이 경외감과 어울려 저자의 힘찬 발걸음을 따라 변주곡을 선사한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경전	일아 역편	민족사
4	성철스님 화두참선법	원택	김영사
5	인과경	현담	선
6	행복한 사람들	김천	하안연꽃
7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	대행	한마음선원
8	체험으로 읽는 티벳 사자의 서	강선희	불광출판사
9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10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정 정 공 고

지난 2008년 12월 10일자 현대불교에 공고한

속명 이상용 법명 능인 전 총무원장님과
속명 이규상 법명 혜일스님에 대한

공고내용은 잘못기재된 내용으로
총무원장님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에 이를 정정공고함

2009년 1월 2일

중앙연수원장 법 전
교육원장 지 도 호계원장 혜 봉 중앙선원장 명 등
원 로 회 지도스님 일동 중앙종회의장 덕 신 운 암

수 제 화
고무신코 만 행 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1월 25일까지 세종M씨어터 무대 올라

잃어버린 꿈을 찾아 떠나는

가족뮤지컬 손오공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게임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과 이 때문에 속 태우는 부모 자식 간의 분쟁 화두는 '게임'이다. 이를 겨냥한 가족 뮤지컬 '손오공'이 서울 세종M씨어터에서 1월 25일까지 무대에 오른다. 겨울방학 동안 집안에만 틀어박혀 게임만하며 노는 아이들 때문에 한숨 짓는 부모들을 위한 희소식이다.

뮤지컬 손오공은 중국 명나라 시대의 소설 <서유기>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삼장(三藏)법사인 현장 스님과 함께 한 손오공 일행의 모험담을 원작으로 한 대중에게 친숙한 소재다. 그 소설은 실제 629년부터 645년에 걸쳐 당나라 서안(장안)에서 중앙아시아의 사막지대를 통해 파미르고원을 경유해 인도에 이르는 길을 구법여행 했던 현장 스님의 17년간 기록인 <대당서역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당시 현장 스님의 화두는 "불법의 본의는 과연 무엇일까? 혹시 우리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코끼리의 전체 모양을 알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직접 인도에 가서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14세기가 흐른 현재, 삼장 법사는 서유기 마법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환생했다. 가뜩이나 반들반들한 대머리의 소유자인 삼장 법사 교장선생님의 머리숱이 부쩍 줄어든 이유는 마법학교 학생들이 공부는 안하고 게임에만 빠져있기 때문이다. 게임 챔피언 삼총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보다 못한 교장 선생님은 이들에게 게임 금지령을 내리고 잃어버린 자신의 꿈을 찾아오라는 숙제를 내준다. 인터넷 검색으로 꿈을 찾으려는 사오정과 꿈을 홈쇼핑에 주문하겠다는 저팔계. 과연 삼총사는 삼장 법사의 화두를 타파할 수 있을까?

더욱이 이번 공연은 뮤지컬 '그리스' 연출가로 유명한 정태영과, KBS 'TV유치원 하나둘셋'의 극작가 박수경, 뮤지컬 '나인'과 '지킬앤하이드'의 음악을 작 · 편곡한 원미솔 등 최고의 제작진에 의해 완성됐다. 초대형 닌텐도 게임기 형태로 제작된 무대 위에서 다양하게 연출되는 3D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펼치는 꿈을 찾는 모험은 '게임 세상이 아이들의 미래라면 지혜로운 긍정의 주체가 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02)399-1114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제7회 유심작품상 수상자 발표

김재홍 유안진 백이운 박찬일 선정


김재홍 교수.


유안진 교수.


백이운 시인.


박찬일 시인.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지관)는 '제7회 유심작품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현대한국문학 작품과 문학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시상은 △특별상에 김재홍(평론가, 경희대 교수) △시 부문에 유안진(시인, 서울대 명예교수)作 '성병(聲病)에 걸리다' △시조 부문에 백이운(시인, 시조세계 발행인)作 '지상에서 문득' △평론부문에 박찬일(시인. 평론가) 평론집 <근대:이항대립체계의 실제>가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8월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되는 만해축전 때 진행된다.

특별상을 수상한 김재홍은 1969년 첫 평론 <한국현대시 은유형태의 분석론>으로 등단, 40여 년 간 빈자일등의 마음으로 비평과 학문의 길을 걸어왔다. 계간 <시와 시학>을 1990년 창간 주재해 현재까지 72호를 발행했으며 지난해 11월에 한국시의집과 현대시박물관을 개관했다.

이가림(인하대 교수) 심사위원은 수상자에 대해 "쉼 없이 시 비평 분야의 균형 잡힌 저술을 30여 권 내놓은 것은 문학 연구사에 있어 보기 드믄 신기록"이라며 "만해 한용운 연구의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되는 그의 <한용운 문학연구>는 이러한 그의 비평 성격과 특징이 계시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연구"라고 평했다.

시 부문 수상자 윤안진은 1965년 故 박목월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등단, 한국의 민속을 시로 표현하며 불교를 종교 이전의 철학으로 삼아왔다. 시 '성병(聲病)에 걸리다'는 만해 한용운 선생이 강연 축사 등 여기저기 초대를 받자 "내가 드디어 성병(聲病)에 걸렸구나"라고 탄식한 것에 기인해 완성됐다.

최동호(고려대 교수) 심사위원은 "이번 선정작의 소재는 기독교적으로 하느님에게 고백하는 형식을 빌지만 주제는 명성을 탐하는 인간의 욕망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에서 나라는 존재가 과연 있는가라는 화두를 내세워 불교세계를 심화 한다"고 평했다.

시조 부문 수상자 백이운은 시조를 찻그릇 가운데서도 다완(茶碗) 같은 존재라고 비유한다. 작품을 통해 위로받고 때로는 도반이 된다고 말하는 그는 1977년 월간 <시문학>으로 등단, 한국여류시조문학회 상임이사, 한국시조시인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제현 심사위원은 "이번 수상작이 삶의 본질적 의미를 노래한 일종의 존재론적 시로서 불교적 세계관에 기대어 사물을 통찰하고 자아를 성찰하는 깊은 사유의 세계가 눈길을 끈다"고 평했다.

평론 부분 수상자 박찬일은 1993년 시인으로 등단한 이래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세계를 보여온 개성적인 중견 시인이다. 시와 시론, 평론에서 모더니즘 미학의 특성과 한계를 강조해왔으며 이번 수상작은 그동안의 탐구에 대한 결실이다.

이승훈(한양대 명예교수) 심사위원은 "휴머니즘의 비판적 입장에 선 그가 철학자 데리다(1930~2004)에 기대어 이항대립체계를 해체하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며 " 수상작은 근대라는 유령과 새로운 시 쓰기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평했다. (02)739-5781

가연숙 기자

한국현대시 100주년 기념 '아름다운 동행' 展

그림을 예술의 꽃에 비유 한다면, 시는 정신의 열매다. 한국 현대시 100주년을 기념해 시와 그림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展이 열리고 있어 화제다. 한국 현대시와 회화를 대표하는 주옥같은 작품들은 서울 종로 견지동과 관훈동에 위치한 본화랑에서 1월 23일까지 선보인다.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였고 시인이었던 한용운(1879~1944) 스님이 1926년 간행한 '님의 침묵(회동서관 간행)'과 화가 권옥연의 유화 '작은소녀'가 동행한다. 뿐만 아니라 시인 고은의 시 '그 꽃'과 화가 금동원의 아크릴화 '사유의 숲'이 어울리는 등 50여 편에 달하는 육필의 현대시가 그림과 어우러지면서 문화예술의 교감을 나눈다. 이번 전시는 한국시의집과 현대시박물관(관장 김재홍)의 후원으로 열린다. (02)732-2366

가연숙 기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문화 속 불교

월간 '불교문화' 제호 변경

문화를 통한 불교 포교를 화두로 발간해온 월간 <불교와 문화>가 2009년부터 월간 <불교문화>로 제호를 변경하고 새 출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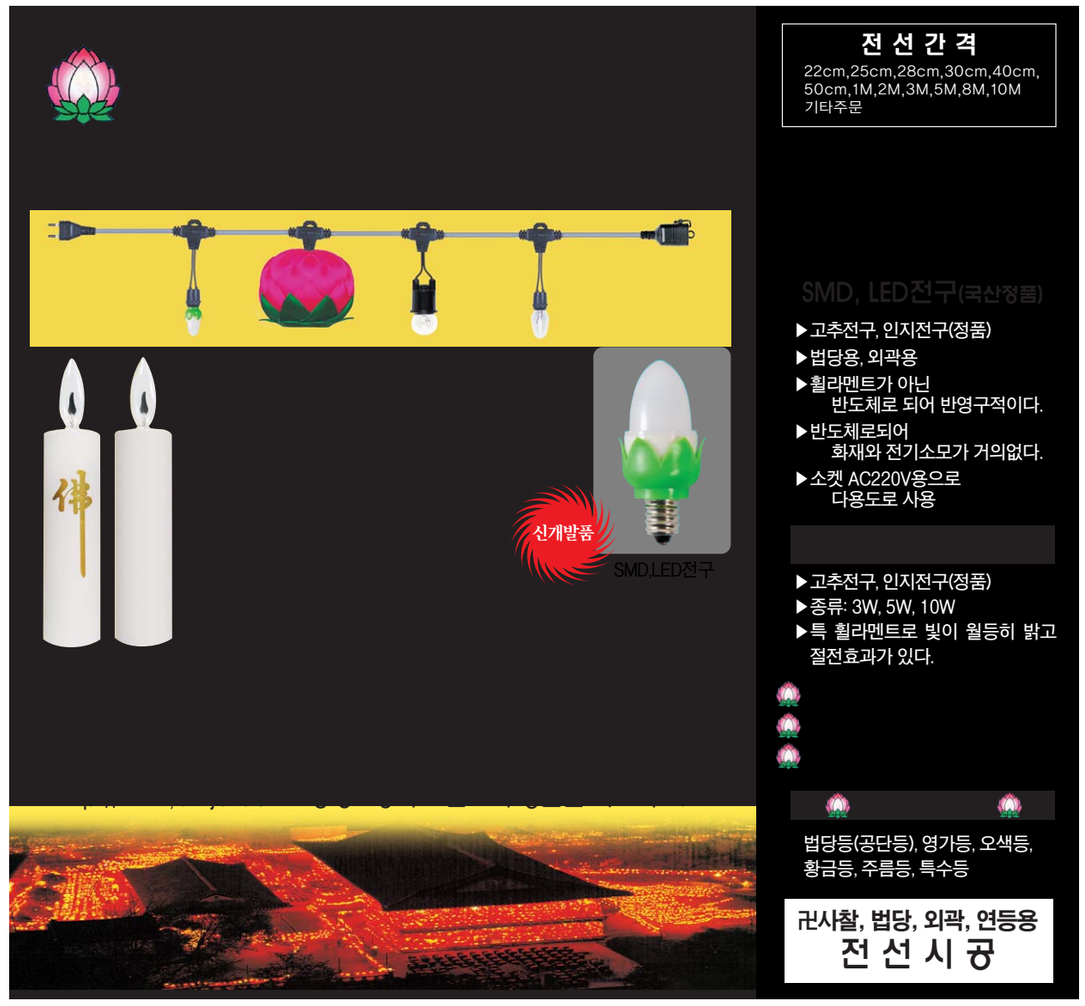
지난 해 12월호 100호 발간을 기점으로 시대의 흐름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불자만를 위한 잡지의 경계를 넘어 불교를 궁금해하는 일반 독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됐다. 판형을 기존보다 키워 보는 재미를 더했으며 분기별로 영문판을 추가 발간하고 인터넷 웹진(webzine)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보다 폭넓게 제공한다.

이번호에는 극작가 이윤택이 49재를 공연의 미학적 측면으로 해석하는 등 문화현장에서 만나는 불교를 통해 불교문화에 깃든 아름다움을 조명했고, 멕시코 국제불교영화축제와 (주)교양과행복 구병진 대표가 말하는 불교로 경제 읽기 등이 소개됐다. (02)719-2606

가연숙 기자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⓫ 윤삼촌네 밥이야기 2

콩나물무침만으로도 푸짐한 만찬

금요일 오전, 일산의 한 사무실에서는 어김없이 여섯 개의 상과 앉은뱅이 의자가 펼쳐진다. 재치 발랄한 입담으로 정신분석학을 가르치는 윤 삼촌은 상 밑으로 가지런히 뻗어진 여섯 제자들의 열두 족(足)의 풍경에 그저 흐뭇하다. "삶은 이미지의 연속"이라는 삼촌에게 그 이유인 즉은, 그 옛날 가난한 시절에 우리의 아버지들이 밤에 이불 속으로 삐져나온 자식들의 발을 보며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더라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기 때문이란다.



본 강의에 앞서 디지털적인 세상의 구조와 논리에 너무 빠지지 말자고 당부하는 삼촌, 그런데 산과 사랑에 빠져 사는 김 언니의 고민은 남달라 자신은 지나치게 아날로그 적이라 탈이란다.

"저기 박사님, 너무 디지털적이지 못하고 논리성이 떨어져서 혼란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업시간에 유일한 잠보학생이 겸연쩍은 듯 질문을 다하니, 스승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까지 한다.

"인간은 고정관념과 습관에 젖어 사는 동물이라 그 패턴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불안은 미래지향적이라, 익숙한 것에 벗어나려 하면 중력이 뭔지, 인력이 뭔지 안 벗어나고 자꾸 들어가려 한단 말이지.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에요…"

"그런데 인류가 50억년의 세월 속에 발달돼 왔다면서 그 불안요소를 완성하지 못했을까요?" 오늘따라 학구적인 열의에 가득 찬 김 언니의 질문에 "재미없어서. 완성되면 재미없으니까 계속 가는겨"라는 왕 언니의 해석이 촌철살인이다.

수업시간이 끝나고 이어지는 오늘의 밥시간은 왕언니가 집에서 만들어온 콩나물무침과 고구마순 나물로 더욱 푸짐하다. 봉사계의 30년 베테랑답게 마음 후덕한 왕언니의 나물에는 확실히 삶의 경력이나 부엌살림의 경력으로나 왕고참다운 연륜이 배어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아삭하고 맛있어. 소금에 무쳤어요? 양념해서 볶았어요? 집에선 이 맛이 안나거든"

흔한 재료인 콩나물만하더라도 그 아삭함이나 감칠맛이 분명 남다르니, 부엌살림계 후배들의 질문이 물밀 듯 쏟아지고, 왕언니의 간단명료한 설명이 이어진다.

"우선 콩나물을 씻어, 냄비에 안쳐, 양파 썰어 넣어, 소금 넣고 식용유랑 고춧가루 좀 넣어, 뚜껑을 닫아. 그리고 익는 냄새나면 뒤적거리는 거야. 콩나물에서 물이 알아서 나오니까 물은 따로 넣지 마."

"어머, 이 물이 콩나물에서 다 나온 거야? 완전 야채 국물이었네!"

색다른 비법의 콩나물무침 강의에 집중하느라 잠시 미동도 없이 고요하더니, 이윽고 쏟아지는 탄성과 더불어 "콩나물 삶을 때 뚜껑을 안 닫고 삶아도 이렇게 아삭하대"라는 원실언니의 추가정보까지 곁들여진다.

그 옛날 어머니가 해주던 시래기의 추억까지 더듬어 가는 속에 마냥 행복한 윤 삼촌, "나는 금요일날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낙이잖아. 밥은 내 평생 해줄게"라며 부산의 노모가 보내온 대구창자로 만든 젓갈을 맛보라며 권한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제히 젓갈종지로 향하는 젓가락의 행렬. 그런데 건강과 청결에 민감한 김언니가 "창자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라며 망설이니, "남들 먹는 건 무조건 같이 먹어. 죽든 살든. 그럼 살아"라는 왕언니의 촌철살인 2탄이 이어지고, 귀여운 오두방정과 내공의 입담 속에 밥상 위의 밥과 찬그릇들이 말끔히 비어졌다.

"참 박사님, 내 조카가 통영에서 굴양식을 해서 택배로 보내준다는데, 우리 한번 날 잡아서 굴 먹을까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은 굴 먹는 날로 하자구."

"원실아, 그날은 무랑 굴 넣어서 굴밥하자. 아니 그러지 말고 굴전은 어때? 계란에 슬슬 굴려 부치면 만들기도 쉽고 맛있는데…"

설거지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너무 미래지향적이라서 탈인 언니들의 궁리에 다음 메뉴는 통영산 굴로 일치감치 낙찰됐다. 아무래도 다음 주 금요일에는 스승이나 제자나 제보다 젯밥에 더욱 관심이 쏠릴 테다.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⓭



침향은 스님들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물

불상을 조성하는 등급 또한 7~10등급의 침향을 주로 이용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숙결' 등급으로 조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생성된 침향이라야 온전한 불상을 조성할 수 있고 신령한 기운을 낼 수 있다고 믿는 까닭이다. 또한 이러한 '숙결' 등급은 침향 염주로 가공했을 때, 특히 108염주의 경우 약성등급에 준하는 기운을 염주에서 느낄 수 있으며, 아로마테라피의 심신안정 효과도 겸해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외 16등급까지의 공예품 등급 침향은 조각품이나 장신구, 또는 각종 호신구로 가공해 몸에 지님으로써 침향이 지닌 부작(符作)으로의 효과도 겸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침향으로 조성된 불상

김호철 교수(경희대 한의학)는 연구를 통해 '침향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진정 작용과 수면을 촉진 시키는 작용이 뛰어나고, 스트레스 파를 알파 파로 전환시키는 기능이 뛰어나 특히 수험생들에게 좋으며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소화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고 전한다.

또한 침향의 기(氣)가 인체에 적용되는 예는 <본초강목>에서 장원소의 학설을 인용해 '침향은 인체에 작용함에 그 기운이 음(陰)과 양(陽)을 함께 보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본초품휘정요>에서는 '침향은 기(氣)가 후(厚)하며 양(陽)에 속한다'고 하여 인체에 유익함을 설파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침향은 상징적인 면과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면을 고루 갖춘 소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침향은 등급체계와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으니 바로 불가의 공양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신물이라는 점이다.

육법공양 중에 으뜸인 향공양은 그 내면적인 의미에 해탈, 희생, 화합의 뜻이 담겨 있다. 이는 <금강경> 속에 나오는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起心)의 '무주상보시'와 연관이 깊다.

'무주상보시'란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 때 아무런 바람(대가) 없이 베푸는 보시야 말로 참 공덕이라는 뜻이다. 이를 삼륜공적(三輪空寂) 또는 삼륜청정(三輪淸淨)이라 한다. 여기서 삼륜이란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 또는 행위를 말한다. 아무런 바람 없이 베푸는 마음. 침향은 이러한 이타(利他)의 정신에 부합된 불가의 상징적 신물(神物)이기에 오랜 세월 스님들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계속)



⓲ 뇌신경전달물질과 성격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인간 몸을 지배하는 것은 뇌가 만들어내는 마음

지난 호에서는 신경물질에 의한 성격유형을 알아보았다. 예를 들어 도파민(Dopamine)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은 스트레스와 쾌감에 관여하며 의욕, 의지 등과 관련 있다. 도파민이 없는 실험쥐는 먹이를 먹지도 않고 의욕도 없으나, 외부에서 도파민을 공급하면 반대로 동작이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가바(GABA)라는 신경 전달물질은 신경을 잠재워서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며, 흔히 안정제로 사용하는 디아제팜이란 약의 작용에 관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호에서는 나에게는 어떤 물질이 부족한지 그에 따른 처방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각 신경전달 물질 부족시 생기는 증상에 대한 심리적인 처방전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되면 : 기억력과 두뇌활동력이 떨어지며 타인과의 관계가 싫어지는 것이 주요 증상이다. 그러므로 두뇌 활동을 다시 왕성하게 하고 생기발랄함의 획득이 주 관건이 된다. 새로운 것을 공부 해보도록 학원을 등록한다든지 독서, 전시회, 음악회 등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자극을 받고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과 두루 접할 수 있는 곳을 다녀본다. 또한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자비할 수 있는 마음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애완견을 기르며 의도적으로라도 노력한다.

세로토닌이 부족하게되면 : 우울증과 자기상실 자기학대 즐거움의 소멸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난다. 새로운 곳에 흥미를 느끼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능한 혼자 있는 시간은 줄이고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자꾸 웃도록 노력해야 한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세로토닌은 생성된다. 물론 따뜻하고 밝은 햇볕을 충분히 쬐어주는 것과 오메가 섭취는 기본이다.

도파민이 부족하게되면 : 갑자기 살이 찌고, 집착심이 강해지며, 알콜중독 등 아주 반항적이거나 극도로 수줍음을 타게 되는 것이 주요 증상이다. 주변 사람들은 항상 이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고 마음다스림으로 '나는 매사에 자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일은 잘 될 거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주문한다. 또한 봉사 단체 같은 곳에 가입해 자신의 입지 존재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바가 부족하게되면 : 불안, 짜증, 산만, 부적응이 가장 문제다. 흩어진 내면의 에너지를 한곳으로 안정되게 모아야 한다. 명상, 좌선, 참선, 국선도, 요가 등 고요한 수련을 하는 것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 또한 명상 음악 등을 듣고 다도를 배운다든지 조용한 사찰 등을 찾아서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한다.

 # 이상증상에 대한 근본을 끊는다는 것

선수행(禪修行)은 신경증적인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 장(場:field)인 마음을 뿌리부터 제거하려고 노력하기에 치유된 심리적 병이 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없애준다.

<불설의유경(佛說醫喩經)>에서는 병의 근본을 끊는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병의 근본을 끊어 다시 나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그 병의 근본을 알되 이런 증상은 이렇게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부지런하고 용맹스럽게 그 법을 감행하여 잘 끊어 버리고 그 병이 다시는 나지 않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현대의학에서는 인간의 몸을 지배하는 것은 뇌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이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는 표현을 쓰곤 한다. 이 같은 느낌과 감각에 대하여 뇌의 작용으로서만 그 구조를 완전히 묘사할 수는 없다. 이런 복잡한 체험, 학습 등과 같은 고도의 뇌 기능과 마음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완전한 지식을 획득해 고통 없이 병의 근본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날이 올수 있길 바래본다.

모 연 문

불 · 법 · 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불타의 혜명을 이어갈 갈암불사의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불초 소승의 원력이 눈밝은 불자님들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발원하옵니다.
1993년 현 대열사(구,고래암) 땅을 매각하였습니다.
절을 짓고자 하여 알아보니 국가 폐천부지 땅이라 허가가 나지 않아 15년 컨테이너 생활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2008년 12월 31일에 국가 폐천부지 땅을 매각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만큼 땅값이 올라 큰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매각하지 못하면 15년의 세월이 물거품 되게 됩니다. 부디 땅 불사가 되어 천년만년 이어나가는 사찰이 될 수 있도록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주지 덕경스님은 기도도량 각시바위 밑 천일기도로써 불자님들이 성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에 정진하겠습니다.

주지 **황덕경** 합경

주 소 : 경남 마산시 진북면 지산리 433-70번지
전 화 : **055)271-9141 / 010-9312-7473**
입금계좌 : 821120-52-102139 농협 [예금주 : 신지선]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 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 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296-7806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사)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영남불교예술대학을 설립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모집학과 및 정원

모 집 학 과	강 의 내 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화	2시~5시	30명(6개월)
의식 중급반	이론및실기,사물다루는법 (대령,관욕,시식등)	수	2시~5시	30명(6개월)
의식 전문반	짓소리,전통예능등 통합반	목	2시~5시	20명(1년)
작법무반	바라,나비,사찰학춤	금	2시~4시	30명(6개월)
국악기반	태평소,단소,대금 (영산회상,청성곡등)	금	4시~6시	30명(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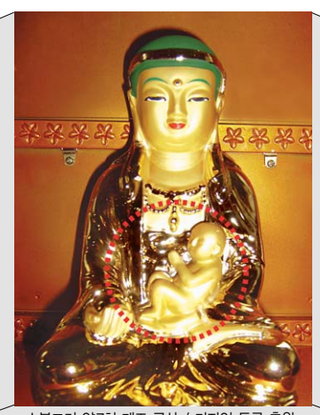
◆개 강 일 : **불기 2553년 기축년 양력 2월 3일 오후 2시**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내 영남불교예술대학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 010-2314-1279**
◇ 기숙승방 운영(선착순 우선) : 단기 수련 후 심사 거쳐 이수증 발급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부설
嶺南佛敎藝術大學
Young Nam Buddhism College of arts

※ 각종 사찰행사 전문으로 하는 문화재 이수자스님 전국에 배정되어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마음의 힘이 모이면 어두운 길에 환한 등불이 됩니다.
(보시금중 일부는 생명 나눔 실천 기금 및 장학기금에 쓰입니다)
010-2314-1279 , 051)327-5095

주지스님께 권합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아래 태아영가를 정성과 사랑으로 품에 안고 극락왕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장보살님(소불)을 법당에 모셔두고 낙태영가 천도대신 지장보살님을 한 佛씩 모시도록 권장하시면 쉽게 동참하시여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불크기 약7치 제조 국산 / 디자인 등록 출원

문의전화
051)336-9922 / H.P 011-567-2626

부산 북구 법정사 주지 합장

계좌번호 : 농 협 177467-51-075633 법정사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새마을 1615-09-045513-6 법정사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 (4.4×4.4) 4만원, 1Box (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CBC108.TV 연합불교방송
•법문, 법회 촬영 •방송
•홈페이지 제작/네트워크구성
•DVD 제작 •이미지 사진 촬영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 천도재 · 점안법요식
사찰노래자랑 · 음악회 기획
www.CBC108.co.kr
02)837-2003/011-356-3427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염불,불공해드립니다
49재(입재,회향),천도재,
점안,예수재,수륙재,
구병시식,각종불공
(바라, 승무춤)
016-238-6215
선 연 화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 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근불교전통의식근
부처님 점안식 · 이운식,
불공.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산신기도,
방생기도, 작법,바라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 원효 -
010-4007-0178

역학 빙의 퇴마법전수
1.역학 실제감정위주로 1주일 비법전수
2.내용:명리학,주역,매화역수, 풍수지리,성명학
3.빙의 퇴마법 속성 비법전수
4.귀신들린병 퇴마 잘해드림
관음정사 도통스님
010-7443-3060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근 금 명 사
원인불치병 · 산소처방
혼사지연 · 영통부적
시험각종비법
하루전 예약상담
농협 071-02-217956(이민혜)
010-4185-8853
010-2037-8857

퇴마심령기(氣)치유
빙의,신병,두통,치매,우울증
정신질환,알콜중독,환청,불면증등
•불안공포,악몽,위장병,우환,만성질환,부인병등
•각종치료나 천도재를 해도 효과 없는분
※나쁜기운을 빼면 팔자가 바뀝니다.
031)321-9555 일광사
011-586-6091

수비 경련주사
019-254-6320
다음카페 : 대삼물산

큰 법력으로 사물 · 바라 · 살풀이 무,극락무,지전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 한문 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 및 불상,불화 점안 각종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50대 초반 비구승 무불 합장

대한불교도서관 설립준비 중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책 불사 받습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 도서관 추진위원회
010-7625-4455

총무원에서 비구니스님 모집 교육(45세 이하)
063)353-1232
010-9991-2671

불사금 발원
불사금으로 소승에게
1억원을 쾌척하실
불자님을 찾습니다
010-3116-1992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유경험자 우대)
▷김해
010-4580-2323

비구니 노스님 모십니다
계룡산 묘광사에서 노후의 삶을 함께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산세좋고 물좋은 깨끗한 도량
일부 시주금을 받고 종신제
전화 041)857-5828
010-2303-7176
정현스님

행자 모집
스님되기를 원하는 분
수행하면서 공부하실분
(30~40대 남자)
063)836-8047

50대 중반 비구승 입니다 부전자리 원합니다
010-8537-0108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월보시금 100만원)
▷울산
052)275-0829

도심속사찰 함께 운영하실 보살님
영을 보시는분이나
철학,역학을 보시는분
051)513-7704

최단기 숙직교육 수료후 포교사, 법사, 비구,비구니스님 되실 분
한국 불교의식대학
011-789-7474

작은 암자나 토굴 월세 없이 전세 보증금 조금 받으시고 임대해주실 인연바람
도량 관리 잘 해드리겠습니다
010-3282-1323

경북지역 천년 고찰에서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27-0637

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경험자)
▷대구 개원사
016-400-066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진주시 남성동 호국사
055)741-4394
011-876-5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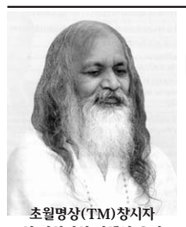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5)863-4143
011-392-6885

스님 하실분
(신원확실한사람)
공양주 구함
011-579-6444
051)721-0449

60대부부 사찰 입주 원함
(공양주. 운전가능)
신심 불자 입니다.
관사나 별장관리도 가능
010-5552-1191

50대 비구스님
법랍 25년차, 영통 및 사주역학통달
각종불교의식 및 천도재 기능
친견 상담 및 사찰운영
도울수 있는 도량 연락바람
010-3189-342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 북구
052)313-5908


초월명상(TM)창시자
성 마하리쉬 마에시 요기

견성 체험 / 쉽다, 빠르다 - 이미 세계 6백만 애용!
초 월 명 상 (TM)
"깨어있는 휴식이 곧 깨달음이다" - 능엄경
하버드 의대, 일본 노동성 등 600여 연구 효과입증
잠보다 3배 깊은 휴식 / 삼매경, 자아완성(깨달음)
두뇌의 질서성, 집중력, 창의력 증가 / 노화역전 / 스트레스, 불면증, 고혈압, 우울증 퇴치
〈지도자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www.초월명상.kr
한국초월명상센터 ☎ 02)598-3152 지방 010-7443-1296 (예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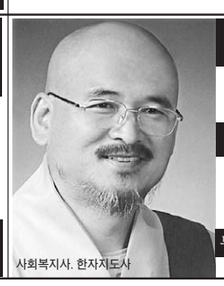
새 벽 소 리 茶
30여종의 한방원료로 발효 추출 과정을 거쳐 인체에너지 활성에 유용한 40여종의 성분을 뽑아내어 성분검사까지 받은 제품입니다.
풀잎뿌리식품 새벽소리茶
◆구입문의 041)673-8860 ※판매금액은 불사금으로 사용합니다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불광종 입종안내 행자 모집
종단 민속철학협회소속없는 스님법사 보살 철학사입종환영
법당 철학 신당에 빌어도 천문이 열리지 않아 신을 띨까 법당 폐문할까 고민하는분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 · 불명짓는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관음시식 · 구병시식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제작
(농협계좌) : 150022-51-167171(예금주 : 한국불교불광종)
국제역술협회입회환영주소 : 대구시 서구 내당 2,3동 923-142
전화 : 053-561-4440, 011-9422-1885 F.524-3644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어떠한 문제점도 28숙 기도로 다 해결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회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 국 택 배 가 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 학 공 부
● 사주초급 : 1/7(수) 18:30 ● 개강 : 정도형 선생
● 전문가반 : 매주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 수료증 자격증
사주 전과정 45만원.한국역학협회
월간역학교육원 (02)2264-0258

효사 육임 각 「활용서」 · 「CD프로그램」 · 「육임강론」 완결 · 최종판 출시 · 교환 안내

- 수 백 권 (數 百 卷) 의 일 반 역 서 (易 書) 들 과 비 교 될 활 인 서 (活 人 書) 가 아 닙 니 다 -

"저는 금번 적중도 · 효과성 · 간편성이 보장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활인천역자용 활용서 · 학습서 · CD프로그램을 그동안의 꾸준한 증산진화(增刪進化)끝에 드디어 名品으로 완결시켰습니다. 또한 이전(以前 : 2008년 8월 기준)의 제 모든 저술 육임 활용서 · 학습서 · CD프로그램을 가격 고 · 저에 불문하고 아래의 "책"과 "CD프로그램"으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 고복자 효사 -

- 고도의 적중도와 효과성이 담보된 임상 실기 · 활용서
曉 史 六 壬 刪 策 최종판
정가 250만원 · 교환 90만원 [출시중]

- 원 터치 기능으로 기선제압이 제고된 활용 CD 프로그램
曉 史 活 人 天 役 集 완결판
정가 450만원 · 교환 70만원 [출시중]

- 오술지중제왕(五術之中帝王)육임 종합학습 · 활용 제8판본
曉 史 六 壬 講 論 集 최종판
정가 45만원 · 교환 35만원 [출시중]

- 육임사주 학습 · 활용편으로 사주학의 신차원을 개척시킨
曉 史 六 壬 四 柱 鑑 定 法
정가 20만원 · 교환불가 · 학습 · 활용서로 구분됨 [출시중]

■ 권수선택 : 1권짜리(60갑자 60일치 영구사용 합본) ■ 6권짜리(60갑자 각 순별 10일치씩 영구사용 분권) ■ 60권짜리(60갑자 각일별 영구사용 분권) ■ 크기선택 : A5(휴대용) A4(좌정용) A3(노안용) ■ CD장착 PC : 집무실 · 숙소 · 노트북

◎ 위 「효사육임산책」 최종판 각일 각 방문 시간별 구성내용

1. **왜 왔는가?**를 온 시간 밑에 일일히 써 놨습니다.
2. **어떤 정황(情況)인가?**도 각 시간마다 일일히 써 놨습니다.
3. **일 방해하는 작사귀(作事鬼), 병 일으킨 병귀(病鬼), 동티나게 한 부정빌미(不正邪祟), 가쇠(家衰)의 산소탈(山所脫) 중 어떤 침범을 받고 있는가?**도 일일이 써놨습니다.
4. **이 귀신 · 부정 · 산소탈의 침해(侵害)를 수법(修法: 천도 · 구병시식 · 고사 · 굿 · 부적 · 양법 등)으로 해소 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효험이 있게 되는가? 기도나 치성일수를 몇일로 해야 영험할까?** 등등까지 써놨습니다.
5. **귀신의 종 · 명(種 · 名)은 무엇이고, 부정빌미 이유는 무엇이며, 산소탈은 누구의 어디 있는 묘지이고, 묘지 물형좌 · 묘지앞 경관 · 좌향 · 묘지속은 어떤 상태인가?**도 세세히 써놨습니다.
6. 효사 **초사(初辭)**와 **직지요결(直指要訣)**을 한면의 상하(上下)로 배치, **내방자 심중을 정곡으로 찌를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가히 백미 올시다.
7. **신변 · 가정 · 사업 · 직장 · 대인 · 남녀관계의 비밀한 사안까지 순차적으로 지적**해 놓고 **그 개선 방침도 제시** 해 놨습니다.
8. 내방자 각인의 **띠별 운세**(귀인길사자 · 직록길사자 · 승진 · 상매길사자 · 병자 · 관재자 · 빈궁자 · 불성자 · 산기자 · 본인재액 · 육친재액 등)를 **일일히 기입해 놓았습니다.**
9. 승부사승좌(勝坐向) · 천성선악인 · 계획사성부(成否)를 방문시간마다 한 눈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10. 항목(項目)별 문답(問答) 단정(斷定)을, 모방 · 공명 · 구재 · 시험취직 · 가정 · 혼인 · 출산 · 이동 · 소송 · 질병 · 여행 · 가출 · 소식 · 가격 · 투자 · 도난 · 채용 · 경작 · 기후사 등 22가지로 분류시켜 달아 놓았습니다.
11. **「효사육임1년신수비결」**을 보정하여 매월의 길흉사는 물론 내 · 외변수 사건까지 명시해 놓았습니다.
12. 최신간행된 **효사육임사주감정법**을 재정련시켜 명운(命運)과 대 · 세 · 월 · 일운이 한눈에 판별 되도록 구성시켰고, 당해운에 있게 되는 질병종류와 육친(부모 · 형제 · 처 · 자식)의 길흉 해당사를 밝혀 놓았습니다. 가히 정수(精髓)입니다.
13. **「육임궁합법」**을 적용, 내방자의 배우자 운세 팔자를 한눈에 살피게 했고 평생관계를 적시해 놓았습니다.
14. **내방자가 온, 또는 전화한 그 해당 시간에 의해 위와 같은 사정들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적중도에 희열**하는 육임학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매우 쉽고도 허실없이 구성시켜 놨습니다.

◎ 위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완결판에 장착된 내용 명세

육임산책 CD	(분개판매)	250만원
육임대계전서 CD	(분개판매)	200만원
육임1년신수비결 CD	(분개판매)	100만원
육임길흉성부단정 CD	(분개판매)	50만원
도사에게물어봐 CD	(분개판매)	50만원
출산길일길시택일비법 CD	(분개판매)	50만원
효사숙사주 CD	(분개판매)	70만원
성명학 CD	(분개판매)	50만원
매화역수 CD	(분개판매)	30만원
부적보감 CD	(분개판매)	30만원
동의보감 CD	(분개판매)	10만원
월영도 CD	(분개판매)	30만원

◎ 위 외 권장 활용서의 주문도 받습니다.
• 오행제례의식집(최신판) 1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법 12만원
• 도사에게물어봐(최신판) 5만원 • 육임내정비법(개정판) 35만원

◎ 보고 판단하게한 육임학에서만 가능한 육임 사주법!

사주학의 역사는 깊다.
인간의 천부적 종성(種性)을 파악하고 향방(向方)의 길흉화복을 예지하는데 있어 매우 탁월한 술 · 학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사주학의 선호도는 그동안 다른 오행술과는 월등한 차이를 두어왔다. 사계의 많은 선 · 후학들이 사주학을 했고 또 가장 먼저 입문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조금만 사려해보면 사주학의 한계를 짚어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내밀한 문제들에 대한 간결한 판단이 곤란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행술학이란 「안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게 되는 현상」을 예지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들이 묻고, 필요로 하는 것들, 사람들이 과거에 겪었고, 현재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사장들을 구체적으로 예언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바, 사주학은 인간에게 내재된 개체 존재로서의 품수성질이 무엇이며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용이한 변별이 가능하나 사람들이 당면한 사건, 사안들의 성부단정에는 미흡함을 면하지 못한다.
특히, 현대인들의 삶은 「속도성」의 가치가 매우 커져서 길흉 · 성부 · 진퇴에 관한 좀더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사주학의 이러한 제한성을 어떻게 극복시키고 정확한 속도성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 즉 시대성에 입각한 일건적(一件的) 판단들에는 사주보다 앞선 역사를 가진 육임학의 기궁과 천장의 적용으로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다. 사주는 일생적(一生的) 판단이 장점이요, 왈가왈부(曰可曰否)가 단점이고, 반면 육임은 일건적(一件的) 판단과 정형화가 장점이기 때문이다. 여기, 사주학에서 간과하고 있는 몇가지 무리 없는 육임법칙에 의한 응용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육임가나 사주가나 할 것 없이 한층 심층적이고도 구체적인 길흉 · 변수의 변별이 가능하도록 하고져 한다. 육감가는 한 수 더, 사주가는 크나큰 진화가 꾀해질 것이다...

■ 이상 주문 즉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육임학회 서울본회 02-833-8683 담당 : 정용철 (우리1002-037-559214 정용철) / 부 산 지 회 051-908-8683 담당 : 진세리 (농협 121059-56-023257 진세리)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
● 법당 : 50평	● 법당 : 24평	● 법당 요사 : 160평
● 요사 : 60평	● 요사 : 24평	● 부지 : 62평 (역세권)
● 부지 : 800평	● 부지 : 560평	● 가액 : 15억
● 가액 : 13억	● 가액 : 6억	● 위치 : 인천지역
		● 법당 요사 : 125평
		● 월:1억 / 300 ● 양도가 1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산신각
● 요사채20평+10평+10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뉴타운 개발지역
● 가액 :9억

천왕봉 밑 마당 넓은 절
● 대지총평수 : 2100평
● 법당 약 30평, 요사채 방8
● 주지실 30평 전통기와양식
● 따뜻한 지리산 자락(정남향)
● 산세수려, 계곡물 철철
● 양도가 : 6억 5천만원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동
● 3층 중 2층, 약 60평
● 법당1,방2,주방,화장실2
● 삼존불, 소불25불, 기타시설완비
● 몰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6000만원,월60만원 (전세가) / 시설비 없음
019-567-836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일산 중산동 (중산근린공원 부근)
● 7층건물 중 3층 약 109평, 법당, 방5개, 사무실, 주방
● 보증금 2천만원,월100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 즉시 법회가능,모든시설완비
011-268-0727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 평수 : 54평
● 거실,방2칸, 공양간,사무실大, 법당
● 아미타불, 소불(小佛) : 50분 후불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1500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 건강문제로 급 양도
011-238-399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시설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전세만가능 시설비 상담후 절충
010-4199-0047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이천에서 여주 15분 서울까지 40~50분거리
● 4층 빌라 중 4층 24평
● 전세 2500만원
● 포교운영하시도록 저렴한 금액으로 드립니다
● 즉시입주가능, 시설 좋음
010-6880-880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지하철 2호선 역 앞
● 평수 : 약 100평, 법당 50평
● 산신각, 삼존불 모셔져 있음
● 보증금 5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3천만원 (시설 일체 완비)
011-291-1536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임법당 1칸, 주방 1칸 방 3칸, 시설비 약간 답사 후 절충
● 전세 2,000만원
02)934-3352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시 얼음골 근교
● 평수 : 약 1만평
● 명산 계곡절경, 경관수려
● 가액 : 8억
010-4876-5535
011-877-767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함안군 군북면
● 총대지 약 407평
● 법당1, 요사채2, 주방 거실,화장실
● 가액 : 9천 8백만원
● 집기,비품필요하신분 별도 양동함 시설비 2천2백만원
011-439-9059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 법당 25평, 삼존불,
● 대지 600평,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8천만원 (융자 가능)
010-9798-1091
영주불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천 중동역 3분거리
● 평수 : 약7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010-6332-911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 평수 : 71평(3층건물 중 2층)
● 구조 : 법당46평, 방3, 주방1, 화장실2, 욕실1
● 보증금+시설비 : 3200만원 월 62만원
● 타지역 불사 관계로 급 양도 시설 A+급. 천일기도중
011-9906-036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양목역앞
● 평수 : 약45평(시설깨끗함)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 2층건물중 2층(옥상사용)
● 아주 조용하고 생활하기 편리한곳
● 보증금 1,5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100만원(절충가능)
054)974-0307
017-217-1919

부 산 대 사 찰

● 한옥법당1동, 한옥요사3동 명부전1동,산신각1동,종각1 화장실2동,창고 2동,석불, 약사여래불 15층, 용왕당
● 지하수, 산수도 사용 절내 주차시설 15대기능 심야보일러 사용
● 대지 780평, 가액16억
051)862-0108
011-563-1545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37-658번지 (인천 도심포교 최고요충지)
● 인연있는 스님기다립니다
● 법당 20평,방大1,방小2개, 부엌, 화장실2,심야보일러실1개
● 시유지 600평사용 가능
● 가액:1억 5천만원
032)428-0523
011-891-2933

도 심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 대지 : 318㎡
● 법당 176㎡(58평)
● 요사채 386㎡(128평)
● 가액 : 15억원
010-4752-8822

사찰 (급) 안내

● 위치 : 보문동
● 대지 : 160평 법당45평
● 산신기도 토굴 40평
● 요사채130평, 해우소 별도3개
● 2층건물중 1,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입니다
● 전세가 : 5억(시설비 포함)
018-575-4002

지리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30평,요사30평,산신각2.5평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 6천만원(절충 가능) 전세 및 대출 일부 후불 가능
011-9393-4965

도심(빌딩)속 포교원

● 위치 : 경남 창원
● 평수 : 72평
● 모든시설완벽
● 가액 : 1억 8천만원
055)274-422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역 2분거리
● 최근 개원, 사정상 급매
● 상가 3층 중 2층 50평
● 법당,주방, 거실, 방2, 욕실2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 시설특A, 냉난방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5천만원
010-3116-1992

불교사업을 같이 하실분

① 모든 시설 및 준비는 완료상태임
② 약간의 자본을 투자하실분 (처사님 및 보살님에 한함)
③ 정말 좋은 사업임
010-2203-092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초량2동 (초량시장 내)
● 3층 건물 중 3층(50평) 법당, 삼존불 거실, 방 2개(시설완비)
● 몰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1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51)466-7237
010-5493-3374

사 찰 안 내

● 위치 : 북한산 정릉
● 총 500평, 법당 1 요사채 6개, 시설완벽
● 가액:1억원(시설비+보증금)
010-3422-2575

고급 단독주택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새로 시작하는 불자님 가족에게
● 위치 : 전주 시내 중심 단독빌라,아파트 밀집지역
● 단독주택 대지 65평
● 건평 35평, 큰방2, 작은방2 거실, 욕실, 화장실 2 구조 현대식 아파트 형
● 특징 : 집안 잔디 나무 꽃 있음
● 가액 : 1억 4천 5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지하철역 3분거리)
● 4층 건물 중 4층 40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용신탱화, 각종 호신불 모든시설 갖춰져있음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00만원,월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011-223-7757

포교당 급인수할분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동상동 재래시장 근처
● 평수 약 50평 4층 건물 중 3층 법당
● 보증금 3백만원,월42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신설법당, 스님사정상 '급'
● 아미타5자,지장,관음,약사 시설완벽, 거실 큼
055)335-0314

사찰안내 (불자하며 분할가능)

● 위치 : 경북 고령, 국도변 대구~30분
● 대지 : 약 800평,건75평(복합건물)
● 법당 : 약 25평, 삼존불, 방 7개, 주차장, 텃밭약 500평
● 요양원,영옥사리불(납골), 5000불 안치계획
● 양도가 : 융자(9천 7백)안고 1억 5천입주(시세절반값)
◆ 위건물과 별도 : 대142평, 건30평 신축(암자가능 7천입주) 융2500만원
017-501-2315
053)471-312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양산의 중심지
● 4층건물중 3층
● 평수 : 54평
● 법당 1개, 방 4개 시설 특 A급
● 전세3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품비 확인후 절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개인사정상
055)365-3562
010-2553-8827

포교당(급)안내

대중 소임 사는 관계로 포교당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평수 56평, 법당, 방 3,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 /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0-6739-642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시내
● 평수 62평
● 삼존불, 탱화 등 모든 시설 완벽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 보증금 1천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2074-9335

사찰운영에 동참하실분

● 위치 : 경주. 꽤 큰사찰 희망적 사찰
● 소자본 투자 가능한 처사님 및 보살님을 찾습니다 (담보물 제공)
011-579-735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덕천 1동 큰도로변 1층
● 평수 : 약 20평
● 삼존불 기타시설완비
● 가액 : 답사후결정
● 스님 급한사정으로 양도하고저 함
016-403-005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개포4동
● 5층 건물 중 3층
● 총평수 43평,방2개
● 보증금 4천만원,월2백만원
● 불사 관계로 급히 양도함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2)579-3690
011-9129-90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의왕시
● 평수 : 24평 (법당, 방2, 거실 : 공양간)
● 보증금 : 1500만원,월65만원 시설비 : 상담후 절충
● 즉시법회가능, 모든 시설 완비
010-2082-849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내
● 대지 80평, 법당 15평
● 요사채 방 4개,주방 2, 거실 1,욕실 1
● 가액 : 2억 3천만원 (절충가능)
● 전세, 월세 가능함
● 주인직접
011-792-8969

사 찰 안 내

● 위치:전북 김제시 순동 127-1 (전주, 군산, 익산 20분거리)
● 대지 : 416평, 요사채 약 50평 (옛날구옥 : 문화재급) 2층 벽돌기와집(총 60평) 1층 40평 법당 20평, 2층 20평
● 경관이 수려하고 조경수 좋은 정원있음
● 가액 : 1억 8천만원(절충가능)
063)547-8895
016-9231-5355

토 굴 안 내

● 위치 : 포항시 북구 신광면 흥곡 2리 518번지
● 시설 : 집 외부는 적벽돌 이중으로 황토를 입혔고,집 내부는 심야전기, 기름보일러,온돌로 황토바닥이 되어 있음
● 부처님과 탱화가 모셔져 있음. 비구니스님이면 좋겠음.
● 튼튼하고 아늑하며, 우풍이 없고 공기와 물이 좋음.
● 평수 : 대지 102평, 건물 35평
● 특징 : 세간도구 다 갖춰져 있음.
● 양도가 : 9,500만원(절충가능)
011-9235-07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
● 부지 : 370평	● 대지 : 90평
● 법당 : 10평	● 법당 : 18평
● 요사 : 5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삼가면 진주에서 30분 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용왕당 각 1평, 요사 3채 75평
● 가액 : 1억 8천만원(절충가능)
011-9571-171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기장대변입구 주공 아파트앞 2층 건물중 2층 옥상사용
● 평수 : 35평 시설 A급,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7223-56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 대지 120평
● 건물 임법당 20평, 후원채따로 있음 방4개 아미타삼존불. 집기일체양도
● 가액:1억1천만원
010-6308-7320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확장 이전 관계로 각-각 임대합니다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 3층 50평 / 전 2000, 월50만 시설비 1500만원
※전철 1분 (최면기술 전수 후 임대)
● 서울 중구 남대문로 연세 빌딩 후문
● 3층 30평 / 전1000,월130 시설비 1000만원
※전철 1분 (최면기술 전수 후 임대)
010-4444-785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성북 길음동 전철역 바로 앞 2층
● 평수 : 37평(실평수)
● 점안식 안했음.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 산신탱화
● 방2개,공양간,욕실,시설완벽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별도 2500만원
010-2665-239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중랑구
● 평수 : 대형 재래시장 주변 2층 50평
● 법당,방3,주방,각종탱화
● 보증금 2500만원,월75만원 시설비 약간(절충)
011-9342-9794

“승려인가 속인인가?” “마음 끌리는 대로 살려합니다”

<26> 선사(禪師) 문하의 거사들(7)



강서(江西)의 법주(法主)로서 남악계 마조도일(馬祖道一) 선사와 호남(湖南)의 법주로서 청원계 석두희천(石頭希遷) 선사가 조사선(祖師禪)을 크게 펼칠 때, 선종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거사가 출현했다.

그가 바로 방온(龐蘊) 거사이다. 거사는 평생을 통해 석두와 마조 두 선사를 비롯해 단하천연(丹霞天然), 약산유엄(藥山惟儼), 대매법상(大梅法常), 낙포원안(落浦元安), 앙산혜적(仰山慧寂) 등 당시 유명했던 선사들과 깊은 교류가 있었다. 그에 따라 <거사전> <거사분등록> <불법금탕편> 등의 거사전에 전기가 실려 있다. 또한 <조당집> <경덕전등록> <속고승전> <불조통기> 등 거의 모든 선종사서에 방 거사와 관련된 기사(記事)들이 실려 있고, <고존숙어록> <연등회요> <오등회원> <지월록> 등 공안집과 <벽암록> <대혜보각선사어록> 등 수많은 선어록에 거사와 관련된 선화(禪話)가 언급돼 있다. 조금 과장해 말한다면 방 거사가 활약했던 이후 출현한 거의 모든 선종서적에 거사가 언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온 거사는 선종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전형적인 거사라고 하겠다.

재시·외호 힘쓴 사대부들과 달리 禪에 전념한 방 거사

부인 딸 아들 함께 수행해 득도… ‘중국의 유마’

방온(?~808) 거사는 자(字)가 도현(道玄; 팽제청의 <거사전>에는 ‘道元’으로 돼 있음)으로 대대로 유가(儒家)를 업으로 하는 집안출신이며, 부친이 형양(衡陽)태수를 역임했다. <거사분등록>과 <거사전>에 따르면, 거사는 본래 부유한 집안에서 거주하지 않고, 본가의 서쪽에 암자를 지어서 부인과 자녀와 함께 수년 동안 수행해 모두 득도했다고 한다. 거사의 “아들이 있으되 장가 안 들고, 딸도 시집가지 않은 채, 온 식구 모두 단란해 함께 무생(無生)의 이야기를 주고받노라”는 게송은 이 시기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거사는 득도 이후 암자를 버리고 본가를 절로 만들고, 가재(家財) 수만 점을 배에 실어 동정호 상강(湘江)에 던져버리고 청빈한 생활을 했다.

정원(貞元) 초년(785)에 거사는 석두희천 선사를 참알해 묻기를, “만법(萬法)과 짝하지 않는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라고 물었다. 석두 선사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손으로 거사의 입을 막아버렸다. 이에 거사는 활연히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만법과 짝하지 않음’이란 바로 불교에서 최고의 경지로 설하는 ‘자재(自在)’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다운 도인이 어디 있는가?’라는 물음인데, 석두 선사는 거사의 입을 막아 ‘언어도단(言語道斷)’의 도리로써 답했고, 거사는 바로 이른바 ‘말을 잊어 참 도리를 깨우침(忘言會旨)’을 실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어느 날 석두 선사는 다시 거사에게 “그대는 노승을 찾아온 이래로 일상생활(日用事)은 어떠한가?”라고 묻자 거사는 “만약 일상생활을 묻는다면 입을 열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다시 게송으로 “일상생활은 별 다른 게 없으니, 오직 나와 한가지로다. 낱낱이 취하고 버릴 것이 없고 처처에 어그러질 것이 없네. 벼슬아치들[朱紫]을 누가 귀하다고 했는가? 언덕과 산은 한 점 티끌도 없도다. 신통과 묘용은 물 긷고 나무하는 것일세!”라고 읊었다. 이에 석두 선사는 “그대는 승려인가 아니면 속인인가?”라고 묻자 거사는 “다만 마음 끌리는 대로 살아가려 합니다”라고 답했다. 석두 선사의 물음은 그렇게 명확하게 선리(禪理)를 깨달은 거사가 무엇 때문에 출가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고, 거사의 답은 마치 유마 거사처럼 재가거사의 신분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이다. 결국 거사는 평생을 재가거사 신분으로 있었고, 그에 따라 ‘방 거사’로 칭해졌다. 석두 문하에 머물면서 거사는 단하천연, 약산유엄, 대매법상 등의 선사들과 깊게 교류했다.

그 후, 거사는 마조 선사를 참알하게 된다. 거사는 석두 선사에게 물었던 “만법(萬法)과 짝하지 않는 이는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질문을 마조 선사에게도 물었다. 선사는 “그대가 서강(西江)의 강물을 한입에 다 마셔버린다면 말해주리라”라고 답했다. 이에 거사는 확철대오해 필묵을 빌려 “시방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개개인이 무위(無爲)의 도를 배우니, 이것이 부처를 가려내는 도량이라. 마음이 공해 급제해 돌아가네!”라는 게송을 지었다. 이는 후대에 ‘한입에 서강의 물을 다 들이킴(一口吸盡西江水)’이라는 화두로 선객들이 즐겨 참구하는 바였고, 특히 오조법연(五祖法演) 선사는 이에 대해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들이켜니, 낙양의 목단에 새 꽃술이 터지네. 흙을 털고 먼지를 날려도 찾을 수가 없으니, 눈을 들면 자신과 마주치게 되리라”(<선종송고련주통집> 권14)라고 평했다. 이로부터 방 거사를 ‘한입에 서강의 물을 다 들이켰던’ 인물로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마조 선사로부터 확철대오했기에 역대로 거사를 마조 선사의 사법(嗣法)으로 인정한다.

거사는 2년 동안 마조 문하에서 수학하다가 원화(元和) 연간(806~820)에 북방으로 유행해 양양(襄陽)에 이르러 그 곳에 정착했다. 거사의 딸 영조(靈照)가 조리를 만들어 팔아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당했다. 영양에 머물면서 방 거사는 당시 주목(州牧)이었던 우적(于頔) 거사와 막역한 친구로 지내면서 수시로 왕래했다. <거사분등록>에는 거사의 입적할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거사가 입적할 때가 됐음을 알고, 딸에게 “이 세계는 환상과 같아 참답지 못하니, 너는 인연에 따라 살아라”라고 말하고, 딸에게 몇 시쯤 됐는지 밖에 나가 해를 보고오라고 시켰다. 딸이 나갔다 돌아와서는 “해가 이미 떴지만 일식 중이어서 잘 안보이니, 잠깐 보시지요”라고 말했다. 거사는 “있는가?”라고 묻자 딸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거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자 딸은 얼른 거사의 자리로 올라가 합장을 하고 좌망(坐亡)했다. 거사는 웃으면서 “내 딸의 기봉(機鋒)이 민첩하구나!”라고 하고서 딸의 시신을 화장했다. 7일 후에 우적 거사가 찾아오자 거사는 손으로 우적의 무릎을 잡고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다만 원컨대 온갖 유(有)를 공(空)으로 돌릴지언정, 삼가 온갖 무(無)를 진실이라 여기지 말라. 세간에 잘 머물러라. 모든 것이 그림자와 메아리 같으니라(但願空諸所有, 切勿實諸所無. 好住世間, 皆如影響)”라는 게송을 읊었다. 게송을 마치자 방안에는 기이한 향기가 가득찼고 거사는 입적했다. 우적 거사는 방 거사를 여법(如法)하게 다비를 모시고, 거사의 부인과 아들에게 방 거사와 영조의 죽음을 알리고자 사람을 파견했다. 방 거사 부인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 어리석은 딸과 지혜 없는 늙은이 같으니라고, 알리지도 않고 가다니, 참을 수 없구나”라고 하고서 아들에게 가서 방 거사와 영조가 갔음을 알렸다. 아들은 김매던 호미를 놓더니 “앗!”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선채로 가버렸다. 부인은 “바보 같은 아들이 어리석기가 더욱 심하구나”하고서 아들 또한 화장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기이해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 거사 부인은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별을 고하고, 그 후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방 거사와 가족의 입적 이야기는 <거사전> 권17, <조당집> 권15, <경덕전등록> 권8 등을 비롯한 여러 선종문헌에 조금씩 가감돼 천고(千古)의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 거사의 입적을 지켜보았던 우적 거사는 방 거사 입적 후 <방거사어록>을 편찬하면서 다만 방 거사 딸인 영조가 방 거사보다 ‘민첩하게’ 좌망한 일만을 기록하고 있어 방 거사 부인과 아들 이야기는 후대에 첨가됐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방 거사는 게송을 짓는 것을 즐겼다. 그의 어록에는 약 300여 수(首)의 게송이 전해진다. 이러한 게송들은 모두 지극한 선리(禪理)에 부합되는 것으로 그 전편에 흐르는 사상은 바로 마조 선사의 홍주종 선법이라고 하겠다. 거사의 게송 가운데 “만약 번뇌를 버리고서 보리를 찾는다면 어디에 부처자리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보살도를 논하지 않고서는 부처 또한 애써 이룰 것이 없다” “신통과 묘용은 물 긷고 나무하는 것이다”등의 내용들은 바로 유명한 마조 선사의 “도(道)는 닦음을 쓰지 않으니, 다만 오염되지 말라. 어떻게 오염되는가? 다만 생사의 마음이 있어 조작하고 좇아가면 모두 오염이다. 만약 바로 그 도를 알고자 하면 평상심(平常心)이 도이다. 무엇을 평상심이라 이르는가? 조작(造作), 시비(是非), 취사(取捨), 단상(斷常), 범(凡)·성(聖)이 없음[無]이다. 경전에 이르기를, ‘범부의 행함도 아니며 성현의 행함도 아님이 보살행’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 행주좌와(行住坐臥)하고 근기에 따르고 사물을 접함이 모두 도”라는 사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방 거사는 재가에 있으면서도 관직이나 다른 생업을 종사하지 않고 선(禪)에 전업(專業)했던 특수한 입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이는 주로 재시와 외호에 힘썼던 사대부 거사와는 차별을 보이는 것이고, 이는 또한 방 거사가 승속의 경계조차도 초탈한 조사선 풍격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평할 수 있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웃음보살 불등거사 <30>

구성 : 김흥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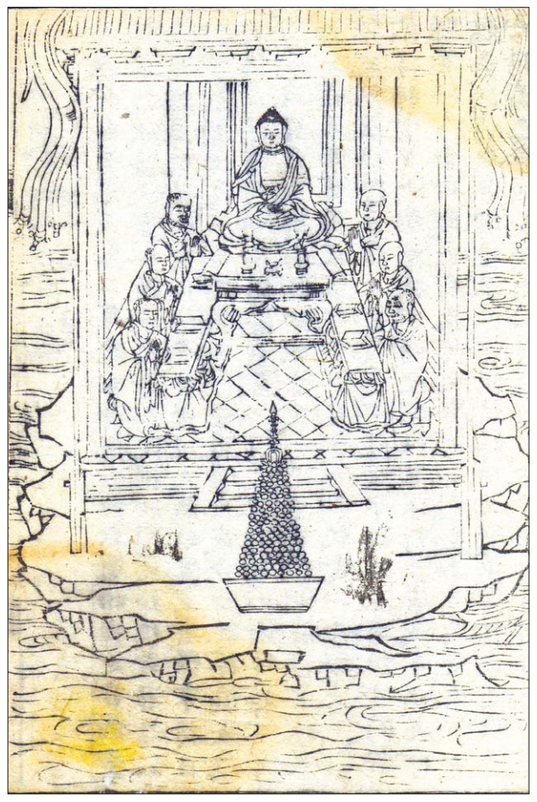


비단 옷과 순금을 모두 빼앗긴 사람 [백유경(百喩經)]

넓은 들판을 함께 걷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비단옷 한 벌을 도적에게 빼앗기고, 또 한 사람은 도망쳐 풀 속에 숨었다. 옷을 빼앗긴 사람이 일찍이 옷 끝에 금전 한 푼을 싸 두었기에 "금전 한 푼을 줄 테니 옷과 바꾸자"고 말했다. 옷 끝을 풀어 금을 내 보이며 "이것이 순금이니 믿어지지 않거든 풀숲에 숨은 금사(金師)에게 물어 보라"고 말했다. 도적은 금과 옷을 모두 가져갔고 어리석은 사람은 옷과 금을 모두 잃고, 남 또한 잃게 했다. 범부도 그와 같다. 도를 닦아 행하고 온갖 공덕을 지었다가, 번뇌라는 도적에게 겁탈 당해 선법도 잃고 온갖 공덕도 잃고 만다.

옛 판화의 세계

황제의 꿈으로 수륙대재가 마련되다
수륙연기(水陸緣起)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중 수륙연기(水陸緣起)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양나라 황제에 의해 만들어진 의식문으로 스님들이 처음으로 수륙재를 베풀고 있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우리나라에 많이 베풀어지고 있는 수륙재가 만들어지게 되는 연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양나라 천감 2년에 황제의 꿈에 신승이 나타나 일렀다. '육도사생들의 고통 받는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왜 수륙대재의 불사를 지어 이들을 고통에서 건져내 구해 주지 않는가?' 황제는 이것을 여러 스님들에게 물어 보았으나 수륙대재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오직 지(誌) 스님만이 황제에게 권유하기를 널리 경론을 찾아보면 반드시 그에 관한 인연이 있을 것이라 했다. 이에 황제는 곧 사람을 파견해 대장경을 맞아들여 중운전에 안치하고 황제가 친히 여러 날 동안 열람해 처음으로 수륙대재의 법의식에 관한 글을 지어 3년 뒤에 이를 완성했다. 이어 도량을 세워 새벽에 날이 밝을 때 몸소 그 의식문을 머리 위에 받들어 올리고 불상 앞에 무릎을 꿇어 등촉 불을 모두 끄게 하고 서원의 말을 발원했다. '이와 같이 서원문을 옮기니 이글의 이치는 성인 범부의 소원에 일치한 글이라 절을 하고 일어나면 등촉의 불들을 스스로 밝히고 기본 의식을 잘 모를 경우에는 등불이 모든 곳을 어둡게 하소서'라는 말을 마치고 한 번 예불하니 등촉 불이 모두 밝아졌고 두 번째 예불하니 궁전이 진동했고 세 번째 예불하니 하늘에서 보배 꽃이 비 오듯 했다. 천감 4년 2월 15일 금산사에 자리 잡고 모든 스님들에게 명해 의식에 근거한 수륙대재를 마련하고 예식을 닦으니 사흘 밤낮 동안 재를 올려 두루 중생들을 제도했고, 황제가 몸소 법석에 참석해 사문 승우 율사에게 조서를 내려 글을 베풀게 하니 큰 감응이 나타났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황제의 현몽을 토대로 황제 자신이 두루 대장경을 섭렵해 수륙재 의식문을 만들고 많은 스님들에게 의식을 베풀어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을 통해, 수륙재가 베풀어지게 된 인연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자리이타의 정신을 실천하는 보살행이 황제를 비롯한 옛 불자들의 불심을 통해 나타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장면이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봉정암

설악 봉정암이다
한 바가지 샘물 떠 마셨다

저 아래를 슴벅 내려다 보았다

백팔번뇌야

백팔번뇌야
너희들이 나를 살렸구나

이제 내려가도 되겠다

-고은/<유심> 2009년 1 · 2월호에서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12권 출간 각권 15,000원
전 30권중 제 1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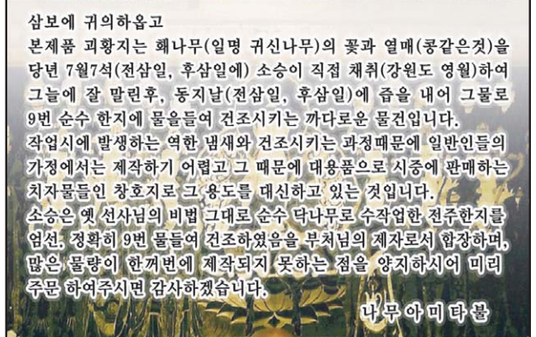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값 15,000원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구정연휴로 인해 1월달만 광주 1월 15일,부산 1월 18일로 변경됩니다.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하늘의 기운, 신의 숨결, 조상의 지혜
부적! 이제 대용품으로는 안된다
槐괴 黃황 紙지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제품 괴황지는 홰나무(일명 귀신나무)의 꽃과 열매(콩같은것)을 당년 7월7석(전삼일, 후삼일에) 소승이 직접 채취(강원도 영월)하여 그늘에 잘 말린후, 동지날(전삼일, 후삼일)에 즙을 내어 그물로 9번 순수 한지에 물을들여 건조시키는 까다로운 물건입니다.
작업시에 발생하는 역한 냄새와 건조시키는 과정때문에 일반인들의 가정에서는 제작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대용품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치자물들인 창호지로 그 용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승은 옛 선사님의 비법 그대로 순수 닥나무로 수작업한 전주한지를 엄선, 정확히 9번 물들여 건조하였음을 부처님의 제자로서 합장하며,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제작되지 못하는 점을 양지하시어 미리 주문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주문처: 전북 장수군 계북면 농소리 589번지 몽련암
관봉 합장 (063)353-1232 / 010-6229-0108
농협: 507079-51-012924(예금주:이창주)
E-mail: m3531232@hanmail.net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한국인의 KBS(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0.2평의 기적)출연 BBS불교방송(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착불)

주문처 : 서울법당 (02)-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그냥 무조건 자기 불성인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 놓으세요!

오늘은 날이 따뜻해서 같이 한자리 하는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날이 추울 때는 마음이 상당히 안됐었는데요. 그러나 춥든 덥든 구름 지나가듯 하는 것이 한 철 인생살이입니다. 그런데 한 철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옛날에는 선지식들이 소에다 비유를 하고 코끼리에다 비유를 해서 '첫 번째는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두 번째는 밥을 굶기고, 세 번째는 몽둥이질을 한다' 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처음에 왔을 때는 소고삐를 쥘 양으로 거선을 하다가, 나중에는 소고삐를 쥐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말을 삼가서 하고 말을 걸러서 하고, 항상 남을 섭섭지 않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일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안으로 항상 내면의 자불(自佛)을 쥐고서 가는 거와 같은 겁니다. 소고삐라는 건 자기의 그 인연줄, 즉 말하자면 바로 자기의 근본자리의 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고삐로도 비유가 되고 그럽니다.

또 '두 번째, 배가 고파도 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은 자기가 자기를, 아무거나 집어 먹지 못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먹는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일체를 그저 되나 안 되나,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모르고 그냥 먹는 사람은 걸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밥을 아무거나 먹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굶긴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채찍질을 한다.' 이러는 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의 길이 잘못 들어지면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또 남을 아프게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소로 비유를 해서, 옛날에는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짓이겨 놓으면 남에게 여간 해를 주지 않는다 해서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소로 비유한다면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다스리면서 남한테 해롭지 않게 하고 남한테 아프지 않게 하는 모두가 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보시입니다. 그리고 잘못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이 계가 아니라 잘하라는 것도 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모든 것을 해 나가는 데는, 그렇게 자기를 자기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길을 걷는 데는…, 예를 들어서 과거를 모르면 현실을 보고, 미래를 모르걸랑은 또 바로 현실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공부라는 것이 상당히 밀접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개별적으로, 내 마음으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여러분한테 할 말이 아주 많은데 와서 앉으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가 좀 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둘이 아닌 도리를 여직껏 공부를 하면서 걸어왔죠. 둘이 아닌 도리만 알면 그 뜻도 아실 거예요. 옛날 남전 스님이 고양이 죽인 일입니다. 서당 동당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싸움을 하니까 남전 스님이 그것을 딱 쥐고선 "말대답을 해라. 무슨 연고로다가 그렇게 싸우는 건지, 또 무슨 이유로다가 고양이 하나를 놓고 싸우는지. 만약에 너희가 대답을 할 것 같으면 이 고양이를 살리고 대답을 못할 것 같으면 고양이는 죽는다." 이랬더래요. 여러분이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시긴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그래 말대답을 못하니까 죽였죠! 죽였는데 나중에 조주 스님이 들어와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얼른 신발을 벗어서 머리 위에 이고 팽등같이 달아나가거든요. 무슨 까닭에 신발을 벗어서 한 짝을 머리에다가 이고서 나갔는가 하는 겁니다.

둘이 아닌 도리를 여러 해 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그 둘이 아닌 도리만 알면 그것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말로 해서도 아니 되지만 뜻으로 다 알고 말 없이도 대답할 수 있죠. 조주 스님이 왜 짚신 한 짝을 벗어서 머리에다 이고 나갔겠습니까? 힌트는 말입니다, 죽인 남전 스님도 죽인 사이가 없고, 고양이도 죽은 사이가 없고…. 왜 짚신을 벗어서 이고 나갔을까? 지금 이 공부는 자기 자완성입니다. 수없이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말로 듣는다면 말로 떨어지고 말아 버립니다. 그 말이 아닌 바로 자기의…, 모두 각자에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기와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말한 것도 둘이 아니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달마 대사는 왜 수염이 없는가?' 하는 도리요. 여기서 마음공부 하신 분들은 대충 헤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수염이 없다고 왜 그랬을까요? 무슨 까닭에 그랬을까요? 그건 입으로 말을 안 하고도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또 입으로 말을 해서 대답을 하면 어폐가 되고 도루묵이 되죠. 이 공부를 할 때에도 그렇지만 이 말을 하는 것도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 학인이 어느 스님한테 물었더랍니다. "어떡하면 깨칠 수 있겠습니까?" 하고요. 그러니까 그 스님 대답이 "본래 귀신 방귀씨는 너한테 심어져 있느니라. 그러니 기르기만 잘 기르면 되지 않겠니?"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기르면 잘 기르겠습니까?" 하니까, "귀신 방귀씨니까 귀신 방귀털을 더 먹이지도 말고 털 먹이지도 말고 그 가운데서 먹이면 되느니라."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허탕을 하고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서 이루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귀신 방귀털이라고 해도 되고 귀신 방귀라고 해도 되죠. 그건 말 붙이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말을 해서 오히려 잘못될까 봐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말대답 하실 분이 그득한데 어째 말대답이 없습니까? 오히려 그르칠까 봐 안 하시겠죠.

'조주 스님이 짚신 한 짝을 머리 위에 이고 삥 하니 나갔다.'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소리가 거기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이치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소를 타고 구멍 없는 피리를 분다.' 이런 소리 다들 아시죠? 내 이 내면세계에는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자기를 진화시킨 장본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쥐려야 쥘 것도 없고 보려야 볼 수도 없고 또는 꿰려야 꿸 수도 없는 거죠. 단지 그거는 자기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상봉이 된다면 이 몸속에 있는 의식들을 다 조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여러분의 몸속에는 생명체들이 많아서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유를 할 때도, 중생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랬다는 얘기 많이 하죠. 선장한테다 맡기지 않고 항상 자기가 '관세음보살' 이름만 들입다 부르고 온통 난리가 나니까 배가 뒤집히더라는 얘기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몸뚱이 속에는 생명체들이 많은데, 우리 몸은 집과 같고 배와 같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에 의해서 꼭 같이 닮아 주느냐는 얘기죠. 같이 흡수가 되느냐, 같이 공심으로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게 공심이 되지 않는다면 조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현실로 봐서도 이게 딴 데서 들어온 세균이면 싸움이 납니다. 또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면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선 화합을 제일로 쳤습니다. 화합! 그래서 내 몸뚱이 안에서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조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의식들은 인연의 줄로 인해서,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인연들이거든요. 과거로부터 인연 지은 것을 반연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인연을 지어서 왔는데 본래 근본은 말이 없죠.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본래 근본은 그렇게 작당을 하지도 않고 말이 없고 남한테 억울하게도 안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의식들이 자기가 지은 인연대로 자꾸 말을 하게 하고,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이러거든요. 이 몸속에서 생명의 의식들이 그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못살게 한단 말입니다. 물론 좋게 이끌어서 말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도 많이 이끌죠. 반 이상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둘로 보지 않았을 때에 조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끌어 주는 것은, 뭐 '달마 대사의 수염이 왜 없느냐?' '돌장승이 왜 눈물을 흘리느냐?' 하는 얘기들은 통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대로 자기 불성인 주인공을 믿고 모든 걸 거기다 놓아라 이랬습니다. 그렇게 놓으라고 한 이유는 직결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스님네들이 화두, 화두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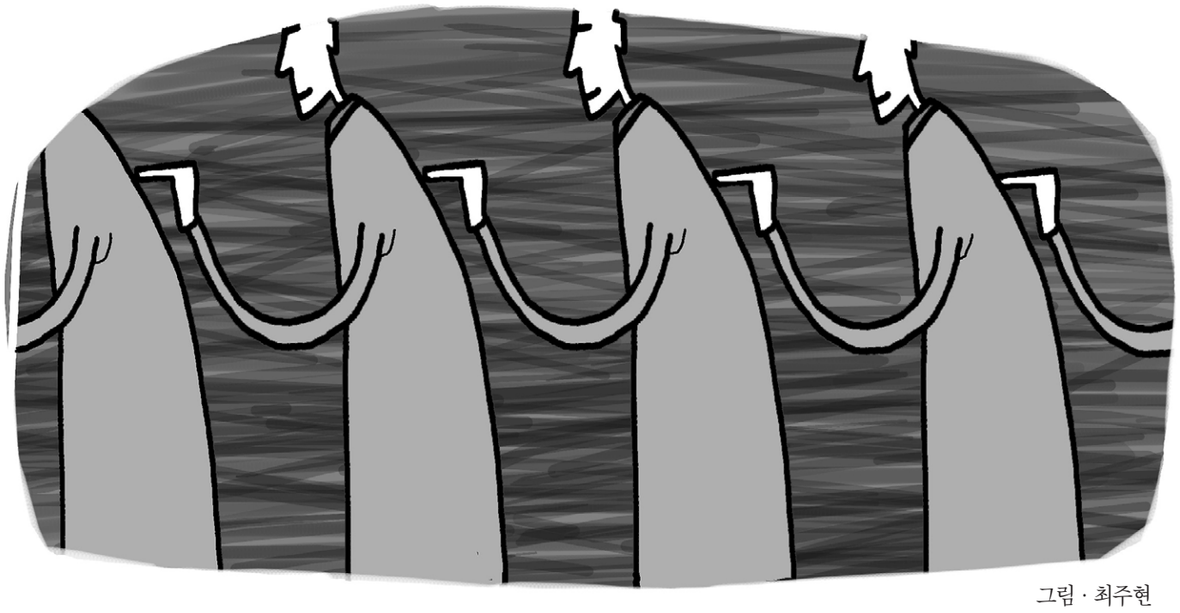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1000일 기도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무량수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래세에 모든 경(經)과 도(道)가 소멸되더라도 이 경(經)만을 100년간 사바세계에 머물게 하리라 말씀하시었고, 제경(諸經)에 이르시기를 시방 삼세 불중 아미타불이 제일이라 칭찬하시었고, 『대집경』에 이르시기를 말세중생들은 여러 부처님을 염하면 마음이 산란하여 定(정)에 들기 어려우니 오로지 서방정토 아미타불만을 念(염)하라 하시었다. 따라서 정토법문(淨土法門) 이야말로 오탁악세(五濁惡世)에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 근기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이라 할 수 있다.

금번 팔공산 지묘동 **대원사**에서는 1000일간 **아미타불** 기도를 봉행하여 다겁생래로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동참하는 제자 모두가 사바세계의 고통을 영원히 여의고, 서방정토 구품연대에 낳아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고 무생법인(無生法印)을 증득하여 성불을 이루고자 발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부대중은 이러한 수승한 법연의 자리에 수희 동참하시어 큰 공덕인연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 입　　재 : 불기 2553(2009)년　1월 19일(음 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 회　　향 : 불기 2555(2011)년 10월 15일(음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 계좌번호 : 농협 150090-51-038650 / 예금주 : 대원사
◈ 기도시간 : 하루에 4分(분) 정근합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대원사 종무소 ☎ 053)981-8844 / 주지실 ☎ 053)981-8845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지묘동 **대원사** 주지 **혜룡** 두손모음

놓으라고 한 이유는 직결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5면에서 계속

세상에 나온 게 화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나온 게 화두인데 남한테 화두를 또 받아요? 내가 나온 게 화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있고 세상이 벌어졌고 모두가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그 소리는 하고 있죠. 그런데 내 마음 이 자체를 다스린다 하는 것은 일체를 주인공에 놓는 거죠. 다 그렇게 놓고 가다 보면 그냥 그대로 저절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일은 일대로 하게 됩니다. 일을 안 하면서도 해요. 함이 없이 일을 해요.

지금 과학이 발전이 되고 그래서 전화도 있고 뭐니 뭐니 하면서 편리하게 다 쓰죠.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죠. 그런데 난리가 나서 전기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는 그거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들고 다녀 봤자고요. 또 아닌 밤중에 자기라든가 자기 식구가 어떻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찾아다니면서 누구한테 구원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시급한 문제죠.

이 나 하나의 마음이, 즉 말하자면 '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둘로 보지 않는 분들은 그것을 퍼뜩 알아낼 수 있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있으니까 일체 만법이 다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무효예요.

그래서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이 중생들을 조복을 받게 되면 이게 보살의 역할을 합니다. 전부 보살 역할을 하고 또 그 보살의 개수가 모자란다 하면 똑같은 보살을 수없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그렇게 커서 이 허공에 꽉 차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건 한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닥쳐오는 대로 해결을 하지 어떻게 '요거는 닥쳐올 테니까 요걸 요렇게 하고, 저거는 안 닥쳐올 테니까, 기쁜 일이니까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삽니까? 시시각각 닥쳐오는 대로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죠. 그런데 부처님 법이기 이전에 우리들의 법은 닥쳐오는 대로 우리가 해결사가 돼야 됩니다.

잘되는 것만 잘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길을 걷다가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부처님이 계시다면 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게 해서 나가질 못하게 만들어 놓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몇천만 원을 들여서 공부한 것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되는 거를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안 되고 되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해 나가다가, 즉 말하자면 자기가 구렁텅이에 빠질 때 잠깐 붙들어 주는 겁니다. 이래야 공부를 할 때 부딪침과 감각, 촉각, 시각, 미각이나 이런 여섯 가지 모두를 다 자기가 동시에 느끼면서 해결을 하죠.

이 몸속에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조그마하니까 하등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그게 만약에 이렇게 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를 꺼내 놓았는데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다 거쳐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거친 인연들이에요. 우리가 한때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자꾸 지혜가 생기고 회개를 하게 되고 또 건너뛰게 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 아래 축생들은 그냥 먹고 살기 급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것만 알지 한 번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사

> 춥든 덥든
> 구름 지나가듯
> 하는 것이
> 한 철 인생입니다

람은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부처 될 가능성이 99%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럼 똑같이 부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사단이 많으냐? 똑같이 부처라 하더라도, 뿌리는 같으나 모습이 다르고, 하는 차원이 모두 다르고, 살아나온 기술이 다르고, 모든 게 자기의 습대로 하고들 산단 말입니다. 과거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모습도, 삶도, 또 권세도 다 가지고 나오거든요. 가지고 나와서 살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벗어난다는 말조차 없이 그대로 내 몸에서 이 모든 생명들을 둘 아니게 조복을 받는다면, 내가 마음대로 마음을 내는 대로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라도 이 보살이 응신(應身)으로 화(化)해서 모든 걸 이익하게 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성을 하면 이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생명들이 자기가 스스로 벌써, 모두 부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래의 마음은 공심(共心)이다. 여래의 몸은, 즉 말하자면 공체(共體)다. 공체기 때문에 크죠. 여러분이 볼 때는 사람 하나지만 공체이기 때문에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용(共用)을 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에서도 공용이요, 바깥에서도 공용입니다. 이런 얘기 곧잘 하죠. 우리가 물을 한 그릇 먹었다고 하면, 이것을 내가 먹은 겁니까? 이건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여기서 목마르다고 달라고 그래서 준 거예요. 줬는데, 준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나눠 먹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의식들이 이렇게 나눠 먹게 된 동기를 알게 되면 동시에 그냥 한마음이 돼 주죠. 지나가다 보면 하다못해 소나무도 말을 하고 돌도 말을 하는데, 이 속에 의식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남이 볼 때는 나 혼자 먹었어요. 그런데 먹은 사이가 없다. 이 물은 내가 먹은 사이가 없이 더불어 같이 공식(共食)을 했다 이런 뜻이 나오죠. 공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먹는 것만 공식이 아니라 이 모든 거,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 공식입니다, 그게. 같이 움죽거리죠, 이 몸도. 지금 자기가 그냥 보고 듣고 이렇게 움죽거렸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건 모든 부서에서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움죽거리는 겁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만 움죽거려 주지 않아도 그냥 폐인이 돼 버리고 말죠. 모두가 그렇게 움죽거려 주는 걸, 본래 그렇게 움죽거려 주고 같이 해 주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얍삽해서 이거를 죄다 가르는 거죠. 자기 자불이 그렇게 있고 자불로 하여금 마음이 의식하고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해 주질 않으니까 같이 조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인연 받은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이나 팔자나 이런 거를 면할 수가 없다 이러는데, 이 공부는 팔자 운명도 없고 고(苦)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고라는 건 집착만 없으면 모든 게 없어요. 집착! 집착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물을 먹었으니까, 내가 물을 줬으니까 저 물 대신 뭐가 오겠지.' 하는 이런 집착, 또 '내가 해 줬으니까 좋게 되겠지.' 하는 집착, '부처님한테 뭐를 놓았으니까 뭐가 오겠지.' 하는 이런 집착, 이런 집착들이 모두 자기를 멸(滅)하게 못해 주는 겁니다. 어차피 물을 한 그릇 떠다가 부처님한테 놓았으면,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부처님한테 놓았다 하면, 뭐 몇 억을 갖다 놓았다 하더라도 한 사이 없이 했다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죠, 그냥. 그러니 돈보다도 수없는 이 허공을 다 준대도 가볍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준 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왜 집착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몇 알갱이나 산다고 집착을 합니까. 그리고 미워하고, '너로 인해서 망했다' 이러고…. 간혹 '너로 인해서 흥했다' 이럴 수도 있죠. 그것도 집착입니다. 모두가 집착이에요. 그래서 고 · 집 · 멸 · 도 아닙니까? 고라는 거는 이름이에요. 고라는 것은 집착이 없다면 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멸하면 도다 이거예요. 간편하죠, 아주. 우리가 이렇게 해도 여기 걸어서 들어올 때 내 발자국을 짊어지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는데 왜 없어진 그 발자국에 집착하느냐. 없어진 발자국에 집착을 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 살면서 그냥 '요거는 요게 잘못됐는데' '이런 게 잘못됐다' '이건 정말 날 무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영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질 않는 그것이 집착이에요. 무상하게 살면 안 되나요? 우리가 '이것도 한 발자국 떼어 놓는 거와 같구나. 이것도 그런 거지,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저 이해해 주는 그런 마음…. 내 마음으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남의 마음을 살펴 주는 그런 마음이라야만 되죠.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 미생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불쌍하지 않은 게 없어요. 어디를 들여다봐도 다 불쌍해요. 측은하고 불쌍하고 그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잘 먹고 잘산다 하는 집을 들여다봐도 불쌍해요. 그 속에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가지고 있는 아픔보다도 더 아픈 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어느 사람치고 불쌍

> 그런데 한 철을
> 어떻게 사느냐
> 어떻게 생각을 하고
> 행동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게 살지 말라 이거죠. 한 철이라는 얘기죠. 발자국을 잘 떼어 놓는다 해도 한 철, 못 떼어 놓는다 해도 한 철이고 한 찰나죠. 그래서 남하고 속으로 말다툼을 해서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야,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무슨 연고가 있기에 그랬겠지.' 하고 지혜롭게 마음을 써 주고 지혜롭게 내 주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풀잎 하나도 나를 옹호하지 않는 풀잎이 없을 거예요, 아마. 모두가 친구고 모두가 벗이죠.

생명들을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부모같이 생각하고,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내 형제같이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수억겁을 거치면서 이렇게 굴러온 거니까요. 그렇게 왔으니까요. 줄창 그런 말을 하지만,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한 철을 이 몸속에 들어 있는 그 모습들처럼 살 때도 바로 부모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어요. 그 아픈 것은 똑같아요. 사람이 아파하는 거나 짐승이 아파하는 거나 미생물이 아파하는 거나….

그래서 구르고 구르면서 진화하고 형성되고 한 그 자체가 바로 근본이에요. 그 근본이 바로 지금 자기를 리드해 가고 이끌어 주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척 그냥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자기가 산다고 하고,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하고 날뛰고 그런다면 부모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철날 때까지. 그와 같습니다, 이 마음 도리도. 얼마나 묘한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밤중에 많이 다녔어요, 산에. 그런데 그때 다닐 때도 산이든 들이든 물이든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처럼 학식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고도 알았을는지 모르죠. 그런데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승이 처음에는 나한테 있다가, 둘이 아니게 되면 그냥 하나가 되죠, 둘이 됐다가. 그래서 둘이 됐다가 하나가 됐다가, 둘이 됐다가 하나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혼자 있다가 누구를 만나면 둘이 되는데, 순간에 하나로 이어져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악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이어지는 반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악하게 인연을 잇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전자에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턱 보니까 내 부모 안됐던 분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안됐던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와 보니까 이 세상에 일체 만물만생이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만물이 다 스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또 네가 속이 좁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너에게 맛 좀 보이겠다. 그걸 꼭 갚겠다. 악의로 갚겠다.'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게 모두가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육도윤회라는 것도 있죠. 지옥 · 아귀 · 축생 · 아수라 · 인간 · 천인, 즉 하늘 사람, 이렇게 치는데 지옥은, 지금 현재 갇혀 있는 사람들 보세요. 감옥소에 갇혀 있죠? 그런데 지옥이 없습니까, 어디 지금? 여기 이 시대에 있지. 그리고 아귀는요, 땅속에서 사는 지렁이도 보면 입은 요만한데 몸은 커서 먹기는 먹어야 할 텐데 하루 종일 먹어도 양이 차질 않는 거예요. 땅 속에서 사는 그런 것들이 전부 아귀예요, 그게. 우리가 말로 아귀 축생 뭐, 귀신 이런 다고 해서 말로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영령들도 사람들처럼 저렇게 갇혀서 지옥고를 겪죠. 그래서 '국내 밥내도 못 맡는다' 이런 말이 있죠. 국냄새 밥 냄새도 못 맡는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떨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축생들도 보세요. 사람하고 축생하고 같이 살면서 자꾸 윤회하면서 돌아가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9년 2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 화 사



양화사 건강원 — 귀 자원봉사의 집 귀 — 서금요법수지침술

▷ 전국불우 이웃 및 소년 소녀가장「무료봉사」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 ◁

인간 생명의 존중과 복지사회구현을 실현하여 건강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위한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 드리기 "자원봉사의 집 "양화사 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생활수급자 · 생활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 전국에 거주 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 이웃분들에 대하여 관할지역 읍 · 면 · 동사무소의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성인성,부인성 질환)(아토피,피부질환)(신경통,관절질환)(디스크,혈압질환)(불치,난치성질환)(희귀성질환) 등에 대하여 "서금요법""수지대체요법""자연치유요법" 등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체질개선)(수지기능식품, 체질개선 자연식품, 건강식품)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서금요법 · 수지대체요법 · 수지침 ·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등에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수지침은 건강관리와 "수지침자원봉사" 고령화시대에 가장효과적인 대체의학이며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원봉사"에 참여 하실수 있습니다.
※ 서금요법,수지대체요법,수지침,전국각종단체 등 "무료출장교육"신청상담을 받고있습니다.

서금요법 · 고려수지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 한상기 / 분회장 : 천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번지 201호

※ 문의 및 상담전화 : 031)251-2213,254-2213 / 휴대폰 010-3013-2213 / 팩스 031)258-2213 ※ 불자님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 협 207186-51-050820 / 국민은행 877001-01-362102 / 제일은행 604-20-378236 / 우체국 104323-01-001733(예금주 : 한국근본불교조계종양화사)
※ 불자님들의 후원금과 불사금 및 수익금 전액에 대하여서는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에서 포교 및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 주지 **천광** 합장



불자 세상보기

이 강 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기본’ 이 있는 나라인가?

모두들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고 인사하기보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걱정하며 새해를 맞는다. 문화예술 전공자들 역시 취업한파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실 지금껏 이 분야는 겉보기와는 달리 손꼽는 소수 사람만이 먹고 살 수 있을 뿐, 번번한 수입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매년 4년제 대학 문을 나서는 연극, 무용, 음악, 미술 등 순수예술 전공자만 해도 1만3000여 명이나 되고 인근 계열분야까지 포함하면 3만명이 넘는 졸업생이 한 해에 배출된다. 아무리 따져도 문화예술계에 1년에 3만명의 일자리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학들은 제각기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하느라고 신입생을 자꾸만 늘려 간다.

현실은 이런데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화예술을 중시하는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된다. 새뮤얼 헌팅턴이란 세계적인 석학의 <문화가 중요하다>란 책에는 “경제와 문화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으므로 나라가 풍요로워지려면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세계 60억 인구에서 선진국을 비롯한 10억명 정도가 잘 사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문화적으로 앞섰기 때문이라는 결론이다. 경제와 문화가 밀월시대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점을 들어 취임사에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와 문화예술의 선진화가 함께 가야 경제적 풍요로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문화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문화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절대적인 의지의 표명이기에 우리는 이 말을 굳게 믿고 싶다. 문화예술이 경제발전과 함께 성취된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꿈은 우리가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다. 과거 정부 때마다 많은 정치가들이 문화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지만 지금껏 원론에 머물고 있음은 무엇 때문일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작금의 경제 난국에서도 우선순위는 경제다. 맞는 말이다. 잘 살아야 문화도 발전하며 예술작품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잘사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도 있고, 좋은 집 넉넉한 환경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이 그것으로만 기준이 될 수 있을까. 허기져도 정신적으로는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다. 한편으로 우리가 살던 힘겨운 시대에 창작된 작품들이 훌륭한 예술품으로 역사에 오래 기억되기도 한다. 잘 살아야 예술을 향수할 수 있고, 못 살면 예술도 즐길 수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황폐할까. 이치가 이런데도 지금의 정부까지 경제가 잘 풀려야 예술정책도 잘 될 것이란 말을 공공연히 한다.

밥을 굶는 창작예술인들을 도와야 한다고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아도 누구하나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는 세상, 국회의사당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전기톱으로 잘라내도 벌 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다. 부서진 것들을 수리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할 것이며, 그런 예산은 펑펑 써도 괜찮은 나라에 살면서 창작예술의 환경을 고쳐달라고 애원해도 누구하나 귀담아 들어주는 이가 없다.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많은 가난한 예술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 실타래처럼 엉킨 것이 우리네 삶이라 하지만 모든 질서에는 원칙과 기준이 있다. 그럼에도 작금의 민의의 전당은 고깃덩어리를 문 사냥개가 으르렁거리듯이 격한 소통부재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옹다옹한다. 이 모든 것이 초발심을 잊어버린, 근본에 충실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120만 명이 넘는다는 우리나라의 예술인들은 모두 점잖아서 남부끄러운 일에는 고개를 돌리는지 모르지만 정말 딱한 것은 우리 예술인들이다. 고통스럽고 험난한 길을 가면서도 입을 다무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도 하루빨리 선행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화합중’ 으로 돌아가라

일부 종단의 승단에 위험한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연말 한 지역의 스님들이 지역불교계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급기야 스님이 스님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또 일부 종단에서는 한 해의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자리에서 고성이 오가고 탈종과 분종까지 거론되는 등 목불인견을 연출하고 있다.

본래 승가의 의미인 샹카(Samgha)는 무리(衆)에서 시작되지만, 교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화합중(和合衆)의 의미가 매우 강조됐다. 승가는 화합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상카를 ‘좋은 벗들(善友)’의 모임이라 부르는 것이다. 물론 재가자와 구별해 승단이라고 말할 때는 출가승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욕망의 구현’을 그 바탕색으로 한다. 그래서 경제활동과 정치활동 문화활동 등의 목적은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현대의 불교도 사회의 구성인자로서 종교적 기능을 하면서 세속과의 ‘거리 갖기’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출세간을 지향했던 불교가 저잣거리로 나오면서 감당해야할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불교의 세속화와 작금의 폭력 분규 등은 당초부터 무관한 일이다. 승단이 스스로 사회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다.

세상이 원하는 불교는 화합의 힘으로 세상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지금 불화를 보이는 당사자들은 화합중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불화와 갈등의 세상을 어루만지는 승단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고각하’ 해야할 것이다.

‘한국전통사상서’ 에 거는 기대

조계종 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통사상서> 발간 사업이 순항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업은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저술들을 한역과 영역본으로 각각 13권씩을 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국역경원의 ‘한글 대장경’ 완역 이후 큰불사로 꼽힌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한국의 불교 정신을 해외에 넓고 깊게 알리는 것이어서 그 결과가 기대된다.

이 사업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번역의 체제다. 소위 ‘다자간 시스템 번역’의 성공적인 도입이 이 사업의 내실을 튼튼하게 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경전의 번역은 어느 한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한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관이 적용되지 않으면 경전을 해석하는 각도가 어긋나고 받아들이는 대중의 이해도 천지현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이 번역에 동참해 가장 명확한 용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용어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용적 왜곡을 막는 일도 다자의 의견이 모아질 때 가능한 것이다.

번역자간 소통은 아름다운 일이다. 옛 스승들의 가르침이 특정인의 견해에 의해 좌지우지 되거나 특정한 기관에 의해 일방적인 해석이 횡행하게 된다면 그 잘못은 두고두고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직속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사업이 잘 짜여진 틀 속에서 합리적인 체제에 의해 진행되며 서서히 성과물을 내놓을 단계에 접어들었다니 ‘대작’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긍정을 마음에 입력하자”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98 마음-부처와 중생의 차이

새해의 새로운 결심과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하는 때이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의 실천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할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어두운 그림자처럼 자리 잡고 있는, 바꾸어야 할 마음의 입력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면서 대학생들이 새해에 믿고 실천하려는 마음의 입력 변화들을 소개한다.

세상 모든 이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

내가 잘난 척을 하고 타인을 무시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솔직히 길거리의 노숙자의 삶을 비웃고, 지하철에서 노상들의 모습을 무시했었다. 그래서 도와주려는 마음을 절대 가지지 못했었다. 그런데 보시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다. 얼마 전 그 날도 학교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한 쪽 팔이 없으신 한 중년 아주머니가 껌을 팔고 계셨다. 평소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외면했는데, 왠지 그 날은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졌다. 그래서 천 원짜리를 한 장 드리고 껌을 주시기에 받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내 손에 껌을 꽉 움켜쥐어주셨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유유히 떠나셨다. 순간 나의 어리석은 행동에 너무 부끄러웠고 그 분에게 죄송했다. 그 아주머니가 껌을 안 받으면 좋아하실 것이라고 내 위주로 생각했던 것이다. 평소에 무엇이든 작은 거라도 공짜로 받기를 좋아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보니 이유 없이 공짜로 받는 것은 나중에 언젠가라도 다 갚아야 한다고 했다. 공짜 좋아하던 나보다 그 아주머니가 오히려 그 점에서 훨저하신 것이다. 약자라고 생각했던 아주머니에게서 배울 점을 보았다. 이제 누구라도 무시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모두 배울 점이 있는 것이다.

나는 가진 것이 많고 환경도 좋다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강원도 지방에서 살았다. 재수를 하게 되면서 서울의 이모댁에서 생활하게 됐다. 대학입학 후 지금까지 5년째 서울에서 살고 있다. 이모님 가족이 잘해 주시지만 아무래도 우리 가족만큼 편하지는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가족들의 사랑이 그립고 외로워질 때는, “왜 우리 부모님은 서울에서 살지 못하시나?”하고 투정 같은 마음이 들곤 했다. 만약 부모님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셨다면, 아니면 형편이 넉넉해 나 혼자 사는 방이라도 있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지내지 않을까 하며 서운한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이제 정신 차리게 됐다. 얼마나 더 힘든 친구들이 많은데, 또 아예 대학조차 다닐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 생각만 했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됐다. 나에게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친척들과 항상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부모님이 계시다. 무얼 더 바라야 하나. 마음을 바꾸어보니 나는 정말 가진 것이 많고 내 환경도 누구 못지않게 좋다. 이제 이 환경에 정말 감사하게 됐다. 누구도 부럽지 않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것이다

좋은점 뿐 아니라 단점도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진정한 내 모습이다. 굳이 좋게만 보이려고 불안하게 애쓸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 남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 것이다. 두려움을 발전의 계기로 바꾸는 것, 소심했던 나에게는 정말 혁명이다. 새해엔 나 자신에게 내면의 혁명을 일으키고 싶다.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님이며 불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부처이고,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중생이다’라는 법어가 있다. 지금 내 마음 속에는 내가 원하는 마음의 입력이 들어있는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가? 수행정진이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변화할 수 있는 내면의 무한한 힘을 믿고 찾고 실천하는 것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본 란 100회를 함께 회향하시는 소감을 환영합니다. seon@hope.korea.com(황수경), 서울 마포우체국사서함 111호 (우121-041)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는 관리를 안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져 이를 뽑고 수 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들여 의치를 하게 된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 이가 아픈것이다.
사람들은 이가 아플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연구 끝에 2006. 4. 28에 미합중국 발명대회 특허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쳐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치아가 윤택을 내며 하얀 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우체국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제 1기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과정 모집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란
불교 상제례와 관련하여 이론과 실무서비스를 교육받아 장례 관련 업체, 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상가봉사조직 등 운영 및 관리자로 진출할 수 있는 전문직종입니다.

1. 교육기간 : 2009년 1월 13일 ~ 7월 11일 (6개월 과정 총 160시간)
2.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3. 수강인원 : 40명 (등록 선착순으로)
4. 수 강 료 : 80만원 (교재포함)
5. 장 소 : 조계종 중앙신도회 교육관 (조계사 옆)
6. 신청서류 : 수강신청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7. 강 사 진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출신 석 · 박사

등록후 바로 현재 진행되는 정규반, 통합반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강의를 3번 하므로 편리한 시간에 맞춰 수강하시면 됩니다.

◆ 수료 후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

현재 정규반 : 매주 (화) 오후 7시 ~ 9시 30분, 매월 1, 3주 (토) 오후 4시 ~ 8시
통합반 : 매월 1, 3주 (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 특전 : 1. 2인이상 등록시 각각 10% 할인 2. 상위 5%이내 성적우수자 취업 보장
3. 수료 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F.B.A.과정 등록 시 등록금 30% 할인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준)불교생활의례문화원 02) 723-0444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길 설악에서 열리다



❶ 진전사, 한국 부도의 원조를 읽다

동쪽으로 갑니다. 긴 기다림 끝에 새해 첫 일출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행렬과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 다소 어색하지만, 소를 찾아가는 마음으로 설악(雪嶽)의 깊은 골짜기 진전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거기 솔숲에는 1200년이 넘는 세월을 좌선삼매에 든 노스님처럼 앉아 있는 부도(浮屠 浮圖 佛頭 등 다양하게 표기됨)가 있습니다. 부도는 선사들의 유골을 모신 석재 조형입니다.

새해의 첫날 나선 부도밭 기행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역사를 가진 절에는 어김없이 부도밭이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더러는 장엄하게 더러는 초라하게 자리하고 있는 부도밭에는 앞 시대를 살다가 수행자들의 생애가 있습니다. 강물처럼 면면히 흐르는 전등(傳燈)의 맥박 소리가 있고 송죽처럼 푸르게 살다간 구도자의 성성한 법향이 느껴지는 곳이 부도밭입니다.

부도밭은 죽음의 공간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은 본래 둘이 아니어서, 삶 속의 죽음을 바로 보아야 하고 죽음 속의 삶을 형형하게 알아차려야 함을 가르치는 법문이 울려 퍼지는 또 하나의 설법전입니다. 무형(無形)의 형상을 볼 눈도 갖추지 못하고 무성(無聲)의 법어를 들을 귀도 갖추지 못한 채, 제멋대로의 감흥에 취해 떠나는 이 기행이 훼불과 역적질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계령에 올라서니 푸른 동해가 눈을 시원하게 합니다.

설악은 과연 눈을 뒤집어쓰고 있을 때 설악입니다. 낙산사를 지나 7번 국도를 버리고 옛 공항자리를 감돌면서 바라보는 설악의 풍경은 천하를 평정하고 돌아온 대장군의 위세처럼 우렁차고 당당합니다. 그 늘진 길엔 빙판이 있어 운전대를 움켜잡게 되지만 둔전리(양양군 강현면)로 접어들자 오래전에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온 듯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몇 년 전에 왔을 때에 비해 민가가 여러 채 늘어났습니다. 도시생활이 힘들어 귀농을 한 탓인지 쉬엄쉬엄 살아도 될 만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휴식처인지 모르겠지만, 사람 사는 냄새가 풍기는 둔전리를 지나 진전사에 닿습니다. 새롭게 중창해 최근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은 진전사 적광보전이 두툼한 눈이불을 덮고 어느새 앞산을 넘어가는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단아한 석조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나와 곧장 부도를 찾아갑니다. 절 마당 어귀에서 30여 m 쯤 되는 곳에 부도가 있습니다. 저승꽃 같은 이끼가 군데군데 서려있는 부도 앞에 섭니다. 겨울바람 한 줄기가 1200년 전에도 그렇게 숨 쉬고 있었다는 듯 머리카락을 쓸고 갑니다.

부도의 주인은 한반도에 처음으로 선불교를 전한 도의(道義 생몰미상) 조사(祖師, ‘도의국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칭호이고 더러 선사로도 칭하지만, 이 기행에서는 한국 선불교의 초조(初祖)란 점에서 조사로 칭한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도의 양식은 이 땅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도, 탑의 형식에서 부도의 양식으로 옮아가는 형태인 것입니다. 석탑의 기단부를 받침대로 사용하고 팔각원당형의 원형(原形)인 팔각당 양식의 몸돌을 16장의 연꽃으로 이루어진 연화대에 얹었습니다. 이 연화대의 중간에 사리공이 있어 도의 조사의 사리가 모셔졌을 것이지만 지금 9.5㎝ 깊이의 그 ‘적멸의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진전사가 언제 폐사 됐는지도 모르니 부도의 사리공이 언제부터 비어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거기 화려한 사리장엄장치 속에 봉안 됐을 도의 조사의 사리가 형상은 자취를 감추었어도 구산선문이라는 선불교의 화려한 꽃으로 피어난 그 법력만은 아직도 생생히 살아 있음에 머리를 조아릴 뿐입니다.

석탑과 원당양식 혼용된 한국 부도의 시초

도의 조사, 당 서장지장 인가 받고 귀국 후 구산선문 기틀 닦아

탄탄한 하부 근엄한 몸돌 화려한 상부 조화

몸돌의 윗부분은 팔각의 지붕돌이 덮였으며 그 위에 연꽃모양의 보주가 있습니다. 온전한 모습을 갖추었을 적에는 탄탄한 하부와 근엄한 몸돌 그리고 화려한 상부가 조화를 이뤄 그 주인의 덕화를 잘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키가 3.17m인 이 부도의 조성연대는 도의 조사가 진전사로 은둔한 821년에서 그의 제자인 염거 화상의 부도가 조성되는 844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보물 제439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도의 조사의 부도를 시원으로 하는 우리나라 부도는 염거 화상의 부도를 기점으로 전형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양식을 갖춘 부도는 통일신라와 고려조에서 일반화 되다가 조선조로 이어지며 석종형이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더러 방형과 전래양식을 따르지 않은 독특한 형태도 있습니다.

보리달마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선불교를 한반도에 전한 도의 조사를 두고 ‘한국의 달마’라고 합니다.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건너가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도리를 펴려 했으나 시절인연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고 숭산(崇山)에 들어가 9년간 면벽 수행을 한 것처럼, 도의 조사도 대륙에서 ‘교외별전’의 도리를 터득하고 왔지만 고국에서는 그 뜻을 펼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둔한 곳이 바로 진전사였습니다.

도의 조사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부도탑비가 전해지지 않고 도의 조사를 언급한 문헌도 아주 드물게 보일 뿐입니다. 혹자는 도의 조사를 일컬어 통일신라시대 불교의 ‘반역자’ 혹의 ‘혁명가’란 수식을 붙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권의 통치 이념을 부양해주었던 교학불교의 시절, 각자가 심안을 열어 몰록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부르짖음에 화답할 분위기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말 좀 들어봐라”하고 군중을 선동하지는 않았을 도의 조사를 반역자라든가 혁명가라는 다소 전투적인 수식어로 묘사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려시대의 천책이 남긴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에는 도의 조사가 화엄종 스님인 지원승통(智遠僧統)과 나눈 대화의 일편이 기록돼 있습니다. 문답한 토막을 읽어 봅니다.

지원이 또 묻기를,

“그렇다면 교리에서 신해행증(信解行證)을 실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 정당함을 정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과(佛果)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도의가 대답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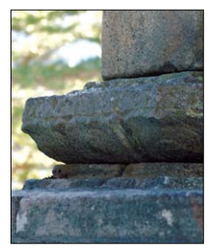
“무념(無念) 무수(無修)의 이성(理性)이 신해행증일 뿐이다. 조종(祖宗)이 법을 보이지만 부처와 중생이 얻을 수 없으며, 도성(道性)이 곧바로 드러날 뿐이다. 그러므로 5교 이외에 특별히 조사의 심인법(心印法)을 전했을 따름이다. 그래서 부처의 형상을 나타낸 까닭은 조사의 정리(正理)를 이해하기 어려운 근기들을 대면하기 위해 짐짓 방편신(方便身을) 나타낸 것이다. 설사 다년간 불경을 전독(傳讀)한다하더라도 이런 것으로 심인법을 증득하려는 것은 영원토록 얻기 어려울 뿐이다.”

<조당집>에도 도의 조사와 관련된 짧은 기록이 전합니다. 도의 조사가 입당(入唐)하는 과정과 대륙에서 참예한 성지와 스승들에 대한 언급 뒤에 스승인 서당지장이 도의 조사의 법을 인가하며 “진실로 법을 전한다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전하랴”하며 그때까지 쓰던 명적(明寂)이라는 이름 대신 ‘도의(道義)’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극찬했다는 이야기가 속을 후련하게 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백장회해(百丈懷海) 선사가 도의 조사의 수행의 깊이를 알고 “강서의 선맥이 몽땅 동국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 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9세기 중엽에 조성된 도의 조사 부도로 추정되는 진전사 부도. 석탑의 기단 위에 팔각원당형의 비신이 결합된 초기 부도 형태다. 아래 사진은 탑신과 지붕돌(왼쪽) 그리고 연화대의 모습.





도의 조사의 시절, 그러니까 9세기 중엽 도의 조사가 37년의 중국 구법생활을 마치고 돌아 온 통일신라 때 설악의 이 공간은 엄청난 오지였을 것입니다. 육조 혜능의 적통을 이어 중국 선불교에 우뚝한 일파를 형성한 마조도일(馬祖道一) 선사, 그 희대의 선장을 계승한 서당지장(西堂智藏)으로부터 심인(心印)을 이은 도의 조사가 때와 인연을 기다리기 위해 찾아들기에 알맞을 만큼 외진 곳이었을 겁니다. 수도인 경주로부터의 거리가 그렇고, 험준한 산세가 그렇고, 화엄학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자리를 굳힌 불교의 판세가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의 조사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았고 길지(吉地)로 스며들어 자신이 뿌린 씨앗을 가꾸고 꽃피울 사람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때와 사람의 인연이 찾아 왔을 때 주저 없이 가슴을 열어 밭을 갈고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시대로부터 아홉 자락의 산에 선문이 형성돼 선불교의 화려한 역사가 열린 것입니다.

너도 나도 살기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시절이 어려운 것은 사람이 시절을 다스리지 못하는 탓일 뿐, 시절이 사람을 어쩌지는 않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 봅니다. 우리나라 선불교의 첫 스승 도의 조사의 부도 앞에서.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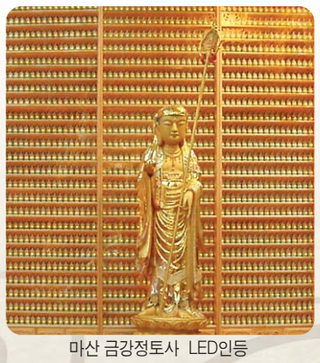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